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조권중

A Study on Risks and the Insecure Society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연구책임

조권중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최지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개인 불안이 사회·시대의 불안으로 신뢰증진·공동체 활성화로 해소해야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의 슬픈 자화상 ‘안녕들..’ 열풍·세월호 참사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이 달린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왔다. 여러 미디어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을 주요 이슈로 보도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배 안에 있던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그 뒤 구조작업에 나섰던 잠수부와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들이 모두 11명이나 숨졌다. 이 참담한 사건을 겪고 이 사회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이 대참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사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정부패,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행태,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기업과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개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반향이 시대적 불안으로 전이되었다.

시민들 “우리사회는 안전하지 못해..서울도 마찬가지”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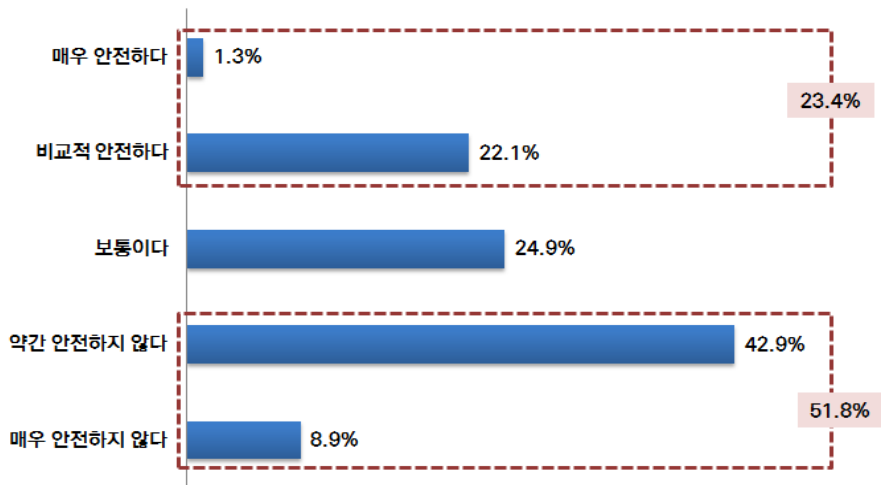
시민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도시인 서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전세가격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다. 향후 노후불안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경제생활의 불안정에서 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민 51.8% “서울은 안전하지 않아”...23.4%만 “안전한 편”

서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42.9%가 ‘약간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인 51.8%의 응답자가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서울에 대해서도 안전한 도시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역시 남성(48.5%)보다는 여성(54.9%)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8%)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55.9%)과 주부층(5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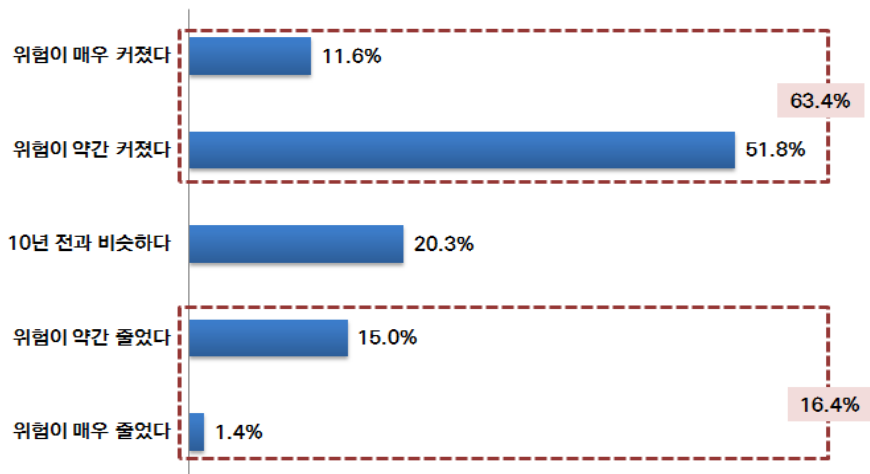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62.2%)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서울의 안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의 안전정도 인식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서울이 10년 전에 비해 더 위험해져”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8%)의 응답자가 ‘위험이 약간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1.6%는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 정도의 시민(63.4%)들은 10년 전에 비해 서울이 더 위험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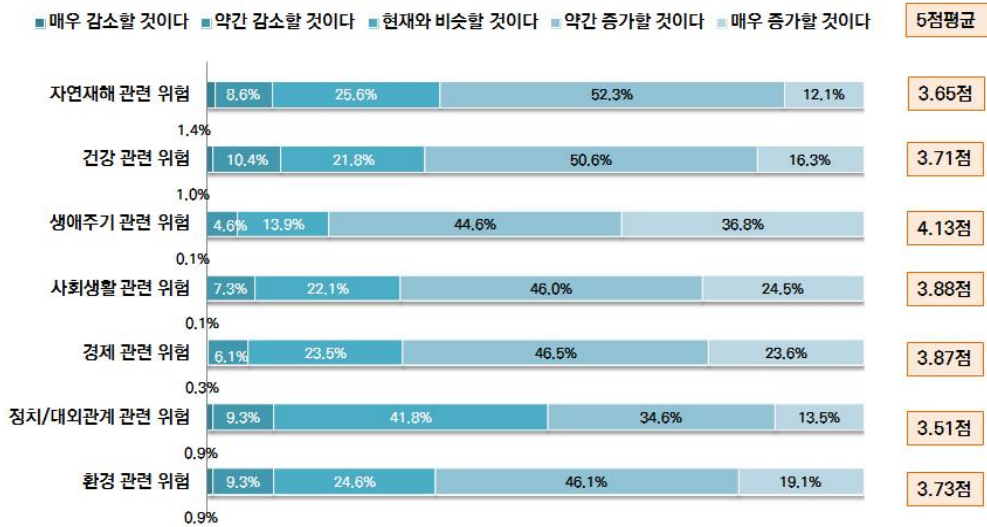


[그림 2] 10년 전 대비 서울시민 위험도 인식

서울시민 81.4% “앞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

앞으로 서울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위험요소 7개 각각의 향후 증감 전망에 대해, 대부분의 위험 요소별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애주기 관련 위험’ 증가 응답률(81.4%)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회생활 관련 위험’(70.5%)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70.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정규직 근로자(78.4%)나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7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40대(70.1%)나 주부층(7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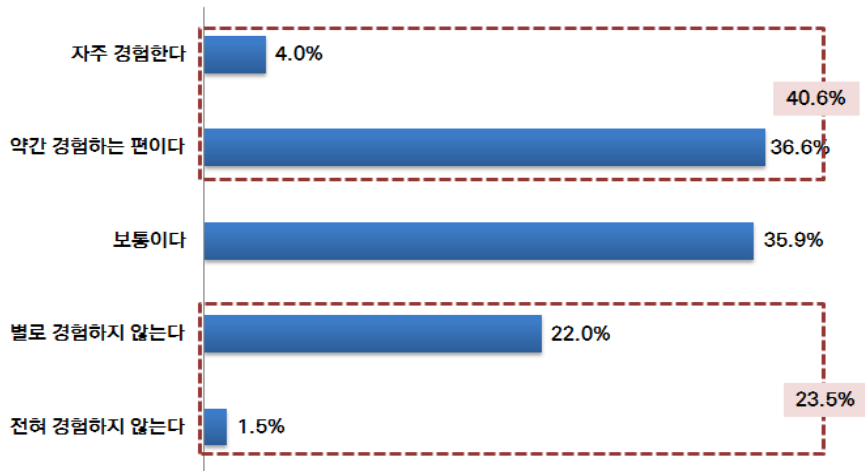
[그림 3] 위험 요소별 향후 증감여부 전망

“일상생활서 불안감 경험” 40.6%, “경험한 적 없다” 23.5%

서울시민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안감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35.9%,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경험한다’(약간+자주)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35.6%)보다는 여성(4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층(45.5%)과 화이트칼라층(45.4%) 등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

자(56.8%)에서 ‘경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경험한다’는 응답(4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 변수가 일상적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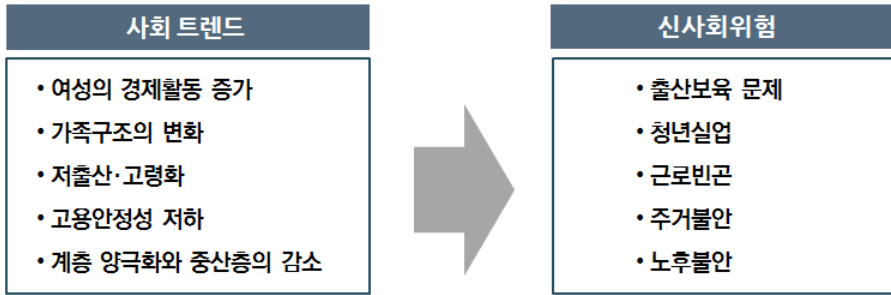


[그림 4]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삶의 불안정성은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에 집중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스 산업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가져왔고,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보육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가족과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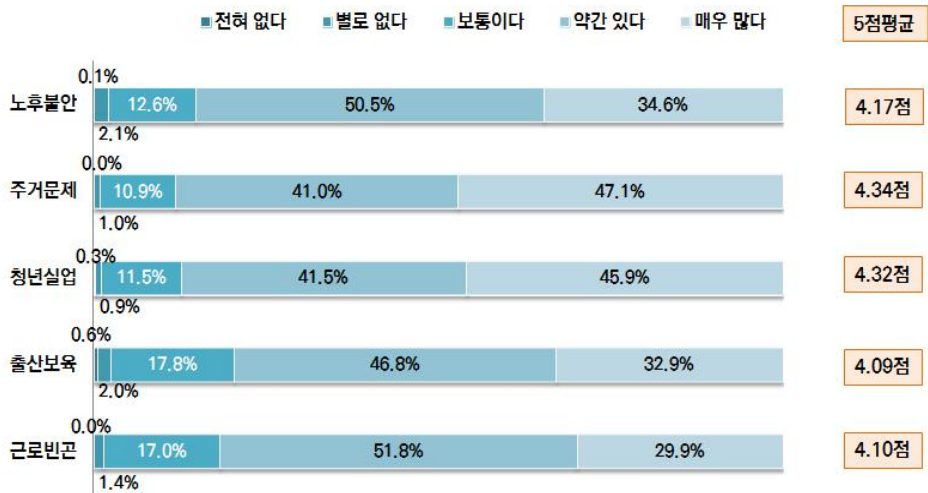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었다.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은 특히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저소득가정, 고령자 등에게로 집중되어가고 있다.



[그림 5] 주요 사회트렌드와 신사회위험의 등장

신사회위험, 주거문제·청년실업·노후불안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서울 도시의 새로운 위험으로서 노후불안 등 5가지 신사회위험 요소별로 문제해결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가지 대부분 '중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다. 시민들은 제시한 위험 요소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주거문제'(88.1%)와 '청년실업'(87.4%), '노후불안'(85.1%) 해결의 중요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신사회위험 요소별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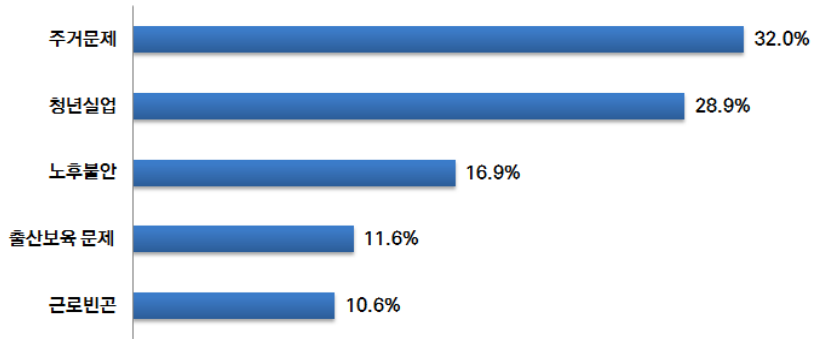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집값 상승, 전세 대란 등의 ‘주거문제’ 해결 중요도는 전세입주자(9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노인 우울증 등 ‘노후불안’ 중요도는 60대 이상(91.6%)에서, ‘청년실업’ 중요도는 20대(92.6%), ‘출산 보육 문제’는 기혼과 무자녀층(90.7%) 등 이해 당사자 계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역점대책은 주거문제·청년실업·노후불안·출산보육 순서

5가지 신사회위험 요소 각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 항목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약간+매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개 항목 중 ‘주거문제’(83.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청년실업’(70.5%)이나 ‘노후불안’(70.0%)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보육’(67.9%)이나 ‘근로빈곤’(65.8%)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 요소 중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는 ‘주거문제’(32.0%)와 ‘청년실업’(28.9%)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노후불안’ 문제는 16.9%, ‘출산보육’ 문제는 11.6%, ‘근로빈곤’은 10.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위험요소 중 주거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문제’를 꼽은 경우는 30대(45.9%), 기혼과 무자녀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청년실업’은 20대(49.3%), 미혼층(38.9%)에서 특히 더 많았다. ‘노후불안’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6.1% < 40대 13.4% < 60대 이상 33.7%)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최우선 대책이 필요한 신사회위험

구성원 간 대화·협의로 합의 도출해야 사회적 갈등 해소 가능

불안사회를 치유하는 방안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있다.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이기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회차원의 위험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공론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뢰가 부족한 사회의 배경에는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의 약화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람들의 소속감과 귀속감 속에서 돌봄과 돌봐줌, 그 속의 치유가 필요하다. 개인적 접근에서 ‘힐링’이 유행했다면, 사회적으로는 치유보다는 ‘보살핌’의 의미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들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 육아, 노후불안 등 기존 제도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상호 간의 이해와 함께하는 연대, 이를 위해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01 우리 사회의 위험과 서울의 불안 현상	2
1_우리 사회의 위험과 사고	2
2_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7
3_연구방법: 시민의 불안 측정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13
02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18
1_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18
2_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위험에 대한 인식	23
3_서울시민의 일상 속 불안 경험	32
4_불안사회 서울을 대하는 태도	38
03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48
1_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의미를 ‘사회의 질’ 접근방식에서 제시	48
2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재정, 주거환경, 건강복지, 노동, 교육	52
3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개선 중, 그러나...	75
04 불안사회 전망: 신사회위험	78
1_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78
2_신사회위험: 출산보육, 청년실업, 근로빈곤, 주거불안, 노후불안	79
3_신사회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96
4_불안과 잠재적 사회위기	100

05 불안사회에서의 과제	103
1_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사회	104
2_신뢰 부족의 불신구조	107
3_불안사회 해소의 과제: 신뢰와 공동체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7
Abstract	165

표

[표 2-1] 선행연구 검토	20
[표 2-2] 위험의 유형별 분류	21
[표 2-3] 설문조사 분석틀	22
[표 3-1] EU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49
[표 3-2] 이재열(2007)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50
[표 3-3] 조권중·변미리(2009)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구성	51
[표 3-4] 소득증가율	54
[표 3-5] 도시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55
[표 3-6] 부채 현황	57
[표 3-7] 서울의 가구 부채 이유	58
[표 3-8] 소득분배지표	59
[표 3-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60
[표 3-10] 신주택보급률	61
[표 3-11] 자가와 전·월세 비율	62
[표 3-12] 서울의 5대 범죄 발생 현황	63
[표 3-13] 주변 환경의 위해요인 인식	64
[표 3-14]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	64
[표 3-15] 의료시설 수	66
[표 3-16]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67
[표 3-17]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68

[표 3-18] 실업률과 고용률	71
[표 3-19] 근로시간	72
[표 3-20] 교원 1인당 학생 수	74
[표 3-2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75
[표 4-1]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88
[표 4-2]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89

그림

[그림 1-1] 최근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대형 사고들	5
[그림 1-2] 재난유형 분류	6
[그림 1-3] 서울의 자살률 추이	9
[그림 1-4] 불안의 구조와 위협의 사회적 구성	10
[그림 1-5] 위협의 사회적 전이 기제	12
[그림 1-6]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13
[그림 2-1] 우리나라 안전정도 인식	23
[그림 2-2] 서울의 안전정도 인식	24
[그림 2-3] 10년 전 대비 서울시민 위험도 인식	25
[그림 2-4] 10년 후 서울의 위험정도 변화 전망	26
[그림 2-5] 위험 요소별 향후 증감여부 전망	27
[그림 2-6] 위험 요소 중 서울시 취약 분야	28
[그림 2-7] 위험 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 인식	29
[그림 2-8] 위험 요소별 통제 가능성 인식	30
[그림 2-9] 위협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복수응답)	31
[그림 2-10] 관련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32
[그림 2-11]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33
[그림 2-12] 주제별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34
[그림 2-13] 주제별 불안감 인식정도	35
[그림 2-14]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	36

[그림 2-15]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복수응답)	37
[그림 2-16] 문제발생 시 소통 가능한 관계	38
[그림 2-17]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39
[그림 2-18]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40
[그림 2-19] 위험 관련 사회활동별 참여경험(복수응답)	41
[그림 2-20] 위험사회에 대한 서울시의 인지력 평가	42
[그림 2-21] 위험요소별 서울시의 책임정도 인식	43
[그림 2-22] 서울시 안전 관련 대처방식의 적절성	44
[그림 2-23] 안전문제 관련 필요한 대처 방안	44
[그림 2-24] 안전 관련 정보 소스별 신뢰도	45
[그림 3-1] 사회경제적 안전성 범주	53
[그림 3-2] 소득증가율 추이	54
[그림 3-3] 도시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별 추이	56
[그림 3-4] 부채 현황	57
[그림 3-5] 서울의 가구부채율	58
[그림 3-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60
[그림 3-7] 서울의 전세평균가와 매매평균가 추이	62
[그림 3-8] 도시위험도	63
[그림 3-9] 의료시설 현황	65
[그림 3-10]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66
[그림 3-11]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분야별 비중	67
[그림 3-12] 전국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68
[그림 3-13]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69
[그림 3-14] 노후준비율과 노후준비방법	70
[그림 3-15] 실업률	71

[그림 3-16] 노동유연성	72
[그림 3-17] 서울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73
[그림 3-18] 서울의 교육재정 지원액	74
[그림 4-1] 주요 사회트렌드와 신사회위험의 등장	80
[그림 4-2] 서울시 합계출산율	81
[그림 4-3]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2010)	82
[그림 4-4] 사교육비 비교	83
[그림 4-5] 청년 실업률	85
[그림 4-6]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87
[그림 4-7] 주택전세가격 동향	90
[그림 4-8]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92
[그림 4-9] 서울의 노령화 지수	93
[그림 4-10] 노인의 월평균 소득	93
[그림 4-11]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94
[그림 4-12] 인구 십만 명당 노인 자살률	95
[그림 4-13] 신사회위험 요소별 중요성 인식	97
[그림 4-14] 신사회위험 요소별 개인적 피해 가능성 인식	98
[그림 4-15] 신사회위험 요소별 서울시 책임정도 인식	99
[그림 4-16] 최우선 대책이 필요한 신사회위험	100
[그림 5-1] 행복지수 및 정신건강 평가	105
[그림 5-2] 서울 도시 특성 인식	107
[그림 5-3]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	108
[그림 5-4] 대상별 신뢰 수준	109

01

우리 사회의 위험과 서울의 불안 현상

- 1_우리 사회의 위험과 사고
- 2_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 3_연구방법: 시민의 불안 측정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01 | 우리 사회의 위험과 서울의 불안 현상

1_우리 사회의 위험과 사고

1) 현대사회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정보화 흐름 속에서 환경 변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을 겪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위험(risk)은 현대성을 구현하는 주요 개념이자,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이재열 외, 2010; 홍성태, 2010).

도시는 경제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보다는 점점 불안하고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돌출되는 위험과 이로 인한 불안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험사회론에서, 현대사회는 파국적인 위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이다(Beck, 1992). 서구의 근대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울리히 벡은 “선진화된 근대성에서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된다”고 정의하고 있다(Beck, 1992; 정지범·류현숙, 2009). 위험사회는 기회와 위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위험은 무작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로 구조화된 것이며 근대화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진단된다(송해룡, 2014).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전 예방도 사후 대책도 불가능한 위험이 과거보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며, 향후 우리 사회의 위험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2) 위험사회론의 등장

일반적으로 위험은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를

나타내곤 한다(정지범·류현숙, 2009). 홍성태(2015)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 즉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재열(2010)은 일정 기간 내에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위험은 어떠한 결과(재난의 결과로서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재난의 발생 확률)에 중심을 두고 발생 전에 예방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위험의 개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이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지범·류현숙, 2009).

근대사회에 들어서 인간은 위험을 관리하려 노력하였고, 위험통제, 위험관리는 인류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위험은 국가의 체계적 관리 대상이 되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바로 근대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행정체계나 예산관리를 통해서 통제한다는 점에서 근대국가는 전 근대국가와 구별된다.

그러나 근대성의 심화는 위험통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을 탄생시켰다.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이행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등장을 의미한다. 인류가 과학기술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변화나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오늘날 신종 전염병의 증대와 오존층 파괴, 원자력 재난 등의 새로운 위험을 야기했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 사회학계에서 루만, 기든스, 벡 등을 중심으로 위험사회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울리히 벡은 위험의 문제를 사회학적 연구대상으로 끌어들이었다. 근대성의 심화가 가져온 위험들, 위험통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을 다루고 있다(Beck, 1992). 위험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양태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집약된다(이재열 외, 2010).

3) 세월호 참사, 이중위험사회와 사고사회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는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의 위험·사고·재난 관련 제도들이 크게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현실적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배 안에 있던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그 뒤 구조작업에 나섰던 잠수부와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들이 모두 11명이나 숨졌다. 이 참담한 사건을 겪고 이 사회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이 대참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사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정부패,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행태,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기업과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여파가 수습되기도 전에 서울에서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가 추돌해 탈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앞선 열차가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뒤따르던 열차가 추돌한 것으로, 자칫 대구 지하철 화재처럼 대형사고로 커질 수도 있었다. 단순히 운영직원의 근무태만이나 안전 불감과 같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서울시의 도시기반 운영체계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사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고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위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지구온난화, 광우병의 확산, 조류독감의 위협, 금융위기, 테러 등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위험성의 다양한 차원이 나타나고 있다. 문명이 곧 위험이 되는 탈현대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서구의 위험사회가 갖는 여러 특성에 부가해 한국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의 압축성장과 급진적인 근대화로 인해 파생된 한국적 위험사회를 추가적으로 경험해왔다(이재열 외, 2010).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들이 대표적 결과로 볼 수 있다.

✓ 1994/95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성장신화의 붕괴, 부실, 부패
1997	IMF 외환위기	세계화 위험, 실업 위험, 양극화, 빈곤화
2003	대구지하철 사고	안전 방재 대응체제 구축
2007	태안반도 기름 유출	환경재난의 사회적 경고
✓ 2008	광우병 촛불시위	위험인지의 정치화
	금융위기의 세계화	경제 불안정, 가계 위험 증가
2010	천안함 침몰	안보위험의 정치
2011	우면산 산사태, 서울 중심지 수해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체제
	동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재난의 세계화
✓ 2014	금융개인정보 유출	정보화 프라이버시 위험, 신용범죄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회적 안전망 위기
	세월호 재난	총체적 난국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도시기반 운영체제 문제
	판교 환풍구 붕괴	안전의식 부재
	제2롯데월드 사고, 검실 싱크홀	개발위주 성장의 부정적 결과

[그림 1-1] 최근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대형 사고들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의 특징은 높은 위험추구성향, 사회적 조정과 협력의 실패, 긴급구조체제의 미비, 그리고 관료의 부패와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성장지상주의는 외형적인 팽창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나,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단기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을 가져왔다(이재열, 2006).

재난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나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이재열, 2006). 많은 인재사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드러난 사전 징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성되는 결과로 나타난다.¹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주의하면 많은 경우에 위험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홍성태, 2015).

¹ 하인리히 법칙이란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감독자였던 하인리히(H. W. Heinrich)가 다양한 사고를 분석하여 발견한 법칙으로서,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었다는 것이다.

이재열(2006)은 한국사회 위험의 복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의 상호작용 정도와 사건에 걸린 소요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표를 만들었다. 사회의 복합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단순 증폭형 재난이 재발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복합·돌발형 사고, 복합·증폭형 환경 재난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림 1-2] 재난유형 분류

자료: 이재열(2006)

울리히 벡은 서구적 근대성으로 인한 '위험사회적 특성'과 한국적 근대화로 인한 '한국적 위험'에 노출된 이중적 위험사회라고 규정했다(이재열 외, 2005; 정지범·류현숙, 2009). 홍성태(2015)는 그냥 위험사회가 아니라 훨씬 상태가 안 좋은 악성 위험사회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악성 위험사회는 비리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빈발하는 사고사회를 가리킨다. 위험도가 높은 과학기술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체계가 결합된 사고사회에서는 비리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 쉽다(홍성태, 2015).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2_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1)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사회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이 달린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왔다. 여러 미디어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을 주요 이슈로 보도하였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개입,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²

“만일 안녕하지 못한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³

이러한 해프닝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인다. 일명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청년세대들의 문제제기이다. 더 나아가 청년세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호응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2013년의 반향이 시대적 불안으로 전이되었다.

2) 자살 등 사회적 불안 경고 나타나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⁴. 1998년 IMF 이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8.4명이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OECD 34개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⁵. OECD 평균 자살

² 경향신문, 2013년 12월 13일자, “고대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 대학가 확산... 청년들이 움직인다”

³ 미디어오늘, 2013년 12월 14일자, “‘안녕’ 대자보 학생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⁵ 뉴스1, 2015년 2월 8일자, “‘올분’ 많은 한국인.....우울증 관리 없이 자살 확산 못 막아”

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다. 아기를 낳기는 어렵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살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살률은 한 나라의 정신건강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은 나날이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은 국민정신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나 종교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원인보다 빈곤, 사회적 배제 등 사회적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새사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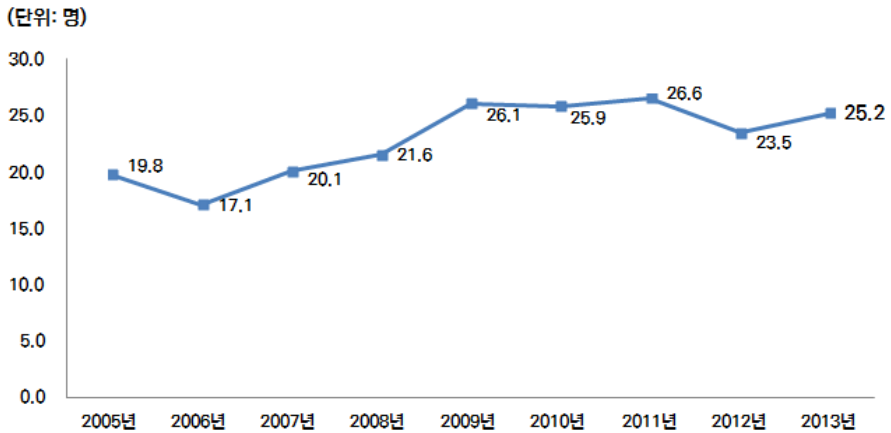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약 7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37.4%)이 가장 컸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⁷ 과 같이 여전히 생활고 등 사회경제적 요소로 인한 절망감이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았다.

서울 역시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그림 1-3]에서 보듯이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이 2012년 23.5로 전년도에 비해 잠시 주춤했다가 2013년 25.2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으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가 5년 동안 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⁸.

6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6.8%로 나타남(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결과).

7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위키백과).

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안전사고 긴급구조 활동결과'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자살사건으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0년 890건에서 2014년 4,926건으로 늘어났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74.2건에서 411건으로 증가했다(뉴스1, 2015년 2월 8일자, "서울 자살사건 5년간 5배 급증...자살률 OECD 11년 1위 대한민국").



[그림 1-3] 서울의 자살률 추이

주: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자살자 수/서울시 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00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최근에 서울은 자살을 비롯하여 사회적 불만의 표출, 집합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범죄와 아노미현상 등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불안사회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안, 불만과 불신 등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안녕한 도시’, 사회적 안녕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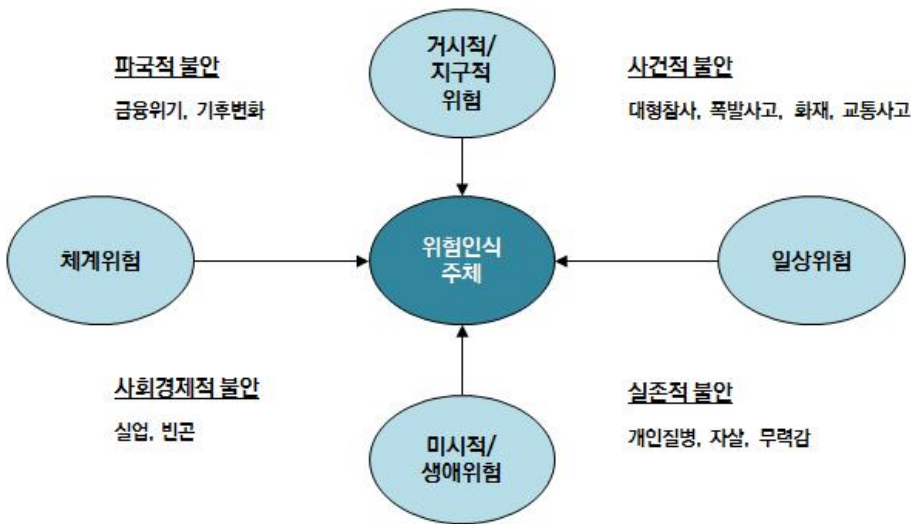
3)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험은 객관성의 영역이지만, 불안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의 반영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에서 구성된다. 불안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또 정치화되기도 한다. 피해를 두려워할수록 그리고 그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위험이 불안으로 확산되고, 또한 불안이 정치화하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이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촛불시위는 정치적 균열 위에서 구조적 불안 혹은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재구성되었다(조병희, 2010).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만성화된 공포(두려움)’로 이해하고 있다. 불안은 나쁜 일 혹은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에 기초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김태형, 2014). 공포가 두려움의 대상이 명시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예견이나 준비하는 상태의 감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은 늘 불안감을 야기한다. 위험이 불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재열·정진성(2010)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로차원은 체계와 일상수준의 위험을 구분한 것이고, 세로 차원은 지구적이고 거시적인 위험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위험을 나눈 것이다. '실존적 불안'은 생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과 쉽게 공유하기도 어렵고 소통하기도 어려운 내적 불안감이다. '사건적 불안'은 일상적 공간에서 체험되는 위험으로, 사소한 사건들에서 치명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현실화한 위험과 이를 체험한 기억은 일상의 공간을 일종의 잠재적인 위험공간으로 인지하게 한다. 화재, 전염병, 인적재난, 교통사고 등이 사건적 불안을 가져오는 유형이다. '파국적 불안'은 개인이나 특정 국가를 뛰어넘는 글로벌한 정치·경제·생태 시스템의 수준에서 파생되는 위험들로, 에너지 고갈이나 급격한 기후변동, 환경오염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 1-4] 불안의 구조와 위험의 사회적 구성

자료: 이재열·정진성(2010)

‘사회경제적 불안’ 혹은 ‘구조적 불안’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의 삶을 구조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감이다. 가령 급격한 경기침체는 대규모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파업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도 커진다. 경제적인 부채, 주거환경에서 오는 위험이나 범죄피해, 직업과 소득에서의 위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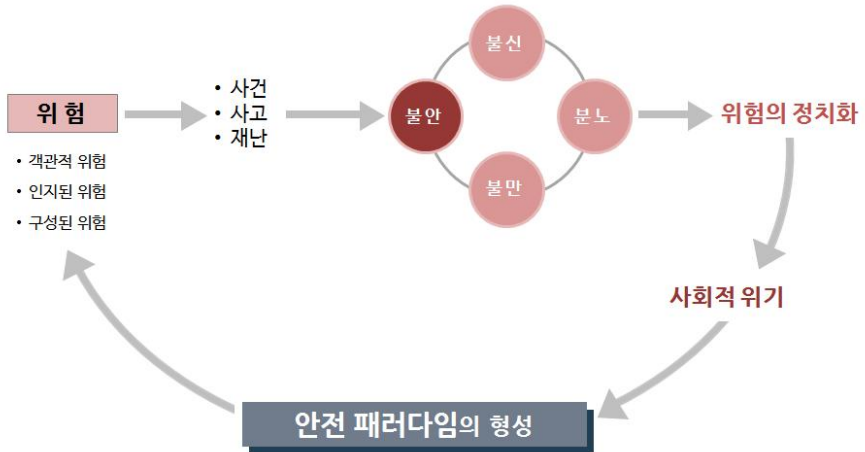
4) 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적 불안으로

오늘의 한국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우울하며 무기력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김태형, 2014)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의 현상은 이미 시민 개개인의 실존적인 불안을 넘어 사회적 불안, 도시적 불안, 구조적인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현상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의 점증하는 위험과 리스크에 초점을 두는 트렌드접근, 사회질서의 해체로 야기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접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대응적인 접근 등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생활 전반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위험들은 개인의 운이나 실수로 돌리기 어려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빈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안정옥(2010)은, 불안감은 인식의 주관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취약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약성에 대응할 자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동일한 객관적 위험에 대해서도 느끼는 불안감은 경감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은 그 사회의 성격을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잘 드러낸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둘러싼 공포감이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또한 정치적 과정의 중심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이재열 외, 2010).

사람들의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은 탈물질적 욕구(자기 계발, 개인의 자유, 시민참여, 인권, 환경)의 증가,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반감, SNS 등 온라인 매체의 확산 등과 연결되며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정지범·채종현, 2010). 우리 사회의 잠재된 위험요소

들은 사건, 사고, 재난 등의 형태로 돌출되며 이로 인한 대중의 불안, 불신, 분노는 주변 여건에 따라 상승하고 서로 연결되어 집회, 시위 등 비공식적 정치 행위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5] 위험의 사회적 전이 기제

2013년 출범한 정부는 국민들의 ‘히스테릭한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4대 악’으로 선정하였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 4가지 범죄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9%로, 전년도 하반기 28.5%에 비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안전행정부, 2014. 8).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개인차원의 ‘심리학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과도한 불안 심리 작동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소의 부메랑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6]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자료: 안전행정부, 2014. 8, 「4대 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3_연구방법: 시민의 불안 측정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이 연구는 위험사회 및 안전성 논의의 사회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울시민의 불안, 불만, 불신의 기원을 설명하며,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 서울의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추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도시사회의 중요한 트렌드로 제시될 불안요소들을 전망하고 사회 정책적 프레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의 불안사회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눌 수 있다. 설문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인식과 태도 및 행위양식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객관적 지표로는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를 분석한다.

1)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조사 실시

서울시민이 불안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안사회에 대응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위험사회론의 시각에서 제기된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불만→분노화’ 과정 및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의 정도와 그 원인을 유추해보고,

서울의 불안사회 현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은 프롬리서치에서 수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30일에서 9월 22일까지 24일간이다. 설문의 모집단은 서울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표본의 크기는 800명이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패널조사를 병행하였다.

2) 객관적 지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시민들의 인식조사가 불안사회에 대한 주관적 접근이었다면, '사회의 질' 접근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안전성 개념은 도시사회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어떠한 위험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 안전, 사회적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사회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를 토대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는 재정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복지, 노동, 교육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23개 항목의 지표들은 주로 통계청 자료와 「서울서베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신사회위험의 트렌드 분석

탈산업화에 이어 저성장체제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뚜렷하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추세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보육, 청년실업, 근로빈곤, 주거불안, 노후불안은 한국사회의 불안을 구조화하는 힘이다. 트렌드분석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을 함께 제시하여 불안의 추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국제적 위기와 한국 사회, 또는 서울 도시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와 인지도를 파악하는 일은 향후 정책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합의와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의 주체

인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불안사회’나 ‘위험사회’의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불안사회에 대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02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 1_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_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위험에 대한 인식
- 3_서울시민의 일상 속 불안 경험
- 4_불안사회 서울을 대하는 태도

02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1_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1) 위험 관련 조사연구 검토

국내 위험사회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연구가 있다.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험인식과 위험의 사회적 확산, 위험의 정치화 과정 등을 연구한 사례들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사회의 질 연구의 일환으로, 불신사회의 저변에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위험과 위험인지, 위험의 사회적 증폭 과정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지를 개발, 한국갤럽이 맡아 2008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 대하여 면대면 조사를 시행했다(이재열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설문에 '위험사회'를 특별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의 형태로 포용해서 조사하였다.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7개 위험영역별로 위험인식 정도를 취약성, 위험노출, 발생가능성, 대처능력의 4개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다(김미숙 외, 2013).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위험지각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위험지각수준을 진단하고, 일반인과 전문가(관료)의 위험지각 차이, 세계관, 탈물질주의, 사회적 질 등 가치변화에 따른 위험지각의 관계를 분석했다. 2009년 7월 31일에서 8월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다(정지범·류현숙, 2009).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지각의 수준 및 위험신호로서의 특성 확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위험의 사회적 확산 결과 및 국민들의 불안감 수준에 대한 종단적 설문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0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조사기간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정지범채종현, 2010).

한상진사회연구소 역시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수행한 서울 시민의식 조사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베이징, 도쿄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사였다.

송해룡·김원제(2014)는 오늘날 위험은 사회적인 재현이나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미디어가 특정 위험에 대해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 보도하는지에 따라 위험에 대한 공중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의 위험에 대한 관련성, 즉 관여도와 공중이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상황인식, 그리고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인 위험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 경기지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총 500명을 추출하여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5일까지 보름간 조사를 시행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조사를 토대로 서울이라는 특수성과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서울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개인의 불안 심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서울시민이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사회적 불안, 집단 간 불안인식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위험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2-1]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및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기간	연구기관 (저자)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과 안전 에너지 광우병 신뢰(SO) 정치성향/가치관 소통/중산층과 민중 인권 	2008.8.12 ~8.24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위험지각(전체 위험지각의 순위, 위험지각의 특성, 사회전반의 안전성, 광우병과 위험지각) 한국인의 가치관(사회적 질, 탈물질주의 가치관, 문화이론,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속도 관련 설문) 	2009.7.3. ~8.27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8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위험영역별 4개 차원(취약성, 위험노출정도,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정부의 대처능력)으로 인식 정도 조사 	201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
서울시민의식 조사 :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서울(513명), 베이징(560명), 도쿄(537명)의 거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 사회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2012~2013	한상진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위험특성과 한국인의 위험인식	서울·경기 지역 성인남녀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과학기술, 위험이슈 관련 미디어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위험관여/위험이슈에 대한 태도/위험문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태도/위험 관련 정보추구 행동 	2012.12.20 ~2013.1.5	송해룡, 김원제

2) 조사 설계와 분석틀

조사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나 서울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거에 비해 경험하는 위험정도가 증가 또는 감소했는

지 일반적인 의견을 묻고, 위험유형별로 위험증가도, 발생가능성, 통제가가능성을 조사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험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와 이에 대한 영향력 등을 조사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분류를 참고하여 홍수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관련 위험’, 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등의 ‘건강 관련 위험’, 노후 불안, 가족해체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등 ‘사회생활 관련 위험’, 실업 및 빈곤, 주택 시장 불안 등의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북한 위협, 인권 및 자유 침해 등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원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환경 관련 위험 등 위험요소 7개로 분류하였다.

[표 2-2] 위험의 유형별 분류

위험 유형	내용
자연재해 관련 위험	홍수, 태풍, 황사, 가뭄, 지진, 쓰나미, 급격한 기후변동 등
건강 관련 위험	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생활 관련 위험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산업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	실업·빈곤, 주택·전세가격 불안, 금융 불안,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등
환경 관련 위험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관리 등

두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불안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일상적인 불안감 경험정도와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시민들의 불안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태도를 조사하였다. 시민들

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위험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위험이나 안전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의 등장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서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위험사회를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분석은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2-3] 설문조사 분석틀

구분	설문 내용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와 서울에 대한 위험도 인식 - 위험 요소별 향후 전망/발생 가능성/통제 가능성 등 -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 - 위험요소별 정보접촉 시 두려움 인식정도
불안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불안감 경험정도 - 불안 요소별 경험정도 - 불안에 대응하는 태도
불안사회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의식 수준 평가 - 위험 관련 사회활동 참여 - 위험 요소별 서울시 책임정도 인식 - 서울시 대처방식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 안전문제 관련 정보 신뢰도
신사회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도시 특성 인식 - 신사회위험 요소별 중요도/피해가능성/서울시 책임정도 인식 등
사회적 신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수준
인구통계학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권역, 직업,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 주택형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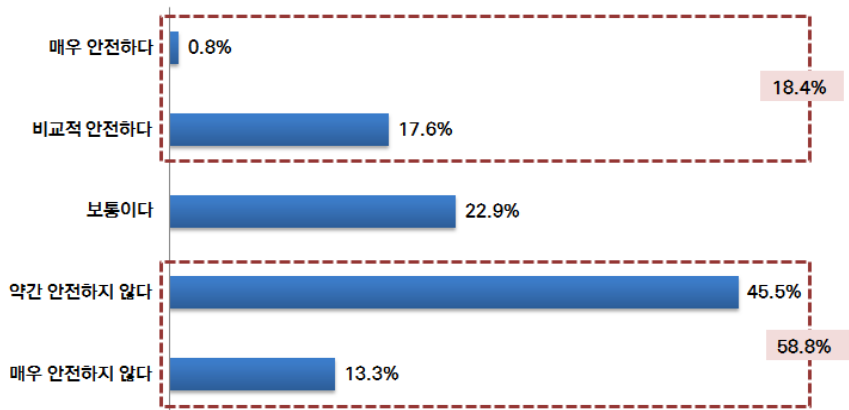
2_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위험에 대한 인식

서울시민의 불안사회에 대한 인식에 앞서 위험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위험 요소별 향후 전망과 발생 가능성, 통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민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도시인 서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전세가격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노후불안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가장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경제생활의 불안정에서 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나고 있다.

1) 서울시민 51.8%가 서울을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인식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 서울시민의 45.5%는 ‘약간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3.3%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0명 중 6명 정도(58.8%)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보다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해 상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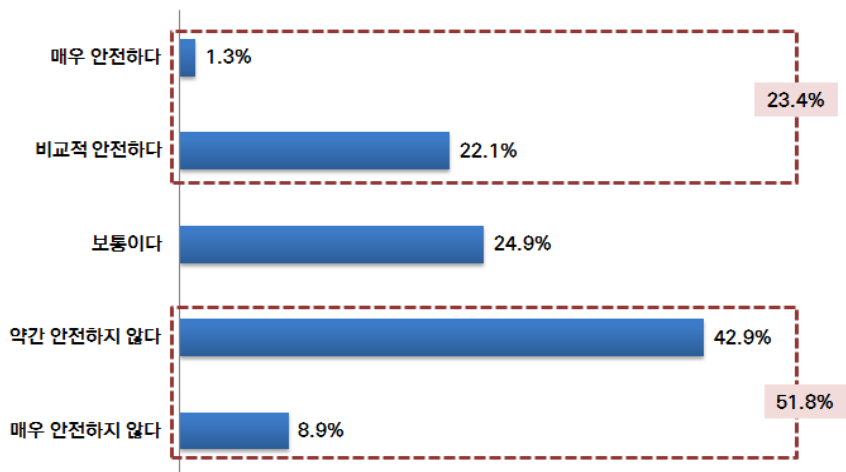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 안전정도 인식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률은 남성(56.4%)보다는 여성(60.9%)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62.2%)와 60대 이상(6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의 불안감 인식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특히 화이트칼라층(63.2%)에서 타 직업군보다 더 높게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소득별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6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42.9%가 '약간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인 51.8%의 응답자가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서울에 대해서도 안전한 도시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역시 남성(48.5%)보다는 여성(54.9%)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8%)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55.9%)과 주부층(5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62.2%)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서울의 안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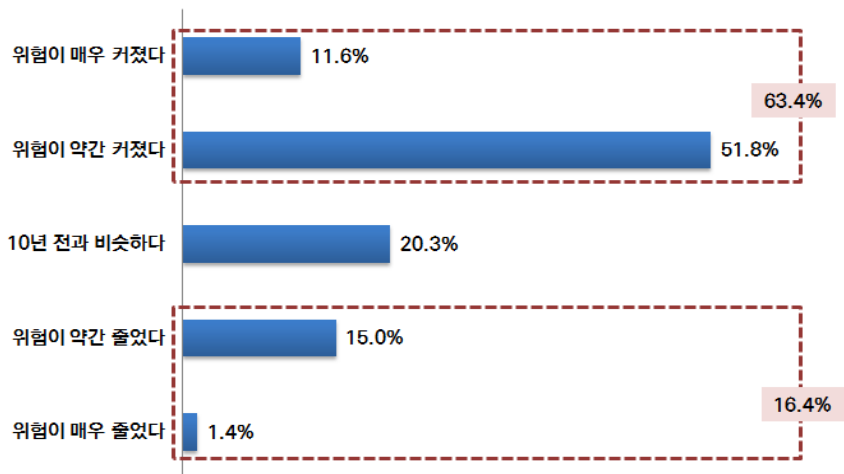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의 안전정도 인식

2)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10년 전에 비해 서울이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정도(51.8%)의 응답자는 ‘위험이 약간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1.6%는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10명 중 6명 정도의 시민(63.4%)들은 10년 전에 비해 서울이 더 위험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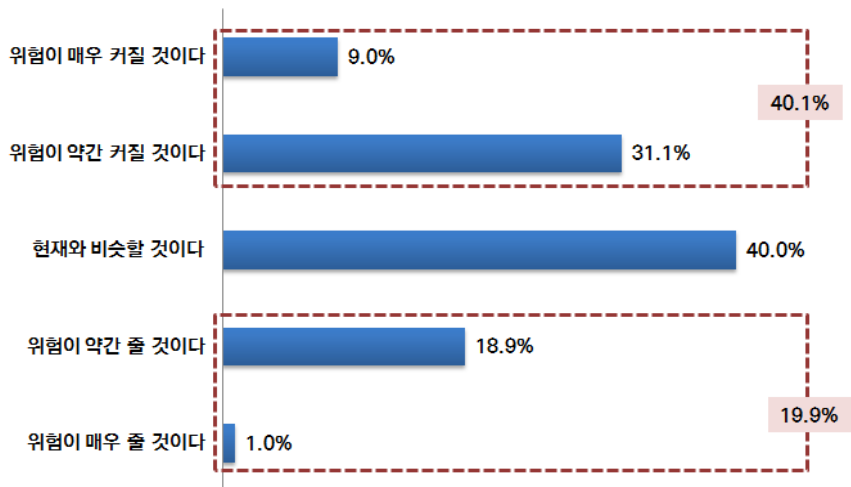
10년 전에 비해서 도시의 위험이 더 커졌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성(58.5%)보다 여성(68.0%)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69.5%)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10년 전에 비해 위험이 더 커졌다는 응답은 직업별로 블루칼라층(68.3%)에서 학생층(52.4%)이나 자영업자(58.2%) 등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상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70.3%)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위험이 10년 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2-3] 10년 전 대비 서울시민 위험도 인식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이후 서울의 위험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 정도(40.0%)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더 커질 것’(약간+매우)이라는 응답자가 40.1%로 ‘줄어든 것’(매우+약간)이라는 응답(19.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이후 서울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은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별로 20대(45.9%)와 30대(46.5%)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거주 지역별로 강북서권역(47.2%)과 강북동권역(44.1%) 거주자에서 한강 이하 지역 거주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45.4%)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에 비해서 미혼자(46.5%)나 기혼과 무자녀층(51.2%)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소유형태별로 전세거주자(46.5%)에서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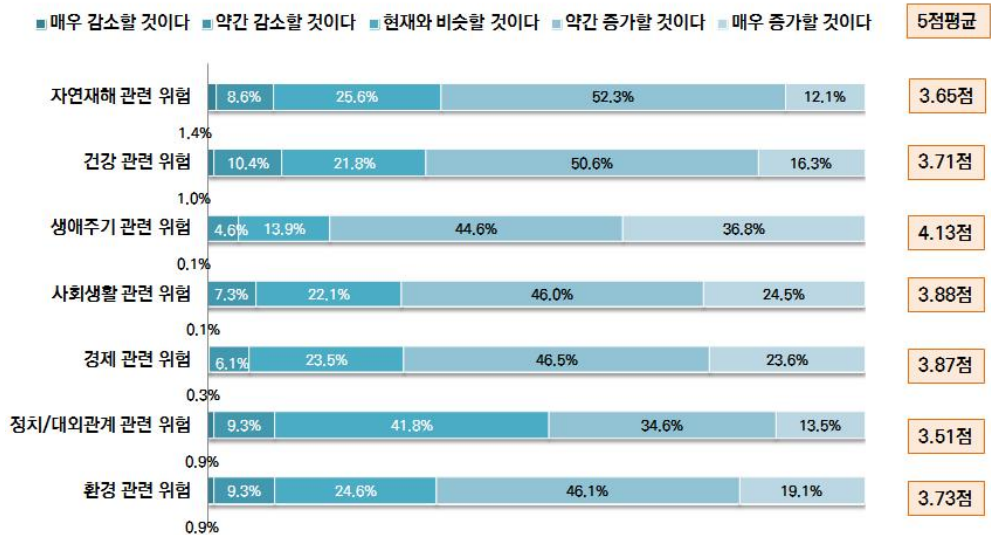
[그림 2-4] 10년 후 서울의 위험정도 변화 전망

3) 향후 서울에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 81.4%로 가장 높아

홍수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 위험', 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등의 '건강 관련 위험', 노후 불안, 가족해체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등 '사회생활 관련 위험', 실업 및 빈곤, 주택 시장 불안 등의 '경제생활 관련 위험', 북한 위협, 인권 및 자유 침해 등의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원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환경 관련 위험' 등 위험요소를 크게 7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서울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위험요소 7개 각각의 향후 증감 전망에 대해, 대부분의 위험 요소별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애주기 관련 위험’ 증가 응답률(81.4%)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회생활 관련 위험’(70.5%)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70.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생활 관련 위험’ 증가 전망률은 비정규직 근로자(78.4%)나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7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40대(70.1%)나 주부층(7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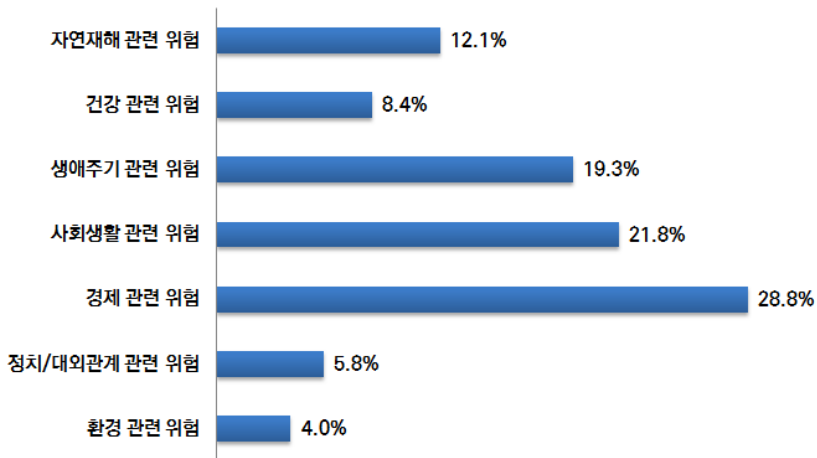
[그림 2-5] 위험 요소별 향후 증감여부 전망

4) 서울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

앞서 제시한 7개 위험 요소별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위험 한 가지를 고르게 한 결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28.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생

할 관련 위험'(21.8%), '생애주기 관련 위험'(19.3%) 순으로 꼽았다. 환경(4.0%)이나 정치·대외관계(5.8%) 등 다소 추상적인 요소보다는 실업, 빈곤 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그 밖에 5명 중 1명 정도(21.8%)는 사생활 침해, 재난재해 등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을 꼽고 있는데, 이는 세월호 사고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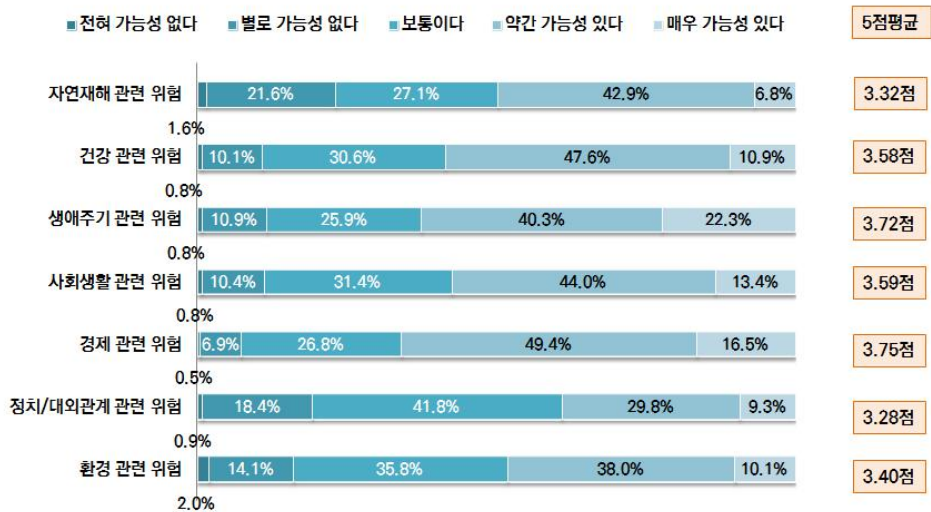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경제생활 관련 위험'을 꼽은 경우는 연령별로 30대(35.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별로 블루칼라층(33.7%), 고용상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33.8%),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회생활 관련 위험' 응답은 연령별로 20대(30.4%), 화이트칼라층(2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생애주기 관련 위험' 응답은 60대 이상(25.9%),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3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위험 요소 중 서울시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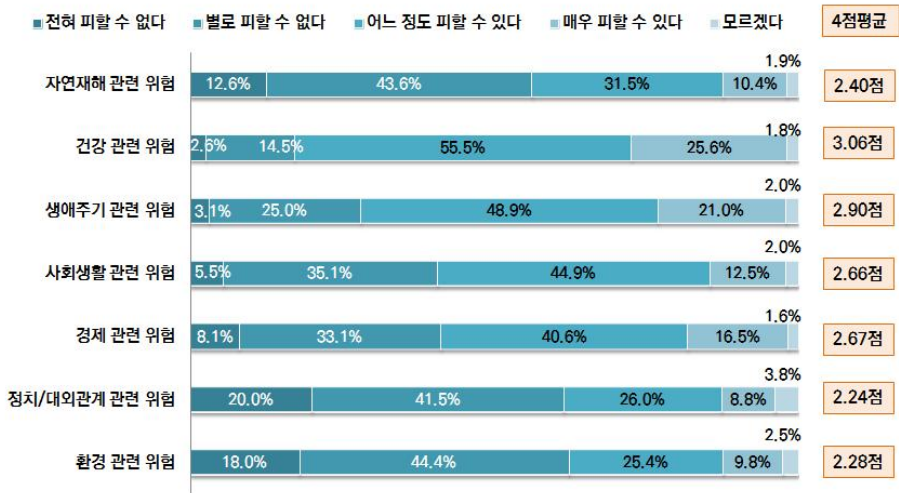
7개 위험 요소별로 본인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62.5%로 나타나 경제생활이나 노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어서 '건강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이 58.5%, '사회생활 관련 위험' 가능성이 57.5%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 가능성 응답은 20대(77.0%)와 30대(69.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미혼자(75.7%),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78.3%), 자가보다는 전월세입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 가능성은 60대 이상(72.3%), 자영업자(68.0%), 자녀가 없는 기혼 집단(8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은 연령별로 40대(62.8%)와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층(64.4%) 등에서,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20대(67.6%)와 화이트칼라층(6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2-7] 위험 요소별 실제 발생 가능성 인식

7개 위험 요소별로 개인적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피할 수 있다’(매우+어느 정도)는 응답은 ‘건강 관련 위험’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69.9%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생활 관련 위험’(57.4%), ‘경제생활 관련 위험’(57.1%) 등에 대해 피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환경 관련 위험’, ‘정치·대외관계 위험’, ‘자연재해 관련 위험’ 등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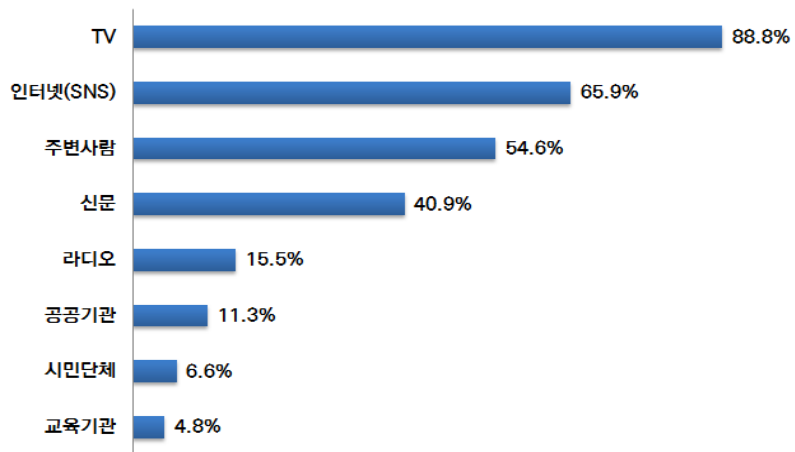


[그림 2-8] 위험 요소별 통제 가능성 인식

5) 위험 관련 정보획득 경로는 TV와 인터넷(SNS), 정보 접촉 시 절반 이상이 두려움 느껴

시민들은 이러한 위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얻을까.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TV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88.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SNS)’(65.9%), ‘주변사람’(54.6%)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문’은 40.9%, ‘라디오’는 15.5%로 나타났으며 그 외 ‘공공기관’(11.3%)이나 ‘시민단체’(6.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TV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9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20대(76.4%), 30대(75.0%) 그리고 화이트칼라층(7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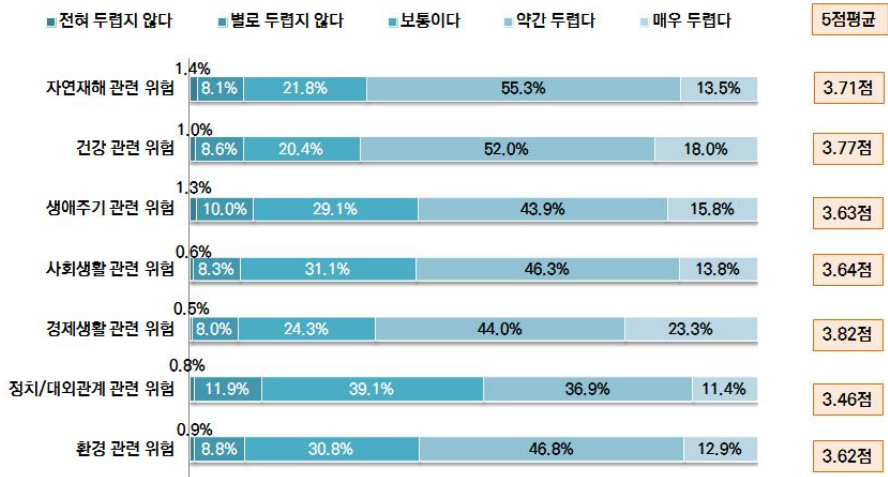
[그림 2-9] 위험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복수응답)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매체에서 7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얻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건강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70.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자연재해 관련 위험’ 정보(68.8%), ‘경제생활 관련 위험’(67.3%) 등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매체 정보 접촉 시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은 여성(73.8%)이나, 연령별로 40대(73.2%), 직업별로 블루칼라층(8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자연재해 관련 위험’ 정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72.3%), 블루칼라층(8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과 관련한 매체의 정보로 인한 두려움 인식은 주로 여성, 40대, 블루칼라층에서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 및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해룡·김원제,

2014).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문제가 이슈가 된 것처럼,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의 선정주의나 폭로주의도 지양해야 할 문제이다.



[그림 2-10] 관련 매체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3_서울시민의 일상 속 불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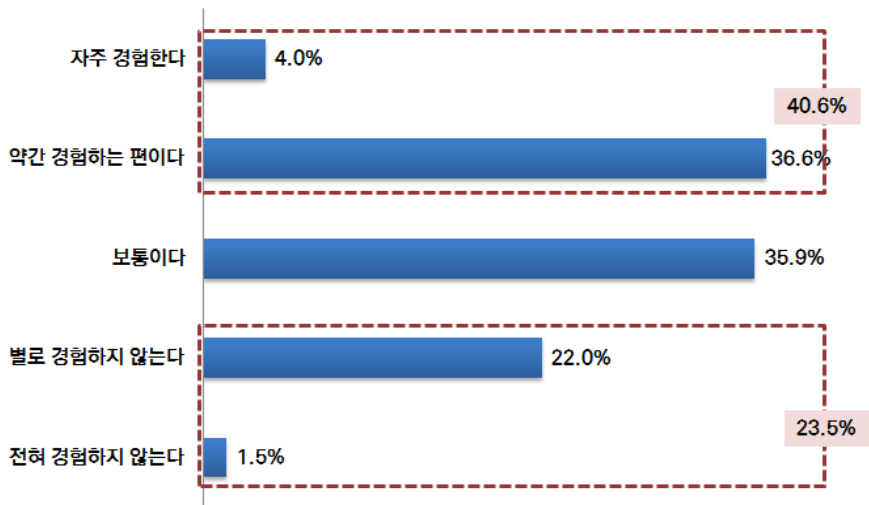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곧 시민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불안으로 잠재되어 있게 된다. 서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불안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불안감 경험빈도와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 불안에 대응하는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빈번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었다.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일상적 불안감의 원인 역시 경제위기로 인한 실림살이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 악화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불안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경제적 변수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불안감 경험 40.6%

서울시민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안감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험한다(약간+자주)’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으며, 35.9%는 ‘보통이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경험하지 않는다(전혀+별로)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을 ‘경험한다’(약간+자주)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35.6%)보다는 여성(4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층(45.5%)과 화이트칼라층(45.4%) 등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56.8%)에서 경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경험한다는 응답(4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 변수가 일상적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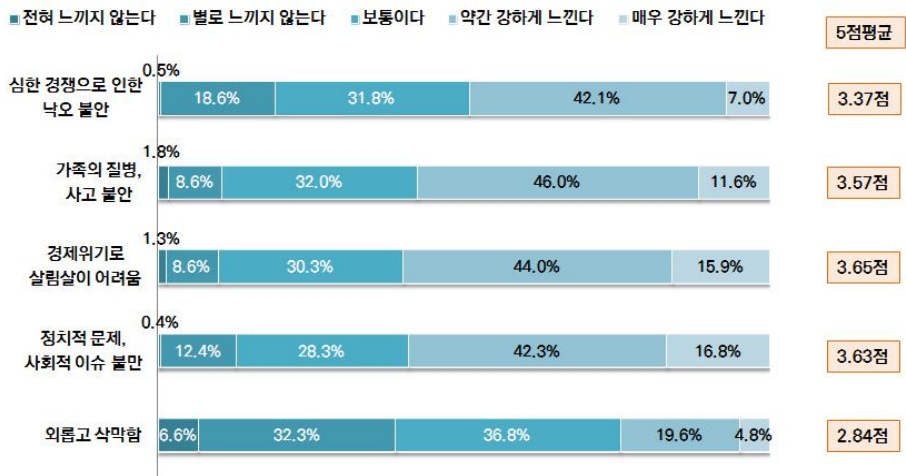


[그림 2-11]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제위기로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를 공감하는 비율(약간+매우)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접하면 불만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다’(59.0%), ‘가족 중 누군가

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까 걱정이다'(57.6%) 등에 대해서도 불안감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살이 걱정' 인식은 전 계층에서 고루 높은 가운데, 직업별로 블루칼라층(77.2%)이나 고용상태별로 임시근로자(70.3%)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만' 인식은 연령별로 40대 이상에서,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층(64.8%)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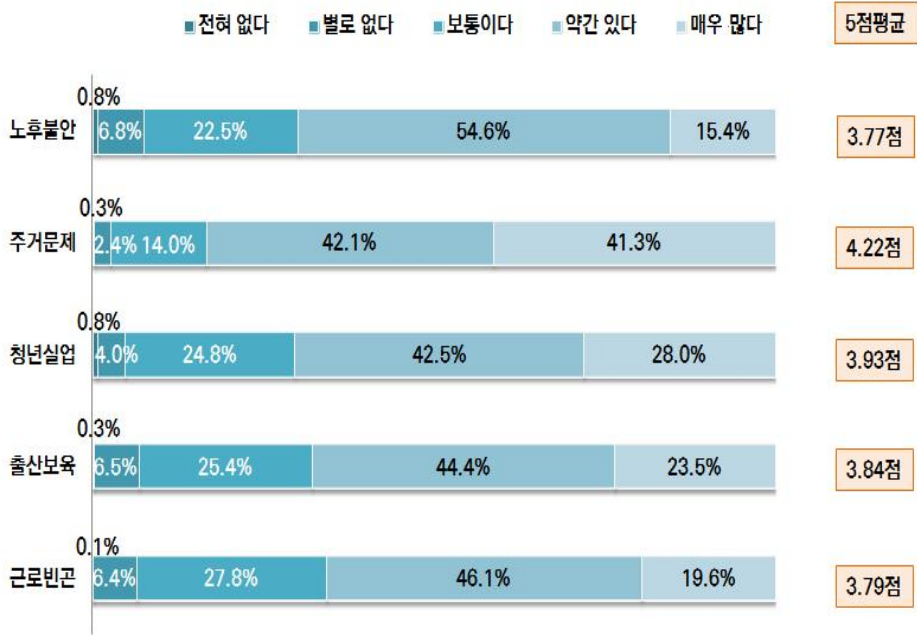
[그림 2-12] 주제별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2) 경제상황 악화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 가장 높아

17가지 불안 요소별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상황 악화'(66.0%)나 '노후'(60.6%)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 범죄'(59.5%),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52.9%)과 '먹거리 위험'(52.4%)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 인식은 연령별로 30대(72.7%), 직업별로 자영업자(73.0%)와 블루칼라층(78.2%)에서, 고용상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8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인식은 연령별로 40대(67.7%), 직업별로 자영업

자(68.0%), 기혼 & 무자녀층(8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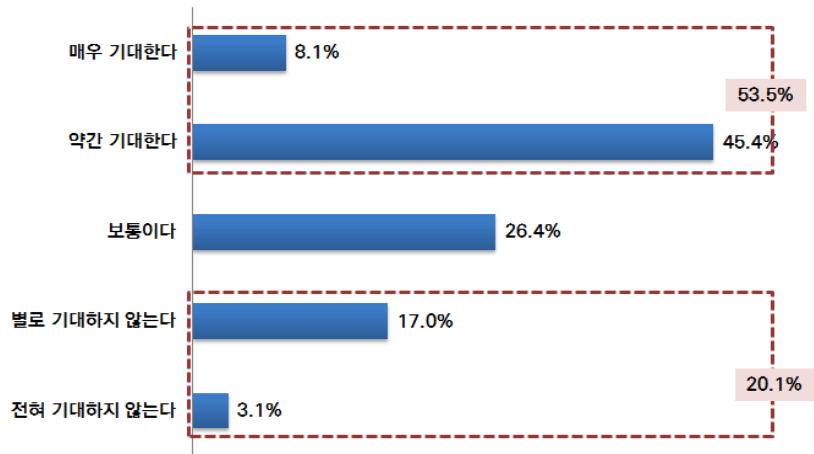


[그림 2-13] 주제별 불안감 인식정도

3) 53.5%가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

향후 본인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3.5%)이 '기대한다'(매우+약간)는 긍정적 응답을 보여 본인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미래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로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 '기대한다'는 낙관적인 응답은 저연령대일수록(20대 64.9% > 30대 64.0% > 40대 57.9% > 50대 50.0% > 60대 이상 34.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61.5%)와 학생층(66.7%)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400만~600만 원의 중상층(5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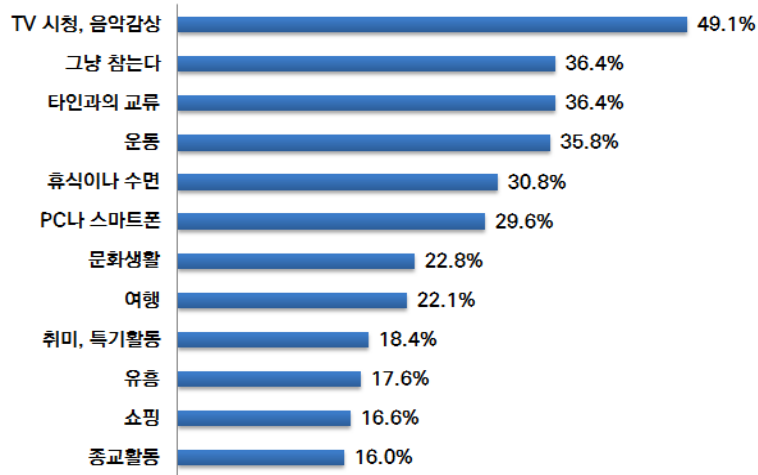


[그림 2-14]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

4) 일상생활에서 불안감 느낄 때 그냥 참는다 36.4%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가끔씩 혹은 빈번하게 찾아오는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으로 36.4%의 응답자는 ‘그냥 참는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는 ‘타인과의 교류’(36.4%), ‘운동’(35.8%), ‘휴식이나 수면’(30.8%), ‘PC나 스마트폰’(30.8%)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의 경우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과 ‘PC나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48.6%로 동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으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55.6%)이 남성(42.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교류’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1.9%), 가구소득별로 월 400만~600만 원의 중상층(4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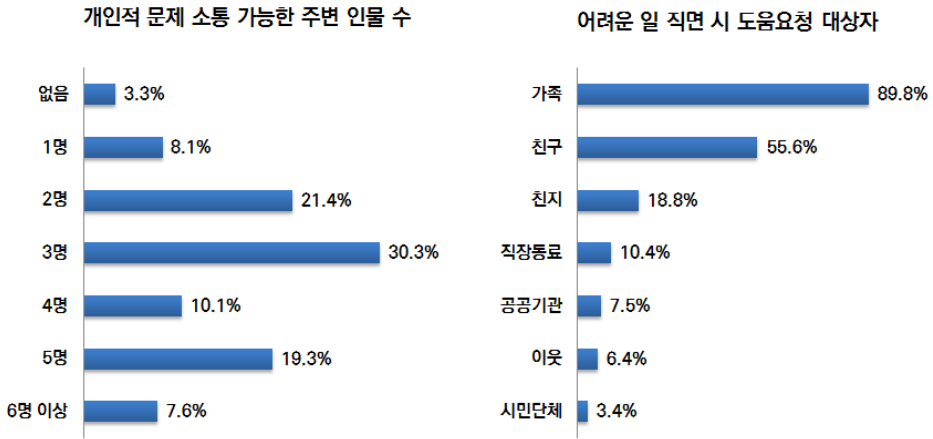


[그림 2-15]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복수응답)

5) 10명 중 9명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실제로 도움 요청할 사람은 가족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을 수 있는 주변 인물 수에 대해서는 ‘없다’는 경우가 3.3%, ‘1명’이라는 응답은 8.1%, ‘2명’이라는 응답은 21.4% 등으로 나타나 약 30% 정도는 허물없이 친한 주변인물이 2명 이하라는 응답을 보였다. ‘3명’이라는 응답이 30.3%로 나타났으며, ‘6명 이상’을 꼽은 경우는 7.6%로 나타나는 등 평균적으로는 3.5명을 꼽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평균 4.0명)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직업 별로도 학생(4.3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2.9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별로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4.3명)에서 의논할 수 있는 주변인물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대상자로는 10명 중 9명의 다수(89.8%)가 ‘가족’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으로 ‘친구’를 꼽은 경우가 55.6%로 나타났다. 그 외 ‘친지’(18.8%)나 ‘직장동료’(10.4%), ‘공공기관’(7.5%)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6] 문제발생 시 소통 가능한 관계

4_불안사회 서울을 대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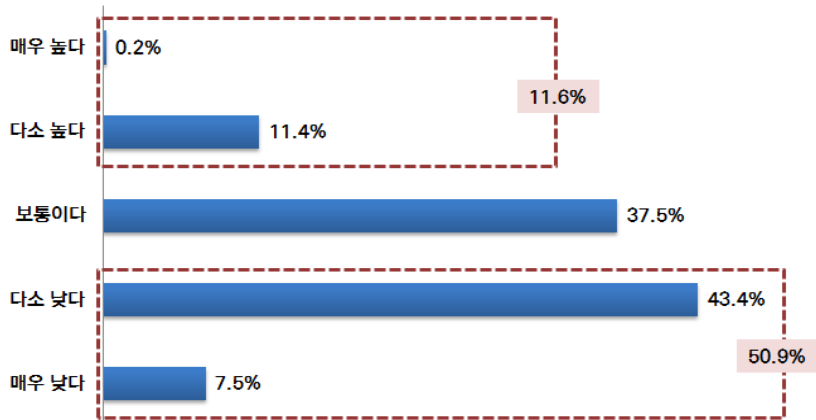
시민들이 불안사회에 대응하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위험이슈 관련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을 조사했다. 또한 불안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반면 본인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험 관련 사회활동에서는 서명운동이나 인터넷 토론 참여, 댓글, 리트윗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 여전히 시민들이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대처방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훨씬 더 큰 사회적 불안감을 낳게 된다.

1) 안전의식 수준은 서울시민은 낮으나, 본인은 보통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보통이다’는 평가가 37.5%로 나타난 가운데 ‘낮다’(매우+다소)는 응답이 50.9%로 ‘높다’(다소+매우)(11.6%)는 응답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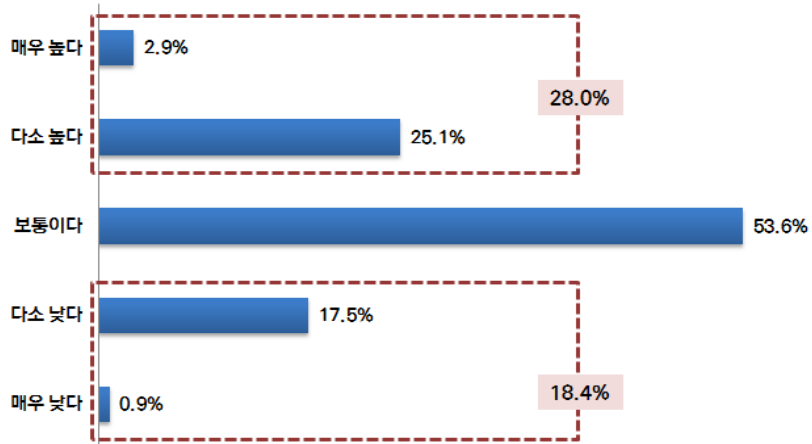


[그림 2-17]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50.9%)에 이르는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연령별로 50대(5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자보다는 미혼자(5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고소득층일수록(월 200만 원 미만: 43.5%, 월 600만 원 이상: 58.7%)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3.6%)가 ‘보통이다’라는 평가를 보인 가운데 ‘높다’(다소+매우)는 응답(28.0%)이 ‘낮다’(매우+다소)는 응답(18.4%)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한 것에 비해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타인 대비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32.5%)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권역별로 강남동 권역 거주자(36.5%), 가구 소득별로는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3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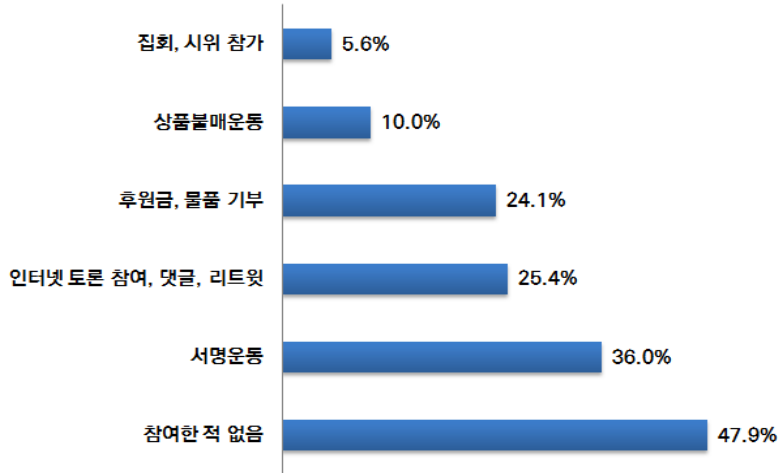
[그림 2-18]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2) 47.9%가 위험 관련 사회활동에 소극적 모습

위험과 관련한 각종 사회 활동별로 참여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47.9%)는 '참여한 적 없다'는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명운동' 참여 경험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인터넷토론, 댓글' 참여(25.4%)나 '후원금, 물품 기부'(24.1%)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매운동'(10.0%)이나 '집회, 시위 참가'(5.6%) 등은 10% 이하의 경험을 보이고 있다.

위험과 관련된 사회활동들에 대해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연령층(5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61.8%)와 블루칼라층(60.4%),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명운동' 참여 경험은 연령별로는 30대(4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토론, 댓글' 참여 경험은 20대(30.4%)와 30대(30.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층(38.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 참여율은 화이트칼라층(33.0%)과 소득별로는 고소득층(3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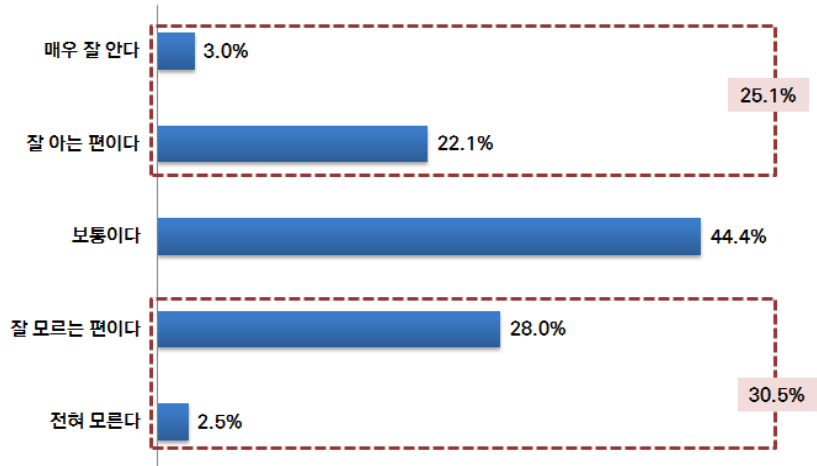


[그림 2-19] 위험 관련 사회활동별 참여경험(복수응답)

3) 경제생활·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서울시 책임 크다고 인지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44.4%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모른다(전혀+대체로)’는 부정적 평가가 30.5%로 ‘안다(대체로+매우)’(25.1%)는 평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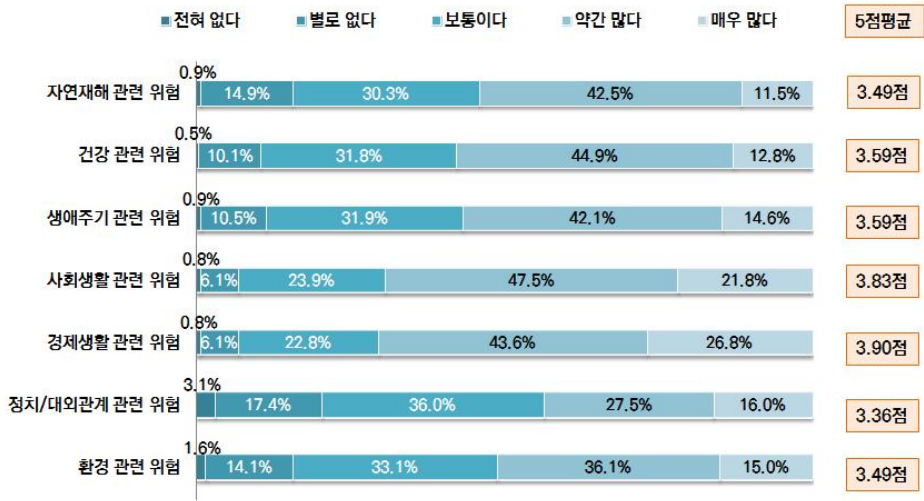
서울시가 사회의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연령별로 40대(3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동 권역 거주자(3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층(30.7%)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0] 위험사회에 대한 서울시의 인지력 평가

7가지 위험요소 각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서울시의 책임이 '많다(약간+매우)'는 응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70.4%)과 '사회생활 관련 위험'(69.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건강 관련 위험'(57.6%)이나 '생애주기 관련 위험'(56.8%)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서울시의 책임이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실업 및 빈곤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서울시의 책임이 많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5.7%), 강남동 권역 거주자(79.4%), 직업별로 블루칼라층(77.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폭력 등의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서울시 책임이 많다는 응답은 직업별로 블루칼라층(75.2%), 기혼자 & 무자녀층(7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불안, 저출산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의 서울시 책임에 대해서는 50대(61.3%)와 블루칼라층(66.3%)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6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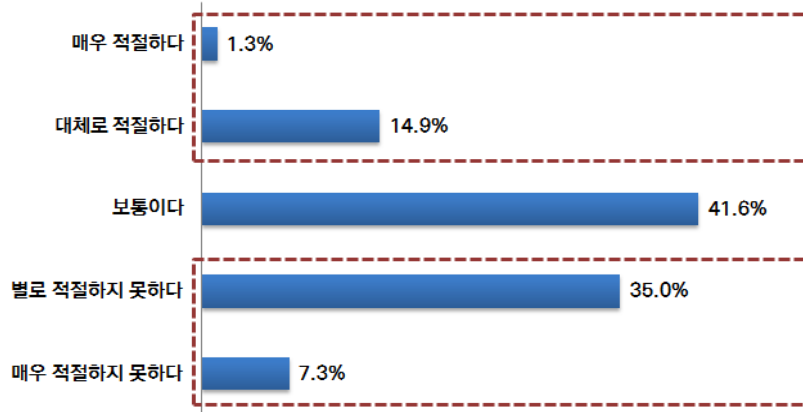


[그림 2-21] 위험요소별 서울시의 책임정도 인식

4) 서울시 안전 관련 대처방식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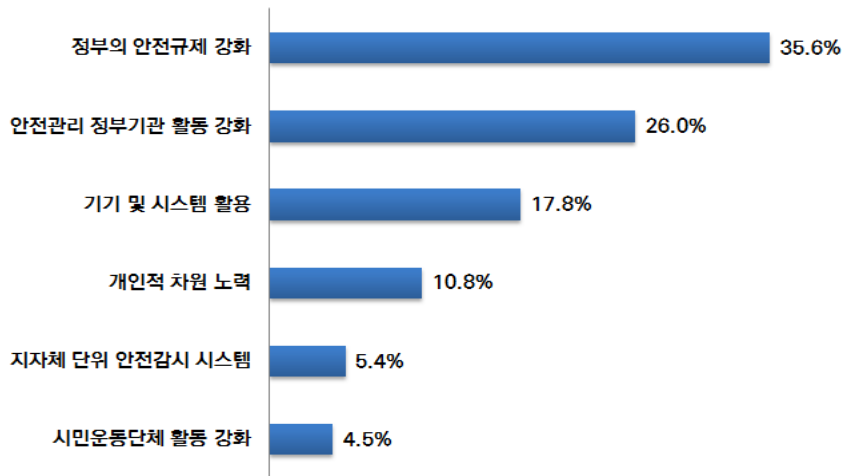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위험, 재난, 안전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41.6%가 ‘보통이다’는 유보적 평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못하다’(매우+별로)는 부정적 평가가 42.3%로 ‘적절하다’(대체로+매우)는 긍정적 평가(16.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도 위험요소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는 연령별로 고연령층(50대 44.0%, 60대 이상 4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강북동 권역 거주자(48.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51.4%)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고, 기혼 & 무자녀층(53.7%), 소득별로는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52.9%)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2] 서울시 안전 관련 대처방식의 적절성

안전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정부의 안전 규제 강화’(35.6%)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안전관리 정부기관의 활동이 강화되어야’(26.0%)와 ‘안전기기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17.8%) 등을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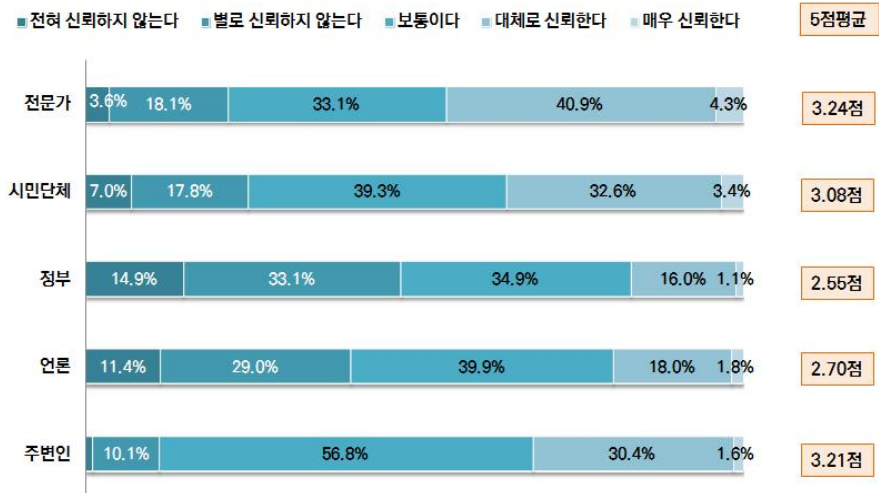
[그림 2-23] 안전문제 관련 필요한 대처 방안

5) 안전문제 발생 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

안전문제 발생 시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정보들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 정보에 대한 신뢰(45.1%)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시민단체’(36.0%)나 ‘주변인’에 대한 신뢰(32.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부’(17.1%)나 ‘언론’(19.8%)에 대해서는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 정보에 대한 신뢰는 연령별로 20대(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단체’ 정보 신뢰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층(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언론’이나 ‘정부’ 정보에 대한 신뢰는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위험통제기구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 위험관리자인 정부를 신뢰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처한다면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4] 안전 관련 정보 소스별 신뢰도

03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 1_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의미를 ‘사회의 질’ 접근방식에서 제시
- 2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재정, 주거환경, 건강복지, 노동, 교육
- 3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개선 중, 그러나...

03 |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1_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의미를 '사회의 질' 접근방식에서 제시

1)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의 질' 연구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은 '사회의 질' 접근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사회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어떠한 위험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인 안전, 사회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의미한다(조권중, 2009).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의 질' 연구⁹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균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6월 설립된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섭, 사회적 역능화(empowerment)라는 사회적 질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졌으며, 아시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의 질 연구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연구는 2007년 시작

유럽의 2003년 '사회의 질' 연구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표 수집과 국가 비교를 통해 사회의 질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표항목들은 대부분 유럽의 기존 지

⁹ 조권중변미리, 2009;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http://www.socialquality.org/> 참조

¹⁰ 2009년 3월 서울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국제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사회에서의 사회의 질 조사 설문지(SOSO)의 개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표들을 토대로 통계적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EU의 지표체계는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과 하위의 세부항목, 그리고 그 아래 95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¹¹은 재정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보건, 노동, 교육 5개 차원에서의 지표들을 통해 사회의 질을 지수화하였다.

[표 3-1] EU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구분	세부항목	지표
재정 자원	소득 만족도	- 가구소득에서 건강·의료·음식·주택 소비량(중·하층 수준 가구에서)
	소득 안전성	- 가구수준에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특정 사건들 - EU 빈곤수준 이상으로 살도록 허용하는 수혜권을 받은 가정에 살고 있는 전체인구의 비율
주거와 환경	주거안전	- 주택소유자 비율 - 'hidden family' 비율(한집에 여러 가족이 사는 경우)
	주거상태	- 가구원당 평수(1인당 거주면적) - 기초시설(물, 위생설비, 전력 등)이 부족한 집에 사는 인구비율
	환경조건	- 거주자 만 명당 범죄건수 - 오염(물, 공기, 소음)정도가 심한 지역의 거주 비율
건강과 보건	건강준비 안전	- 건강보험 가입비율(의무·자발 포함)
	건강서비스	- 거주자 만 명당 의사 수 - 병원까지의 평균거리(분 단위) - 구급차의 평균대응 시간
	보건서비스	- 유·무료에 따른 보건서비스 평균시간
노동	고용안정성	- 계약 기간이나 조건이 바뀌기 전의 통보 기간 - 계약종료 전 통보 기간 - 임시직 비율 - 불법노동자 비율
	근무조건	- 부모상, 병간호,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된 고용자 수 - 고용인 십만 명당 직장에서의 사고발생 건수 - 정규직의 주당 근무시간(실제 근무 주)
교육	교육안정성	-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 비율 - 국가 평균임금과 같은 수업료
	교육의 질	- 졸업장 유무를 떠나 학교 떠난 지 1년 내 일자리 찾은 학생 비율

자료: Keizer et al.(2003); 조권중·변미리(2009) 재인용

¹¹ Laurent J. 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것은 2007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이재열을 중심으로 수행한 '경제의 위기+10년'에 관한 국가 대표조사로 볼 수 있다. 이재열의 연구는 한국 사회를 사회의 질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평가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영역을 기초로 한국 사회의 환경과 상황에 적용한 새로운 지표항목을 추출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이재열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해 경제위주의 현실주의가 대두되고, 미래나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이고 경제 중심으로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위험에서 향후 다가올 위험은 신종재난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 반면, 그에 못 미치는 부족한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신사회위험 등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2] 이재열(2007)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구분	지표 항목
경제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물질주의 의식 정도 - 생활여건 전반의 변화 - 의료인력 현황/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 연도별 사회복지재정규모 -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 요인 - 비정규직의 유형별 고용동향/도시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 - 연도별 황사발생현황 - 정보화의 이면 - 범죄 및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 - 국가 간 산업재해 비교/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복지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 노후준비방법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인식

자료: 이재열(2007)

조권중변미리 연구(2009)에서는 서울 도시사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U의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 분류에 따른 지표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의 사회의 질 지표를 설정하였다. 「서울통계연보」와 「서울서베이」 등 지역에 기반을 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도시공간의 맥락에서 사회적 질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권중변미리 연구(2009)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범죄율이나 물리적 위험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도시안전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시설 등의 물리적 기반은 나아지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나 노후준비율 등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서울시민의 개인적 삶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표 3-3] 조권중변미리(2009)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 구성

영역	구분	지표 항목
사회경제적 안전성	재정 자원	- 도시가계연보 지출항목 - 빈곤율 - 부채율
	주거와 환경	- 자가/전세 비율 - 1인당 거주면적 - 거주자 만 명당 범죄건수 - 도시안전도(자연재해/밤길/범죄피해/붕괴)
	건강과 보건	- 거주자 만 명당 의사 수/의료시설 수 - 음용식수 - 노후준비율
	노동	- 임시직 비율

자료: 조권중변미리(2009)

정지범·류현숙(2009)의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전반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질 지표의 네 개 분야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각각의 지표에 해당하는 설문항목들을 포함시켰으며, 그중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관

련해서는 '집값 부담으로 인한 이동가능성'과 '주거환경의 문제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제적 안전성이 사회적 포용성이나 사회적 응집성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2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재정, 주거환경, 건강복지, 노동, 교육

1)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사회경제적 안정성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가계 상황, 주거환경 및 안전성, 건강복지, 노후안전성, 고용안전성, 교육의 질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회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재열(2009)은 지표를 통해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위험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를 재구축하였다. 기존 유럽적 맥락을 토대로 한국의 맥락, 더 나아가 서울 도시공간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EU의 사회적 질 지표항목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몇몇 항목들은 우리나라와 서울의 맥락에 맞게 가용한 통계 자료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거나 대체하였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표는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정지원 영역에서는 소득증가율, 가계지출, 부채현황,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적 안전성을 분석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분석한다. 둘째, 주거와 환경에서는 시민들의 주택보급 현황을 통해 주거안정을 파악하고, 범죄나 오염도 등 주거환경의 생활안전 관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건강과 복지는 의료시설 수준 등의 보건서비스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재정, 노후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보건복지 안전망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노동은 실업률-고용률, 노동유연성 비율로 고용안정을 진단하고 근로시간을 통해 근로환경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재정지원 현황과 만족도를 통해 그 질을 가늠하고자 한다.



[그림 3-1] 사회경제적 안전성 범주

2)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안정성 하락

서울의 소득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자원 영역의 첫 번째 지표로 소득증가율을 살펴 보았다. 서울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도시 전체 가구의 소득을 통해 서울의 소득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2013년 도시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소득증가율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의 수입증가율과 달리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 소득의 증가세 둔화는 저성장 시대의 돌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소득은 늘어난 소규모 자영업들의 구조적 침체, 가계 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내외 저성장 추세는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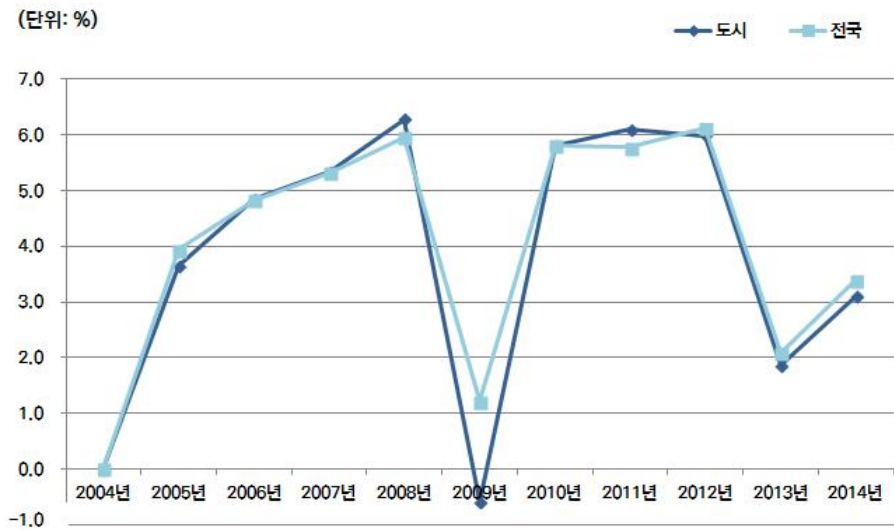
[표 3-4] 소득증가율

(단위: 원, %)

연도	도시		전국	
	월평균 소득	소득증가율	월평균 소득	소득증가율
2004년	2,868,323	0.0	2,788,461	0.0
2005년	2,972,920	3.6	2,898,284	3.9
2006년	3,116,923	4.8	3,038,307	4.8
2007년	3,283,174	5.3	3,200,005	5.3
2008년	3,489,370	6.3	3,390,738	6.0
2009년	3,468,808	-0.6	3,432,021	1.2
2010년	3,670,142	5.8	3,631,713	5.8
2011년	3,893,666	6.1	3,841,586	5.8
2012년	4,126,769	6.0	4,076,876	6.1
2013년	4,203,326	1.9	4,161,833	2.1
2014년	4,334,989	3.1	4,302,352	3.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전체가구, 명목소득 기준

주: 소득증가율 = {(당해 연도 가구소득/전년도 가구소득)-1} ×100



[그림 3-2] 소득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전체가구, 명목소득 기준

도시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2014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평균 가구원 수 3.19명을 기준으로 3,379,423원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계 소비지출은 2,566,896원이다. 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비해 소비는 줄어 평균소비성향이 7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¹² 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이다. 가계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이유는 소비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제자리인 소득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가계가 지갑을 점점 닫고 있다. 개인들이 경기 둔화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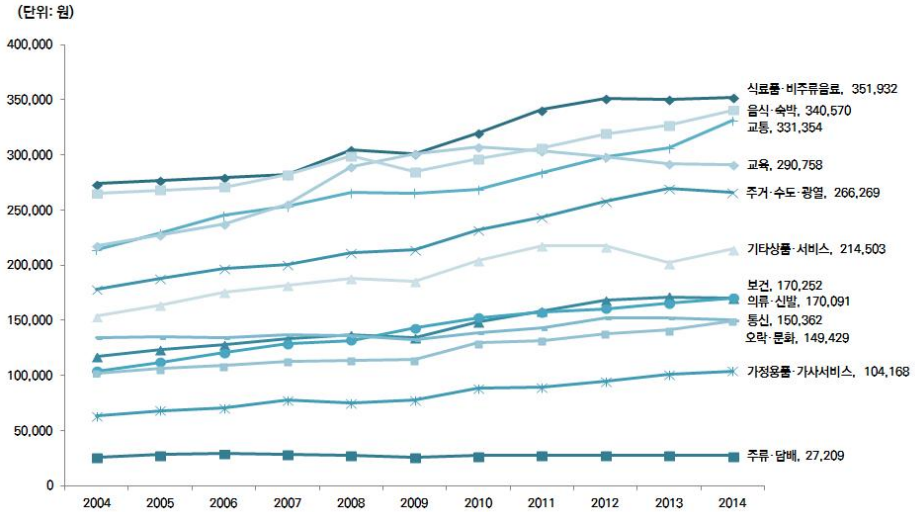
[표 3-5] 도시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연도	가구원 수 (명)	가계지출 (원)	소비지출 (원)	비소비지출 (원)	흑자율 (%)	평균소비성향 (%)
2004	3.43	2,339,830	1,848,708	491,122	22.2	77.8
2005	3.38	2,432,546	1,925,602	506,944	21.9	78.1
2006	3.33	2,540,985	1,997,449	543,536	22.4	77.6
2007	3.30	2,654,578	2,072,589	581,989	23.3	76.7
2008	3.35	2,803,089	2,179,613	623,476	23.9	76.1
2009	3.32	2,815,373	2,179,875	635,498	23.1	76.9
2010	3.29	2,998,887	2,312,540	686,346	22.5	77.5
2011	3.27	3,139,374	2,404,259	735,114	23.9	76.1
2012	3.26	3,259,326	2,485,245	774,081	25.9	74.1
2013	3.23	3,299,351	2,507,009	792,342	26.5	73.5
2014	3.19	3,379,423	2,566,896	812,526	27.1	72.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¹²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지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면 개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얻어지는데,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가구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소비지출이 특히 증가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가계지출에 있어 급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소비를 줄이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 관련 비용 지출의 경우 월세·관리비 등은 늘었지만, 연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비도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도시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항목별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가계 재정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로 부채를 살펴볼 수 있다. 가계 부채의 규모는 2013년 기준 서울이 8,785만 원, 전국이 5,994만 원이다. 서울의 경우,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53.9%, 임대보증금이 46.1%로 나타났으며, 전국은 금융부채가 68.3%, 임대보증금이 31.7%로 나타났다. 서울이 전국 평균부채 규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특성상 주택가가 높아서 임대보증금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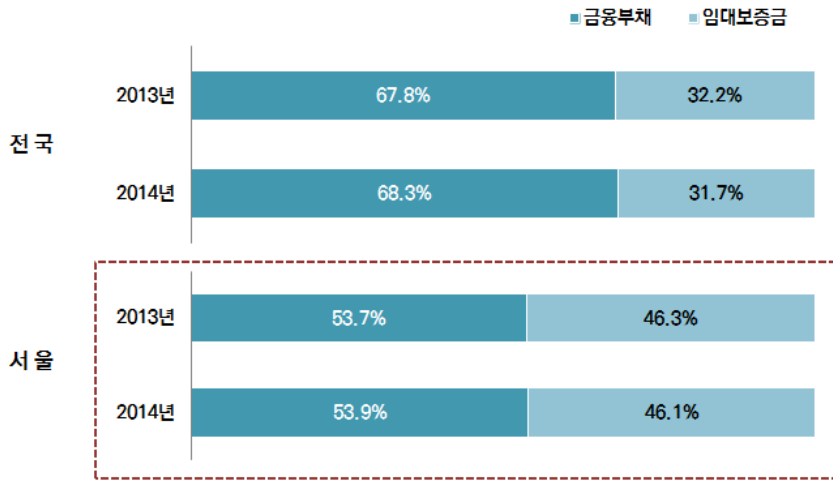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하나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로 시세 차익을 얻고자 대출로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신용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3-6] 부채 현황

(단위: 만 원)

연도	전국			서울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2013	5,857.8	3,973.8	1,884.0	8,596.0	4,617.9	3,978.2
2014	5,994.2	4,094.6	1,899.6	8,785.3	4,733.8	4,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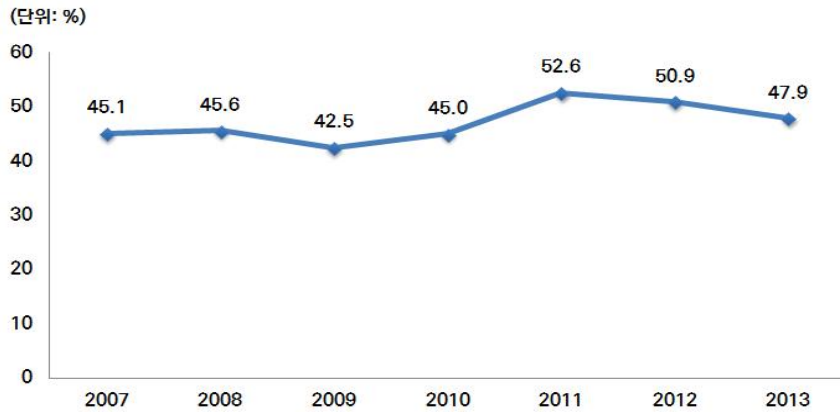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그림 3-4] 부채 현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2013년 가구부채율은 47.9%로 전년 대비 3.0%p 하락했으나, 여전히 절반가량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주된 가구 부채 이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이 56.0%로 가장 높았으나 2009년 대비 1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로 인한 부채가 2009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서울의 가구부채율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3-7] 서울의 가구 부채 이유

(단위: %)

	주택임차 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재테크 투자	기타
2007년	61.9	10.8	3.9	10.1	7.7	5.6
2008년	71.3	7.6	2.3	8.0	8.2	2.6
2009년	71.3	8.7	1.9	6.9	9.0	-
2010년	66.1	10.9	2.5	10.9	8.2	-
2011년	67.3	10.8	3.2	8.5	8.4	1.7
2012년	60.5	14.6	5.7	8.8	9.8	0.7
2013년	56.0	16.8	6.5	10.1	10.1	0.5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서울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하였다. 소득격차가 크다면 그 사회 전체의 부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 서울의 소득분배 현황을 추정

해보았다. 2013년 지니계수¹³ 는 0.302(처분가능소득 기준)로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OECD 34개국 평균 0.315¹⁴ 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¹⁵ 도 시장소득 기준 17.8%, 처분가능소득 기준 14.6%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인 11.3%보다 높다.

[표 3-8] 소득분배지표

소득분배지표별	소득별	2011	2012	2013
지니계수	시장소득*	0.342	0.338	0.336
	처분가능소득**	0.311	0.307	0.302
상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18.3	17.6	17.8
	처분가능소득	15.2	14.6	1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 2인 이상 기준

주: *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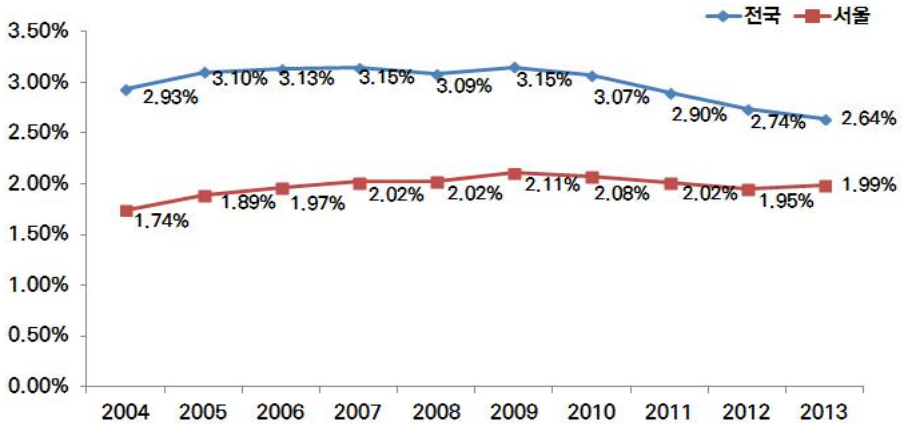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지금까지 소득과 지출, 부채 현황이 전반적인 가계의 경제적 안전성을 살펴본 것이었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적 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을 살펴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의미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2010년 이후 그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제의 기준완화 등에 대한 요구 등이 잇따르고 있다.

13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14 자료: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0년 기준

15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림 3-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표 3-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인구*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수급자 수	1,568,533	1,549,820	1,469,254	1,394,042	1,350,891
	수급자율	3.15%	3.07%	2.90%	2.74%	2.64%
서울	인구*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수급자 수	215,016	214,256	206,808	199,310	201,958
	수급자율	2.11%	2.08%	2.02%	1.95%	1.99%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주: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 주거안정성 저하, 그러나 주거환경은 개선

주거안정을 파악하기 위한 (신)주택보급률¹⁶은 주택의 양적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주택 정책의 대표지표로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백분율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경

¹⁶ 신주택 보급률은 기존의 주택보급률의 보완을 위하여 주택 수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가구 수는 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로 대체한 것이다.

제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 집중의 문제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으나, 정부의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우선 과제로 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2008년 이래로 100%를 넘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3년 97.5%로 2010년 이래로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1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가구 수도 증가되어 주택부족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은 지속되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낮다.

[표 3-10] 신주택보급률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93.7	94.1	93.2	93.6	93.1	97.0	97.1	97.3	97.5
전국	98.3	99.2	99.6	100.7	101.2	101.9	102.3	102.7	103.0

자료: 국토교통부, 「신주택보급률」

주: 주택 수: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한 주택 수

가구 수: 일반가구(보통가구 + 1인 가구 + 5인 이하 비혈연가구)

주택공급량이 증가해도, 「서울서베이」에 의하면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2013년 기준 41.2%에 불과하다. 전세는 32.9%, 월세 24.9%순으로 나타났다. 절반만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자가와 전세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월세비율은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는 현상이다¹⁷.

17 매일일보, 2014년 12월 15일자, "전세대란에 월세시대 오나...정부 대책 마련에 '분주'"

[표 3-11] 자가와 전·월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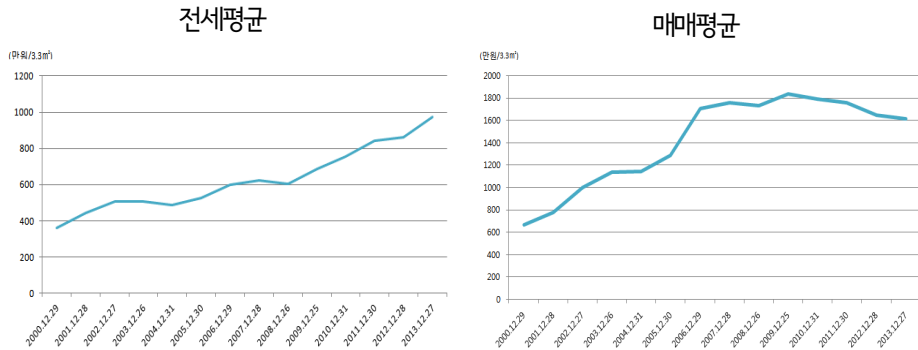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가	44.6	44.6	44.6	44.6	44.6	44.6	41.2	41.2	41.2
전세	33.2	33.3	33.3	33.3	33.3	33.3	32.9	32.9	32.9
월세	20.9	20.7	20.6	20.9	21.1	20.5	24.5	24.8	24.9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주: 월세 = 보증부월세 + 월세

부동산 114의 평당 단가를 살펴보면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2003.10.29. 대책, 2005. 8.31. 대책, 2006.03.30.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전세대란으로 매매가는 약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전세가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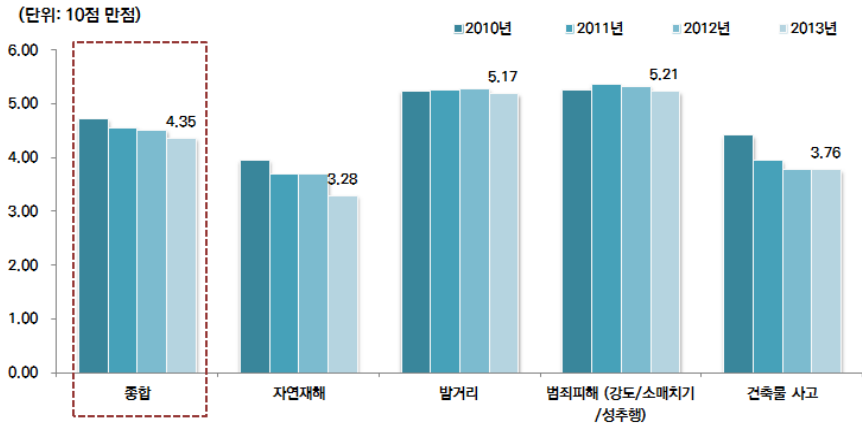
[그림 3-7] 서울의 전세평균가와 매매평균가 추이

자료: 부동산 114; 3.3㎡당가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로 「서울서베이」의 도시위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가구원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건축물 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서울의 도시위험도는 2013년 기준 4.35점으로 2010년 이래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5.21점으로 2011년 이래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보행에서 느끼는 두려움 정도 역시 2013년 기준 5.17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도시위험도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범죄 발생건수는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서울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건의 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2013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32,96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특히 살인 및 강도사건과 같은 흉악사건은 572건으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2] 서울의 5대 범죄 발생 현황

연도	합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07년	108,645	219	1,077	3,388	29,962	73,999
2008년	107,771	221	948	3,421	28,894	74,287
2009년	115,752	250	1,510	3,758	37,167	73,067
2010년	124,447	294	1,029	4,939	49,387	68,798
2011년	132,939	258	956	5,252	54,412	72,061
2012년	137,725	179	570	4,908	61,436	70,632
2013년	132,967	152	420	5,387	61,586	65,422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주변 환경의 위해요인 인식은 주거지역의 생활안전 관련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산출방법은 「서울서베이」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범죄/폭력, 쓰레기 방치, 주차 질서 등의 심각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설문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위험상황별로 심각하다는 비율이 20~40%대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질서(36.8%)'로 나타났다. '주차질서'는 전년 대비(45.4%) 8.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3-13] 주변 환경의 위해요인 인식

(단위: %)

	주차질서	길거리 쓰레기 방치	범죄, 폭력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	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2011	48.8	35.1	30.5	29.4	27.9	27.7	21.2
2012	45.4	34.8	32.1	25.9	26.8	26.9	20.7
2013	36.8	32.3	31.8	-	26.3	23.9	20.1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주: 2013년 조사에서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이 삭제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거환경이 쾌적한지, 환경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와 도로먼지 오염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출방법은 PM-10의 서울시 환경기준 미세먼지 오염 농도로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0년 이래로 서울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013년은 44 $\mu\text{g}/\text{m}^3$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대기가 개선되고 있다.

[표 3-14]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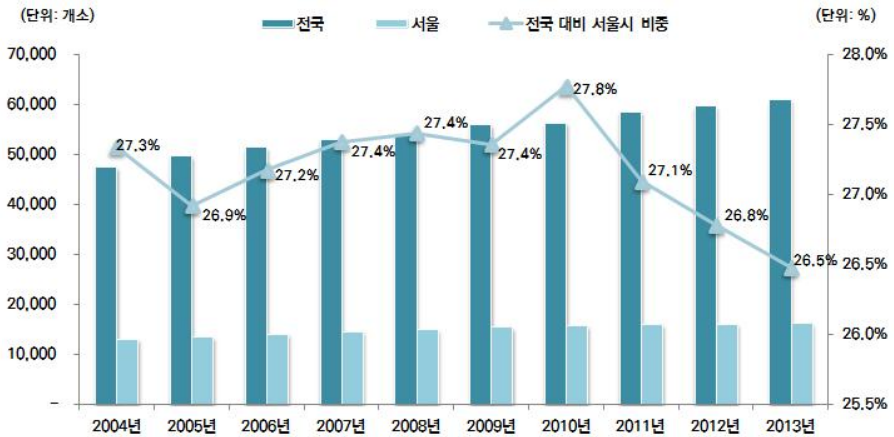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기준	60	60	60	50	50	50	50	50	50	50
오염도	61	58	60	61	55	54	49	47	41	44

자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4)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개선 통한 건강안정성 상승

시민들의 건강보건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현황이다. 전반적으로 의료현황에 있어서 의사 수와 병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복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의료시설이란 병의원, 특수 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부속의원¹⁸, 조산원을 포함하는 시설로 의료분야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59,519개의 의료시설이 있으며, 그중 서울에는 26.8%인 15,941개의 의료시설이 입지해 있다. 전국 대비 서울지역의 의료시설 비중은 2010년 27.8%로 가장 높았으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과거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의료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9] 의료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¹⁸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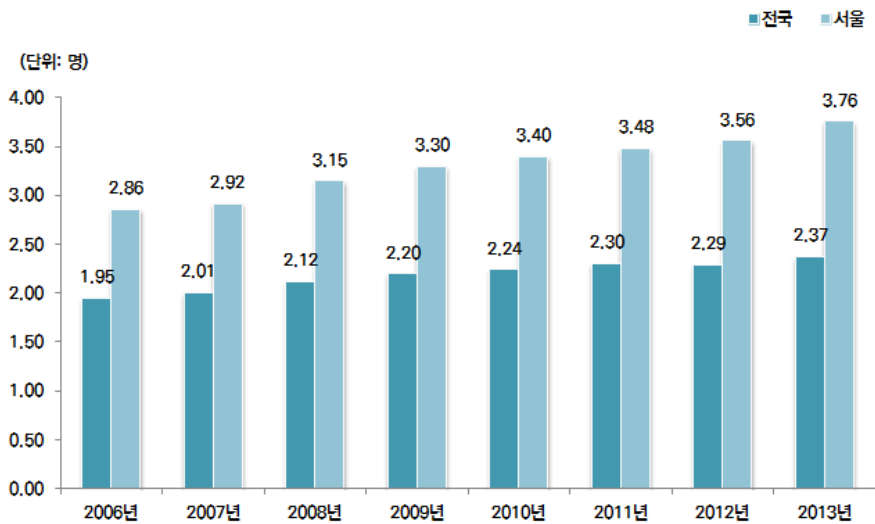
[표 3-15] 의료시설 수

(단위: 개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2,954	13,344	13,937	14,486	14,862	15,258	15,620	15,851	15,941
전국	47,378	49,566	51,286	52,914	54,165	55,769	56,244	58,496	59,51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비율로 2008년까지는 12월 기준, 2009년 이후는 4분기 기준 자료이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이 3.76명, 전국이 2.39명으로 여전히 서울지역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자료: 통계청 조사기획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사회적 안전성을 제공해주는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기준 6조 8,425억 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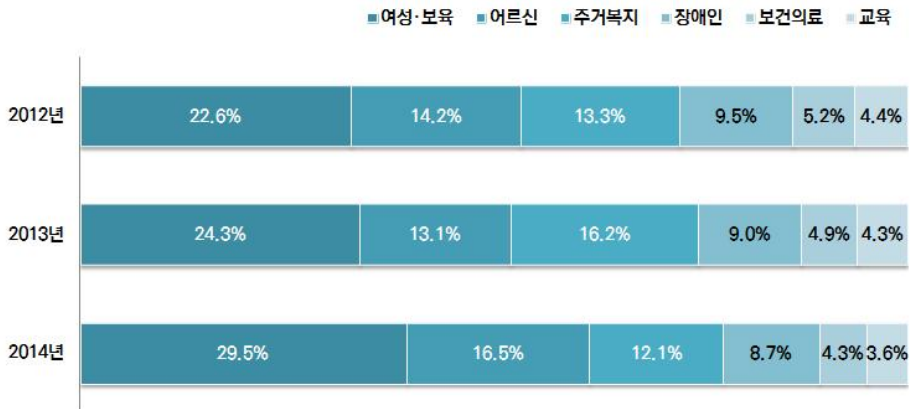
로 전체예산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23.7%에서 8.1%p 상승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보육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6]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단위: 억 원)

	총계	저소득	여성·보육	어르신	주거복지	장애인	보건의료	교육
2012	5조 1,658	1조 5,947	1조 1,700	7,325	6,858	4,894	2,666	2,268
2013	6조 285	1조 6,916	1조 4,661	7,927	9,795	5,407	2,958	2,621
2014	6조 8,425	1조 7,271	2조 182	11,318	8,265	5,942	2,956	2,492

자료: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http://finance.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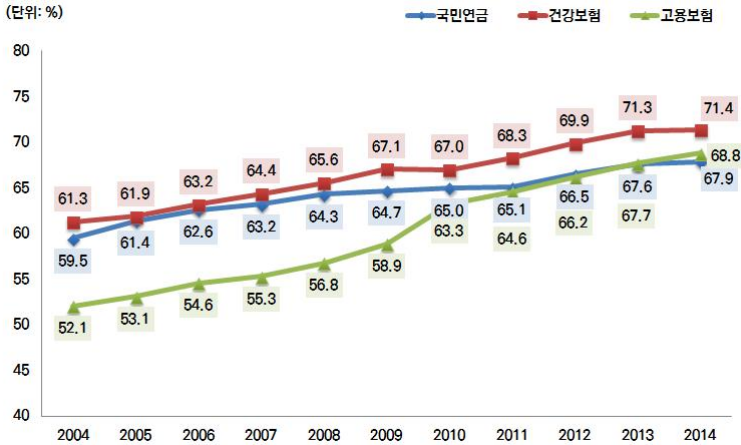


[그림 3-11] 서울의 사회복지예산 분야별 비중

자료: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http://finance.seoul.go.kr>)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근 10년 동안 증가세인 가운데, 근로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7.9%, 건강보험 71.4%, 고용보험 68.8%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8.4%에 불과했다. 또 상용근로자의 경우 건강

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84.1%와 82.0%에 달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44.7%, 43.8%에 그쳤다.



[그림 3-12] 전국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표 3-17]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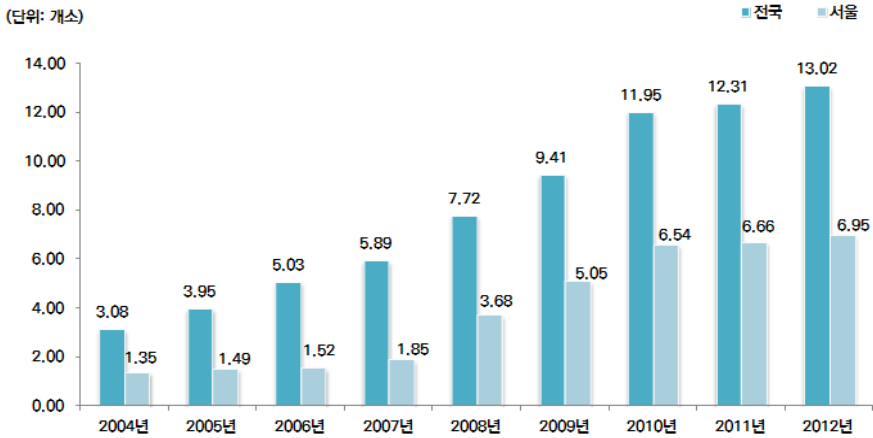
(단위: %)

시점	항목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10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65.0	78.4	38.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7.0	79.5	42.1
	고용보험	63.3	75.7	41.0
201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65.1	79.1	38.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8.3	80.9	44.1
	고용보험	64.6	77.4	42.3
2012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66.5	80.3	39.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9.9	82.2	45.4
	고용보험	66.2	78.9	43.3
2013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67.6	81.2	39.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1.3	83.5	46.2
	고용보험	67.7	80.6	43.6
2014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67.9	82.1	38.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1.4	84.1	44.7
	고용보험	68.8	82.0	4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각 년도 8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수는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급지표로 산출방법은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로 한다. 서울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2012년 6.95개로 2010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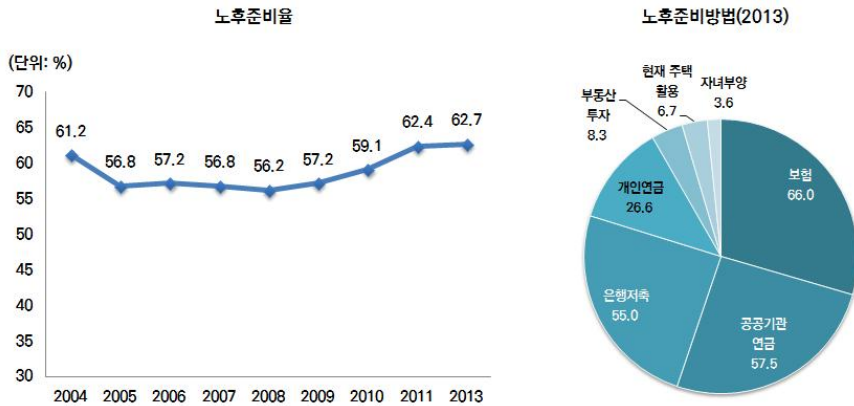


[그림 3-13]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자료: 통계청 조사기획과, 「각시도통계연보」;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노후준비는 시민들의 미래생활의 경제적 안전성을 제시하는 지표이다. 2013년 「서울서베이」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보험이 66.0%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공적연금 57.5%, 은행저축 55.0%, 개인연금 26.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부분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인빈곤문제와 노후생활보장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그림 3-14] 노후준비비율과 노후준비방법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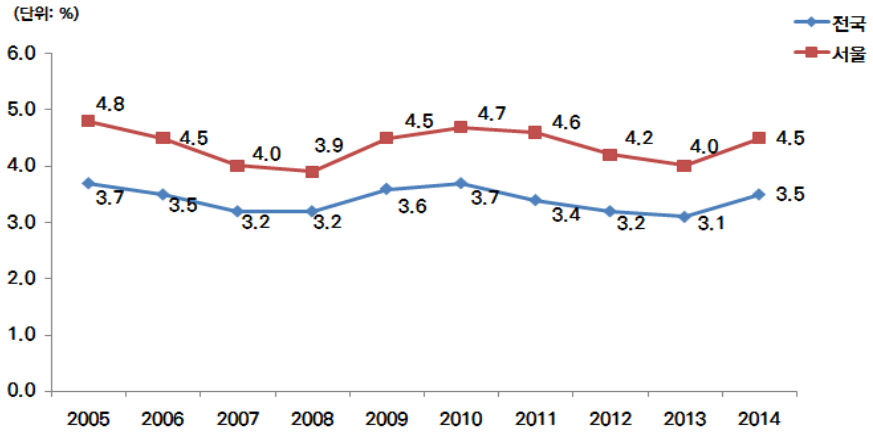
주: 2011년부터 순환조사를 실시, 2012년 조사에서 복지항목 설문인 노후준비비율은 제외됨

5)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중

고용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고용 여건에 따라 변동이 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기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고용률¹⁹ 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014년 서울의 취업자는 51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7만 9천 명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60.4%로 0.6%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4.5%로 0.5%p 상승했다. 고용률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58.1%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이다가 2014년 0.5%p 상승했다. 취업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도 증가한 것이다.

¹⁹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이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네이버백과사전,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그림 3-15]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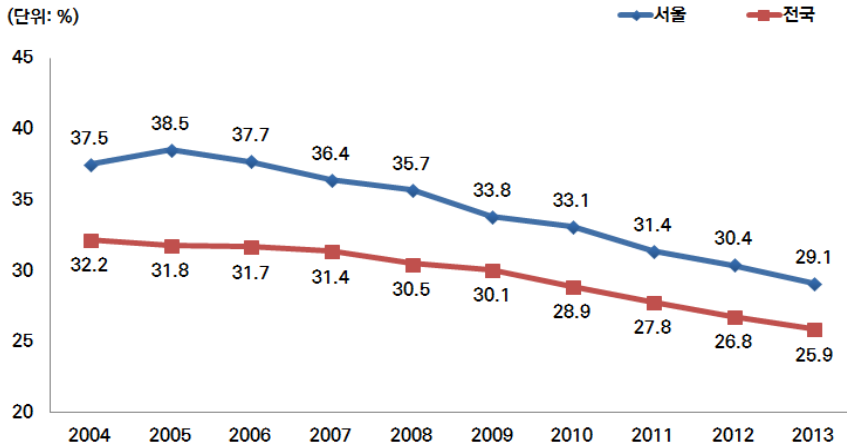
[표 3-18] 실업률과 고용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률	전국	3.7	3.5	3.2	3.2	3.6	3.7	3.4	3.2	3.1	3.5
	서울	4.8	4.5	4.0	3.9	4.5	4.7	4.6	4.2	4.0	4.5
고용률	전국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서울	60.3	60.1	60.3	59.6	58.1	58.9	59.7	59.7	59.8	6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유연성은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서울의 노동유연성 비율은 29.1%, 전국은 25.9%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림 3-16] 노동유연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임시직 종사자 + 일용직 종사자)/전체 취업자\} \times 100$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2013년 기준 전체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이며, 이 중 정규직근로자는 178.0시간으로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근무시간의 감소는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기준으로는 장시간근로 국가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4).

[표 3-19] 근로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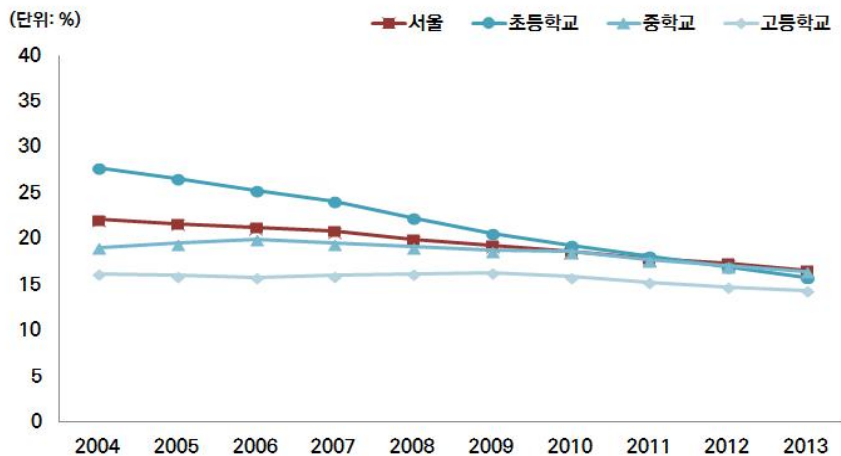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근로자	188.8	184.5	189.0	187.0	180.8	173.7	167.9
정규직근로자	193.2	189.6	195.7	194.4	190.7	184.4	178.0
비정규직근로자	171.4	165.7	167.4	164.2	152.2	140.1	134.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률과 실업률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어감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유연성의 하향세가 말해주듯 고용안정성의 지표들은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괜찮은 일자리’가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²⁰.

6)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안정성 상승

교육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학생 수/교원 수로 산출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서울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7] 서울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²⁰ 한겨레, 2015.02.24., '고용률 70% 달성' 양적 목표에만 집착...괜찮은 일자리 안 늘고 불안정 노동 확산

[표 3-20] 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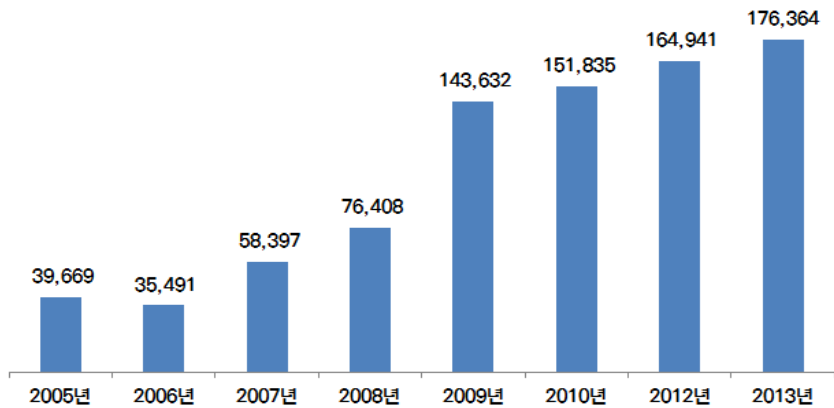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22.1	21.7	21.2	20.8	20.0	19.3	18.6	17.9	17.3	16.6
초등학교	27.7	26.6	25.3	24.1	22.3	20.6	19.3	18.1	16.9	15.8
중학교	19.1	19.5	20.0	19.6	19.2	18.8	18.6	17.7	17.1	16.5
고등학교	16.2	16.0	15.8	16.0	16.2	16.3	15.9	15.3	14.8	14.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두 번째는 교육재정 지원액이다. 교육재정 지원액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산출방법은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이다. 서울의 2013년 교육재정 지원액은 176,364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3,106백만 원 상승했다.

(단위: 원)



[그림 3-18] 서울의 교육재정 지원액

자료: 행정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지원현황」

마지막은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이다. 거주 지역 교육만족도는 중고교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산출방법은 「서울서베이」 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이다. 서울지역의 거주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07년 이래 지속적인

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5.82점으로 나타났다.

[표 3-2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단위: 10점 만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5.01	4.89	4.56	4.86	4.90	5.14	5.28	5.54	5.82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3_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개선 중, 그러나...

5가지 분야의 지표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도시의 안전은 위험한 순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이다. 정부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시민들의 안전성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의 질 수준은 아직 미흡하고,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불안정해졌다.

서울은 도시의 안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흉악범죄건수, 미세먼지오염도 등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 사고, 자연재해, 서울의 밤거리 등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정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의료시설 수나 의료인력 등 건강복지 관련 시설의 안전성은 매년 증가하여 시민들의 건강의 안전성을 높였다. 복지재정이나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개선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성장률 저하와 부채 증가, 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시민 개개인들의 경제생활 체감도는 마이너스다²¹.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여성이

²¹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3.9%가 현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체감물가 상승(23.8%)과 소득 감소(20.1%)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2월 15일 보도자료; 한국경제, 2015년 2월 15일자, "국민 대다수 "현재 경제상황은 '불황'"-전경련 조사")

나 장년·고령취업자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 양적 증가에만 집중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시간제 등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서 '소득 없는 성장과 고용'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가져왔다²². 이러한 현상은 결국 소득양극화와 소비 부진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다.

최근 가계소비 부진은 주택시장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²³.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와 가계부채에 대한 상대적 부담 증가 등이 소비를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불안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안전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도시 여건 면에서 도시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기후변화나 노후 불안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²² 경향신문, 2014년 11월 30일자, "'성장 없는 고용' 시대"

²³ "부동산시장 변화와 소비 간의 관계 분석", BOK 이슈노트 No.2014-11에서 인용

04

불안사회 전망: 신사회위험

- 1_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 2_ 신사회위험: 출산보육, 청년실업, 근로빈곤, 주거불안, 노후불안
- 3_ 신사회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 4_ 불안과 잠재적 사회위기

04 불안사회 전망: 신사회위험

1_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서울시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의식에 의하면 결국 이 연구에서도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위협할 새로운 사회위험이다.

폭넓게 보면 모든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위험이 내포한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정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위험에 대한 정의는 기관이나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정의에 집중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에 집중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적 위험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사회빈곤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할 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미치는 위험'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정지범·류현숙의 연구(2009)나 이재열(2010)은 '그 원인이나 전개과정, 혹은 그 피해의 결과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의 생활이나 사회의 존립기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나 현상으로서, 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각종 사회적 및 자연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화, 탈산업화,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개인의 삶의 양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산업화와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전적 복지국가가 보장하였던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 출현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적 위험은 산업사회에서 노동력 상실, 즉 실업,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과 관련된 위험이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다양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대변되는 경

제사회구조의 재편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구조 및 전후 복지국가의 사회적 토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켰다(Bonoli, 2005; Taylor-Gooby, 2004; Pierson, 2001; 이주하, 201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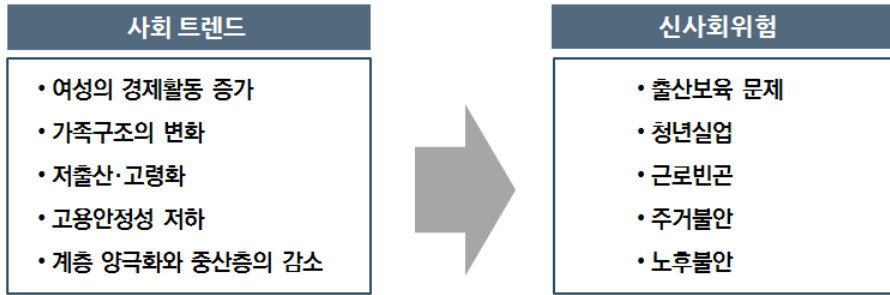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신사회적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등장하는 가족해체, 고용불안, 금융불안, 사생활침해, IT 위험, 노후불안, 정신건강 등과 같은 이른바 ‘신사회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사회적 위험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복합하게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위험관리체계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역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김영란, 2008).

2_신사회위험: 출산보육, 청년실업, 근로빈곤, 주거불안, 노후불안

탈산업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약한 일자리 양산을 가져왔다.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며, 결국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소득양극화 현상과 중산층의 감소로 까지 이어진다.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스 산업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가져왔고,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보육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가족과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었다.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은 특히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저소득가정, 고령자 등에게로 집중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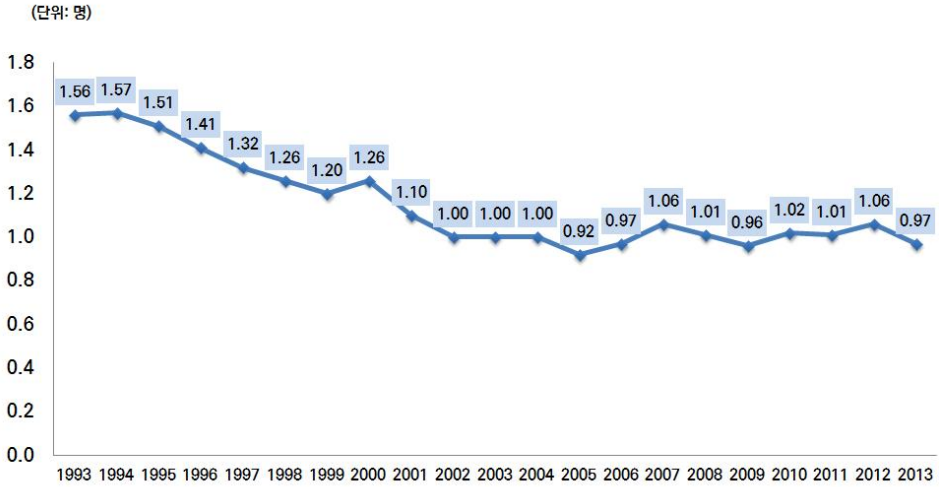
[그림 4-1] 주요 사회트렌드와 신사회위험의 등장

최근 우리 사회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신사회위험 관련 이슈들이 정책 어젠다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 신사회위험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출산보육의 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근로빈곤 현상, 주거 불안, 노후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은 현재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 출산보육의 불안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한 것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결혼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84%),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82.4%),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²⁴ 등을 꼽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가치관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실정이다.

²⁴ 김승권·최영준, 2014,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64세 전국 1만 8,000가구의 기혼 남녀 1만 515명 대상 조사(복수응답)



[그림 4-2] 서울시 합계출산율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014, “2014년 통계로 보는 서울의 여성”

주: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서울의 낮은 출산율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기간 증가와 사회생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만혼(晩婚, late marriage)화 현상²⁵ 이 나타나고 더불어 산모연령이 증가²⁶ 하게 되었다. 이는 실제 출산가능기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높은 가사분담도 주요 요인이다. 서울시의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2014년 11월 서울시 취업여성의 22.8%는 가사를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취업여성은 55.8%,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응답은 1.2%로 여전히 남성의 가사분담은 매우 낮았다²⁷.

²⁵ 2013년도 서울시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도 27.3세 대비 3.1세 상승한 30.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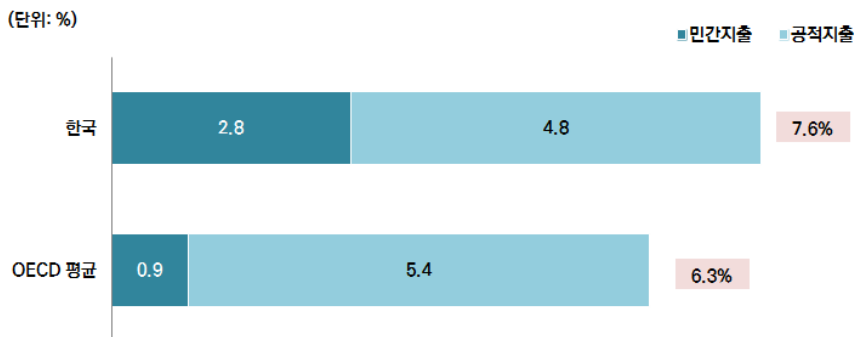
²⁶ 서울시 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은 2000년도 29.5세에서 2013년도 33.4세로 증가

²⁷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보고서」

여성에 대한 높은 가사의존도는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이로 인한 출산기피,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장진희, 2014).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소위 '경력단절 여성'이 대표적 사례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환경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출생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²⁸.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 열풍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나라'답게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OECD 국가 중 교육비 민간 지출 1위(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중 민간지출 비중 37%)이다(OECD, 2013).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나 교육비 중에서 공적 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은 대부분 가계에서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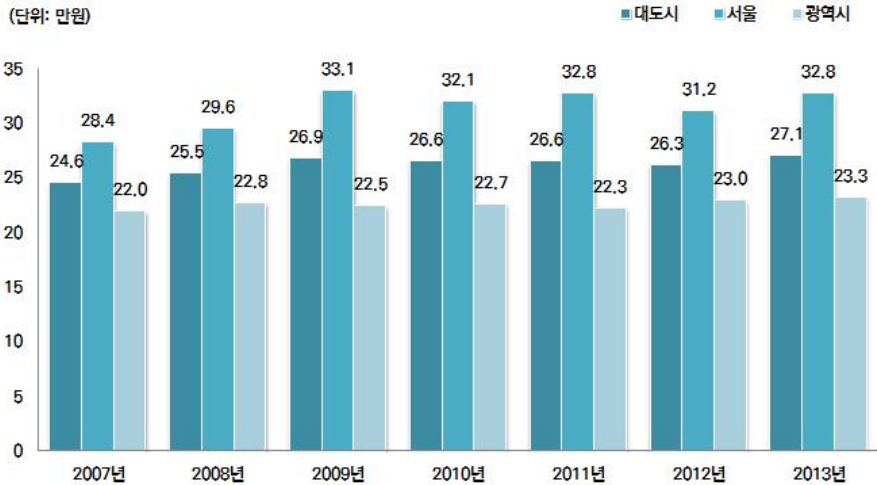


[그림 4-3]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2010)

자료: OECD, 2013, "Education at Glance";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4) 재인용

²⁸ 통계청, 201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천 원으로 대도시,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8만 4천 원, 중학교가 34만 9천 원, 고등학교가 37.1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사교육비 비교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액²⁹ 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사교육 참여율이 33.5%,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6만 8,000원인 반면, 월소득 7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사교육 참여율이 83.8%, 사교육비 지출액이 42만 6,000원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도나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어 교육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가계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²⁹ 통계청, 2013,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자신과 아이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게 되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은 역시 태어나자마자 경쟁사회에 내몰리게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들은 소수일 뿐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조차 거의 없는 사회다(새사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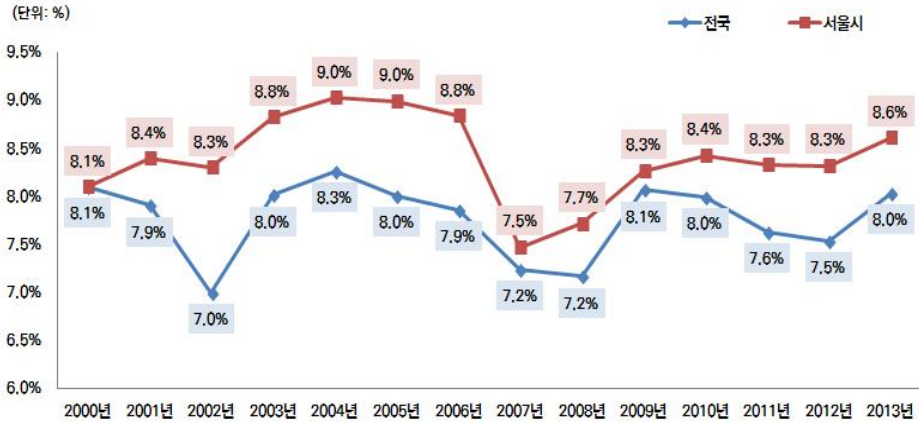
2) 청년실업의 증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장기간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는 한편, 아예 취업을 단념하는 구직 포기자, 즉 비경제활동인구³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새사연, 2014).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니트족 등의 신조어도 등장하게 되었다.

2013년 청년실업률은 서울이 8.6%, 전국이 8.0%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에 비해 서울지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청년 5명 중 1명(19.2%)이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 혹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로 한국은 OECD 34개 전체 회원국 중에서 7번째로 높았다³¹.

³⁰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³¹ <http://m.nongaek.com/articleView.html?idxno=10146&menu=2>



[그림 4-5] 청년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29세 실업자/15~29세 경제활동인구×100

특히 20대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29세 시간제 근로자는 2014년 3월 기준 34만 9,000명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0.6%에 해당한다³². 다른 연령대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경기 변동에 따라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는 것에 비해 20대 시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7만 1,000명(8.0%), 2011년 27만 8,000명(8.34%), 2012년 31만 7,000명(9.4%)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구직자들은 일단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로에 나서며 취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했던 게 수년간의 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바로 ‘알바공화국’ 대한민국³³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소득과 빈곤을 가져온다.

³² 통계청, 2014,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³³ 머니투데이, 2014년 9월 30일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바 공화국’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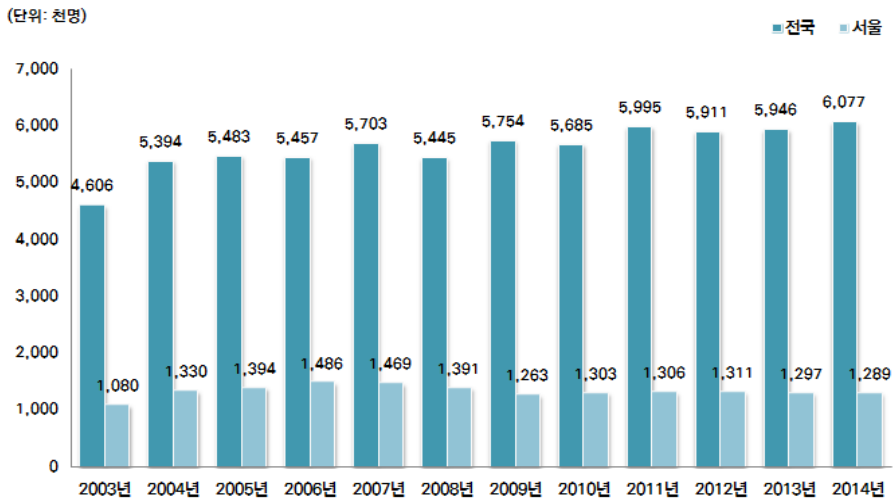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다. 우석훈·박권일은 저서 「88만 원 세대에
서 “취직에 성공한 20대도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며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대의 월평균
급여가 ‘88만 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대의 상위 5%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95%는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평균 월 임금인 119만 원에 성인들에 대한
20대의 평균임금의 비율인 74%를 곱하면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88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위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데는 청년층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당부하고 있다. 치열한 교육열 사회에서 4년제 대
학을 나와 화이트칼라에 취업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들에
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의 길을 제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좋은 일자리의 감소는 청년들을 스펙쌓기 전쟁에 내몰았고, 그 스펙을 위
해서라도 인턴이라는 이름 아래 무급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더구나 비싼 대학등록
금 때문에 빌린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동시에 불안한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공포에 시
달리고 있다.

3) 근로빈곤층의 등장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이윤을
늘려 가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격하게 줄고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동자
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보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면 가계
는 빛이 늘어나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새사연, 2014). 더구나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
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가 커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일반적으로는 일하고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빈곤층을 총칭하는 개념³⁴이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이 근로빈곤층이다.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중심의 빈곤층 문제가 전통적 빈곤문제라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이다. 근로연령대 집단에서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이들이 부양하는 많은 인구의 빈곤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빈곤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이 증폭되는 문제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중산층의 붕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노대명, 2013).



[그림 4-6]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자료: 통계청, 2014.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 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여 명(2.2%)이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7년 570만여 명에서 증가세를 이어오며 올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은 128만 9천 명으로 최근

³⁴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2년 동안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³⁵.

근로빈곤층은 주로 임시·일용직, 공공근로, 영세 자영업 등에 종사하면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고, 4대 보험의 가입 비율도 매우 낮아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근로자 간 소득 및 복지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³⁶.

2014년 8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0만 원으로 2.3% 올랐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145만 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 높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표 4-1]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전년 동월 대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구성		
				한시적 (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13.6~8월 평균	218.1	254.6	142.8	160.2	65.4	141.2
'14.6~8월 평균	223.1	260.4	145.3	161.4	66.2	151.5
증감	5.0	5.8	2.5	1.2	0.8	10.3
증감률	2.3	2.3	1.8	0.7	1.2	7.3

자료: 통계청, 2014.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 82.0%(0.2%p), 시간외수당 58.8%(0.4%p)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39.5%(-0.4%p), 시간외수당 24.3%(-0.4%p)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³⁵ 통계청, 2014.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³⁶ 비즈니스위치, 2014년 10월 29일자, “보호법 7년 후…비정규직 근로자 현실은”; 머니투데이, 2015년 2월 22일자, “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표 4-2]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휴가)
임금근로자	68.3(0.1)	69.3(-0.2)	47.6(0.1)	60.2(0.2)
- 정규직	82.0(0.2)	83.5(-0.1)	58.8(0.4)	73.7(0.7)
- 비정규직	39.5(-0.4)	39.7(-0.5)	24.3(-0.6)	32.0(-1.0)

자료: 통계청, 2014.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이러한 양극화는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학력 인플레이션,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및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³⁷. 워킹푸어의 증가 현상은 결국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은 곧 건강불평등, 주거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4) 주거불안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드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의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한국감정원의 2013년 10월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³⁸을 살펴보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 소득 계층의 연간 가계 소득 평균인 3,793만 원을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4억 4,666만 원)에 대입한 결과 중산층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약 12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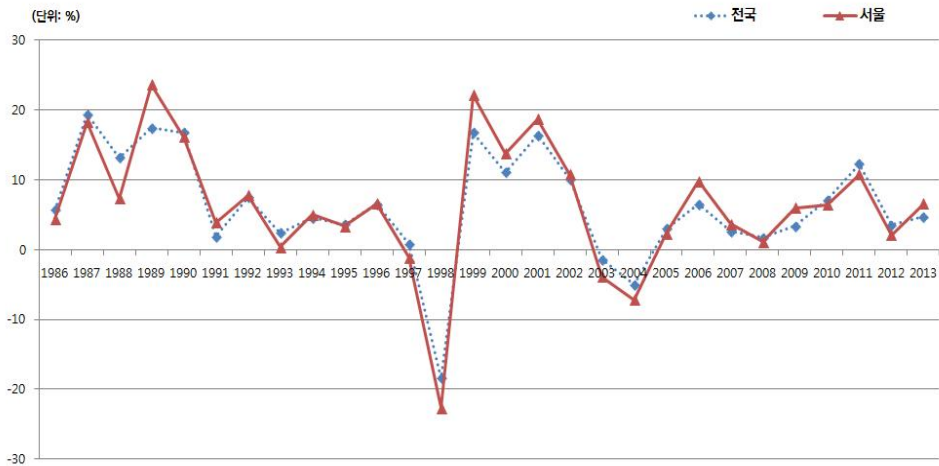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이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률에 못 미치다 보니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월리금 상환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³⁷ 고용노동부, 2012,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

³⁸ 주택가격을 어떤 지출도 차감하지 않은 1년치 전체 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구를 지칭한다. 소득은 낮고 집값은 높은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더구나 전세금이 폭등하고 월세가 늘면서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가 많아지면서 '렌트 푸어'도 생겨났다, 즉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전월세 임대료 부담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구의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새사연, 201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998~1999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의 주택전세 가격에 비해 상승 및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2008~2011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8,800만 원이다.



[그림 4-7] 주택전세가격 동향

자료: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 월별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2013년 한 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정리하면, 주택 매매 가격이 정체하거나 조금 하락했고 전세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월세비용은 정체하거나 조금 증가했다. 전세금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은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때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으로 이자 차액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은 주택 구매 가격이 일반적인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전세는 귀해지고, 귀할수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조차 얻기가 힘들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은 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대출로도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월세를 구하거나,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임대료가 낮은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거나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다. 2014년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서울시민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평균 13.6%에서 32.4%로 2배 이상 오른다³⁹.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불안해지고, 대출이자나 임대료로 인한 부채는 늘고, 늘어난 부채만큼 소비는 감소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5) 노후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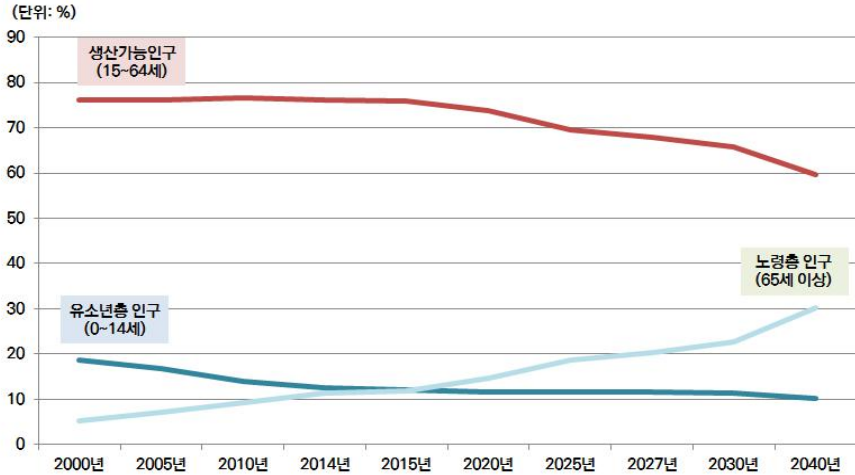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2000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자 복지 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2014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 고령가구도 7.1%나 된다⁴⁰.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05년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7년에

³⁹ 아시아경제, 2014년 12월 1일자, "전세에서 월세로... 경기회복의 블랙홀 '주거비용'"; 아시아경제, 2014년 12월 1일자, "전세금 못 쫓아가는 월급... 세입자, 길을 잃었다"; 아시아경제, 2014년 12월 1일자, "'내집푸어'와 '월세푸어' 사이... 집 사야할까?"

⁴⁰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 통계」

20%(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앞으로 13년쯤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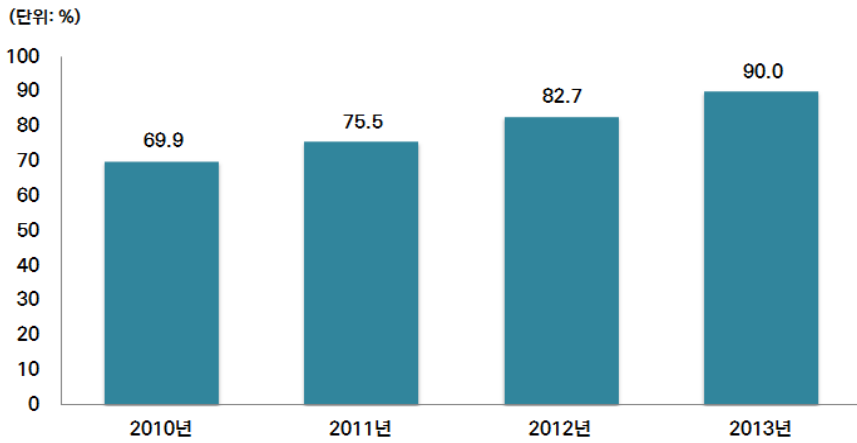
[그림 4-8]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서울시의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2013년 기준) 10,388,05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61,708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등록통계 기준).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90.0(2013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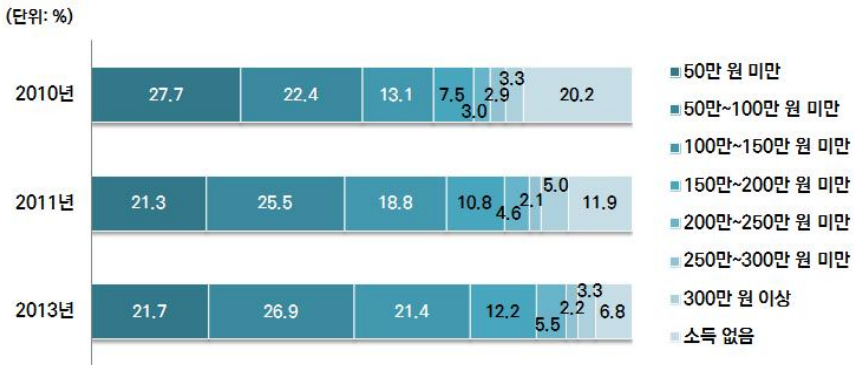
2013년 기준 전국의 55세 이상 고용률은 47.2%이고, 그중 65세 이상 고용률은 30.9%이다. 2013년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4.7% 수준에 불과하다⁴¹.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은 93.2%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50만 원~100만 원 미만'이 26.9%로 나타났고, '50만 원 미만'(21.7%), '100만 원~150만 원 미만'(21.4%), '150만 원~200만 원 미만'(12.2%) 등의 순이었다.

⁴¹ 통계청, 2013, 가계동향조사



[그림 4-9] 서울의 노령화 지수

자료: 통계청 정보공개정책과,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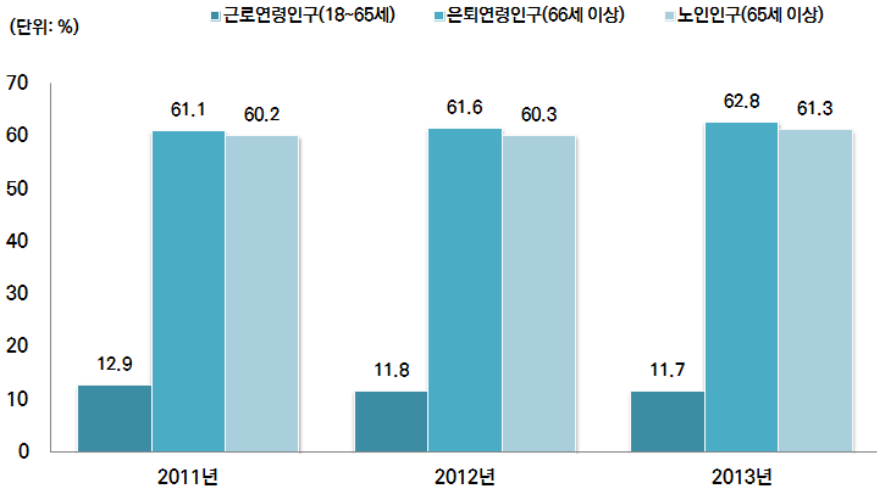
[그림 4-10] 노인의 월평균 소득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2013년 기준)은 근로연령인구가 11.7%, 은퇴연령인구가 62.8%, 노인인구가 61.3%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경우 2011년 이후로 상대적 빈곤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거의 절반은 상대 소득 빈곤 상태에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의 4배에 가깝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향후 50년간 350% 이상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며, 2062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⁴².



[그림 4-11]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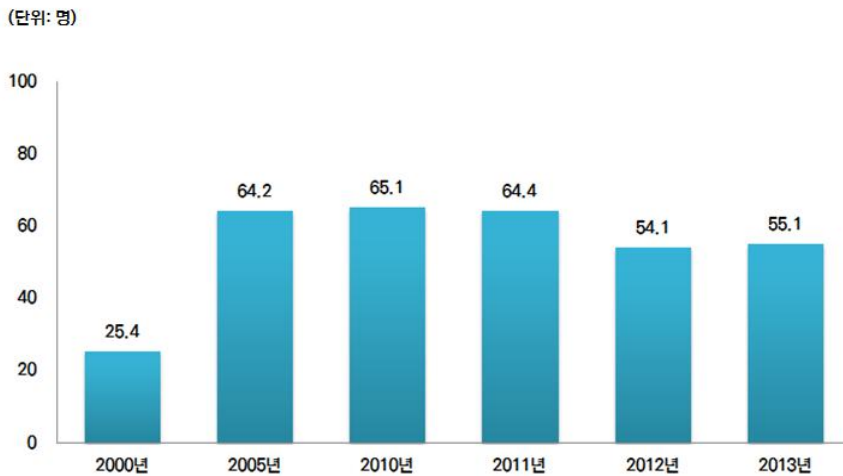
2013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가구주는 44.9%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9.9%이며, 2013년 공적연금⁴³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37.6%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장년층의 노후 준비 체감도가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노후 준비 상황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⁴²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⁴³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⁴⁴ 홍주희, 2014,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고령친화 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거주 베이비부머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생활 취약문제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노인 자살(고의적 자해)은 55.1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84.3명으로 여성(32.4명)에 비해 약 2.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37.1명), 70~74세(53.7명), 75~79세(66.6명), 80세 이상(85.5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또한 노인의 29.2%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그림 4-12] 인구 십만 명당 노인 자살률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 보고서에 따르면⁴⁷ 대한민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

(1955~1963년생) 및 만 60세 이상 2,025명을 조사

⁴⁵ 동아닷컴, 2015년 1월 21일자, “노인 빈곤율 50% 육박...자살율은 OECD 1위”

⁴⁶ 보건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

⁴⁷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 2014,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

의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 보장 순위(80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깊이와 심각성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적인 보장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와 관련해서는 인식변화도 한뼘한다. 나이 든 부모의 부양을 ‘가족’이 책임진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⁴⁸.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노부모를 가족이 모셔야 한다’고 대답한 젊은이들의 비율은 89.9%였지만 갈수록 줄어 2012년에는 33.2%로 푹 떨어졌다. 부모 있는 자식 중 3분의 1만 ‘부모 부양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도 2002년 9.6%에서 2012년에는 13.9%로 증가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낮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도 60대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⁵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3_신사회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1) 신사회위험으로 주거문제 가장 중요하게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신사회위험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서울 도시의 새로운 위험으로서 노후불안 등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 요소별로 문제해결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각각 질문한 결과 다섯 가지 대부분 ‘중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다. 시민들은 제시한 위험 요소들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주거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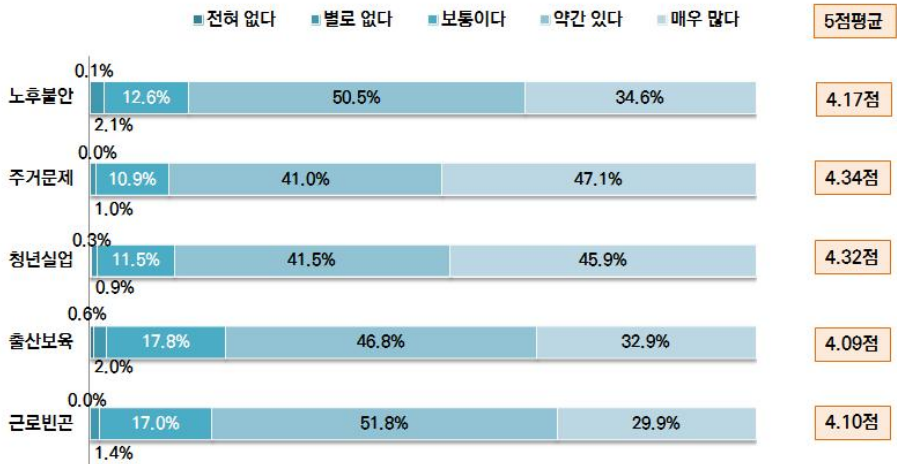
48 동아일보, 2015년 1월 14일자, “노부모, 가족이 부양” 10명 중 3명뿐

49 김태완, 2014,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연구원

50 이데일리, 2014년 10월 1일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노인복지 96국 중 50위 그쳐”; 동아일보, 2015년 1월 14일자, “노부모, 가족이 부양” 10명중 3명뿐”; 경기일보, 2015년 1월 21일자, “노인 빈곤율 50% 육박...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88.1%)와 ‘청년실업’(87.4%), ‘노후불안’(85.1%) 해결의 중요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집값 상승, 전세 대란 등의 ‘주거문제’ 해결 중요도는 전세입주자(9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노인 우울증 등 ‘노후불안’ 중요도는 60대 이상(91.6%)에서, ‘청년실업’ 중요도는 20대(92.6%), ‘출산 보육 문제’는 기혼 & 무자녀층(90.7%) 등 이해 당사자 계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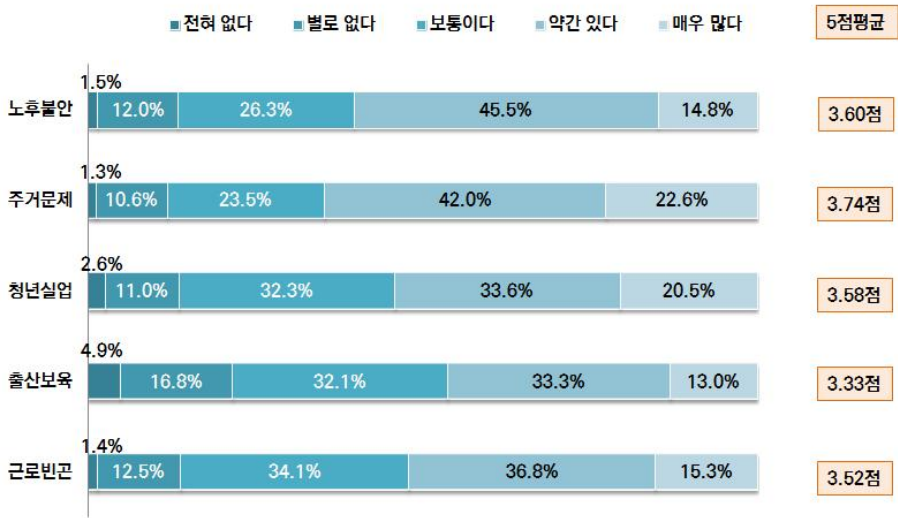


[그림 4-13] 신사회위험 요소별 중요성 인식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 요소별로 본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 ‘주거문제’ 피해 가능성(6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노후불안’ 피해 가능성(60.3%)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문제’ 피해 가능성은 30대(76.2%)와 20대(72.3%), 전세 거주자(79.4%)와 월세/반전세 거주자(83.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불안’ 피해 가능성은 200만 원 미만

의 저소득층(7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실업' 피해는 20대(78.4%)와 미혼층(74.3%)에서, '출산보육 문제'는 20대(58.8%)와 30대(58.7%), 미혼층(53.5%)에서, '근로빈곤' 피해 가능성 역시 20대(65.5%), 미혼층(6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젊은층과 미혼층에서의 신사회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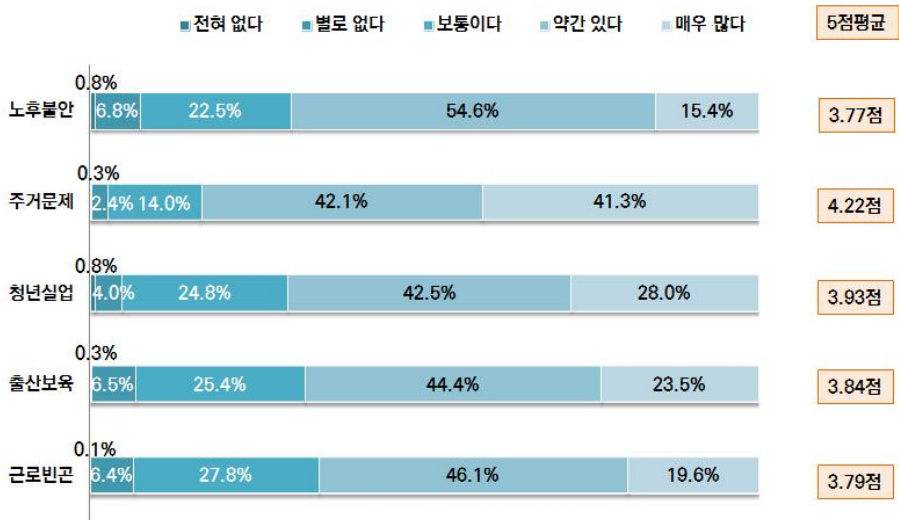
[그림 4-14] 신사회위험 요소별 개인적 피해 가능성 인식

2) 서울시의 최우선 대책 마련 필요한 주거문제와 청년실업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요소 각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 항목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약간+매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개 항목 중 '주거문제'(83.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청년실업'(70.5%)이나 '노후불안'(70.0%)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보육'(67.9%)이나 '근로빈곤'(65.8%)에 대해서도 서울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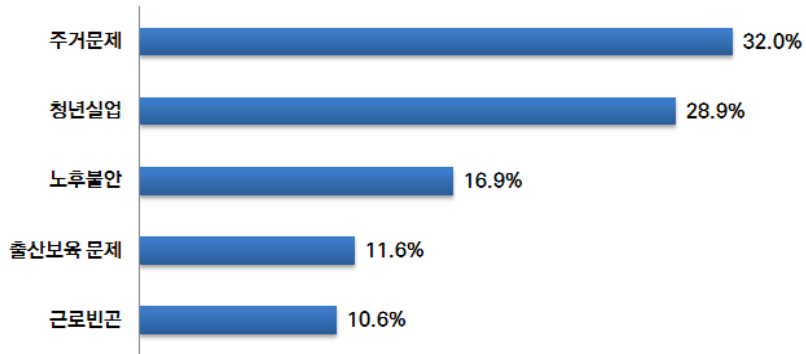
‘청년실업’ 문제는 성별로 남성보다는 여성(78.4%), 연령별로 20대(76.4%), 30대(75.0%)에서 책임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불안’ 문제는 연령별로 60대 이상(76.5%), ‘출산보육’ 문제는 30대(72.7%)와 기혼 & 무자녀층(75.6%), ‘근로빈곤’ 문제는 성별로 여성(71.6%), 연령별로 20대(73.0%), 비정규직 근로자(73.0%) 등에서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5] 신사회위험 요소별 서울시 책임정도 인식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 요소 중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는 ‘주거문제’(32.0%)와 ‘청년실업’(28.9%)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노후불안’ 문제는 16.9%, ‘출산보육’ 문제는 11.6%, ‘근로빈곤’은 10.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위험요소 중 주거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문제’를 꼽은 경우는 30대(45.9%), 기혼 & 무자녀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청년실업’은 20대(49.3%), 미혼층(38.9%)에서 특히 더 많았다. ‘노후불안’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6.1% < 40대 13.4% < 60대 이상 33.7%)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6] 최우선 대책이 필요한 신사회위험

4_불안과 잠재적 사회위기

신사회위험은 사회적 트렌드와 개인의 생애사적 위험의 복합적 산물의 결과이다. 글로벌 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동향은 고용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의 구성원이 생애에서 겪는 출산과 보육, 노동과 근로, 주거, 그리고 노후의 전망이 함께 작용하며 사회적 동향과 개인 삶의 불안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개인의 사적 영역인 가족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지지하는 안전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신사회위험의 특징은 개인의 생애와 사회의 변동이 중첩되면서 불안이 개인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한다. 그래서 불안 해소의 문제는 개인이 순응하거나 아니면 보다 공적인 주체에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즉 도시정부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정책은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안전망의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방치되기도 한다.

불안은 현재 갈등을 현재화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사회적 위기의 씨앗을 담고 있다. 불안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기존의 공적인 대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 분노한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때 기존의 사회적 위험은 정치화의 과정을 초래한다.

사회적 위기는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될 때 나타난다. 계층 간 또는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하고 부정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때, 자원이 집합행동으로 동원되고 사회적 운동으로 표출될 때,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사회체계에 수용되기 어려울 때 사회적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의 신사회적 위험은 잠재적 위기를 배태하고 있다. 불안의 개인화는 집합행동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특정한 이슈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가 해체되면서 문제와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제압하게 된다. 불안은 사회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다시 불안을 증폭하면서 개인을 불안하게 한다. 개인적 불안이 사회적 불안으로 인식되지만 다시 개인적 불안으로 머무는 불안의 만연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불안한 사회에서 위기는 항상 잠재적일 수 있다. 미래의 해결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은 사회에서 불안은 항상 잠재적 위기로 머무를 수 있다. 울리히 벡이 지적한 ‘해방적 파국’을 기다리는, 잠재적 위기는 개인에게서 불안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다.

05

불안사회에서의 과제

- 1_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사회
- 2_신뢰 부족의 불신구조
- 3_불안사회 해소의 과제: 신뢰와 공동체

05 불안사회에서의 과제

1_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사회

1) 불안사회 위기의 징후

불안사회의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외환위기를 빨리 회복했다고 하나 그 속도만큼 사회의 안정감도 덜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회복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 대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김태형(2014)은 IMF경제위기가 준 상처는 직장에서의 가장들의 내몰림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사회적 연대 강화 대신에 무한경쟁을 더욱 가속시켜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것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계속 악화시켰고, 공포를 만성화시켰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렵고, 외롭고,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득 감소와 삶의 안정성 저하에 ‘불안감만 증폭된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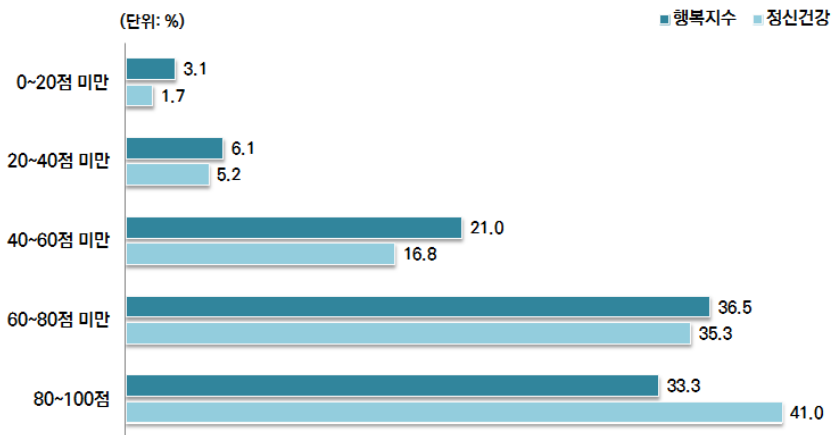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인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킨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생선 차원에서 개인의 불안을 불러온다. 게다가 소득격차와 양극화로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이 더해지면 불안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 바뀌기 쉽다. ‘갑의 횡포’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뜨겁게 달군 일련의 사건들⁵¹은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 사례로 볼

⁵¹ 한겨레, 2013년 5월 5일자, “뽕 때리고 험박하고 ‘갑의 횡포’...“못 참겠다””; 한국경제, 2013년 5월 6일자, “남양유업 ‘갑의 횡포’에 네티즌들 분노... “불매운동 하겠다””; MBN, 2014년 12월 8일자,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수석 스텝어디스에 “너 내려” 갑의 횡포 논란”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세대 갈등 및 지역 갈등은 심화되고, 점차 개인화, 파편화되어가는 인간관계로 인해 사회의 정서적 유대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안감이 외로움, 우울함, 고독함,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환되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까지 더해져서 결국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낳고 있다.

마크로밀엠브레인(2013)에서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행복지수는 평균 64.7점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². 가장 행복한 수준인 80~100점을 꼽은 응답자가 33.3%에 머문 반면, 80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삶이 행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건강 점수는 평균 68.5점으로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도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행복지수 및 정신건강 평가

자료: 마크로밀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2013)

⁵²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 201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발표일 2013.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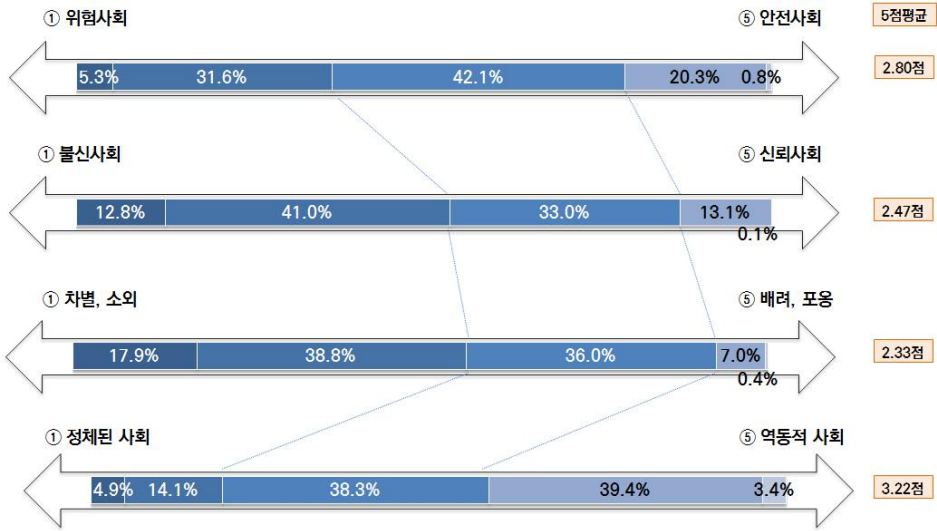
이런 총체적인 사회문제들은 폭력이나 문지 마 범죄 등 공격적 행동들로 표출되기도 한다.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걸리기만 해 봐라!” 버르는 온라인게시판에선 마녀사냥과 악성댓글이 난무한다⁵³.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화와 분노 표출로 인해 사람들의 체감공포는 증가하고, 사회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며 타인을 향한 불신을 낳게 된다.

2) 서울은 위험, 불신, 차별과 소외 그리고 역동적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을 네 가지 특성별로 각각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위험 vs. 안전> 특성에 대해서는 다소 위험한 쪽(평균 2.80점), <불신 vs. 신뢰> 특성은 불신사회 쪽에 더 가까운 것(평균 2.47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차별, 소외 vs. 배려, 포용> 특성에 대해서도 차별과 소외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평균 2.33점)하고 있으며 <정체 vs. 역동> 차원에서는 역동 쪽에 더 가까운(평균 3.22점)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험 vs. 안전> 특성에 대해서는 저연령층일수록 위험사회 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신 vs. 신뢰> 특성은 미혼층(2.37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신사회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별, 소외 vs. 배려, 포용> 특성이나 <정체 vs. 역동> 특성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⁵³ 김난도 외(2013)의 「트렌드코리아 2013」에서 '날 선 사람들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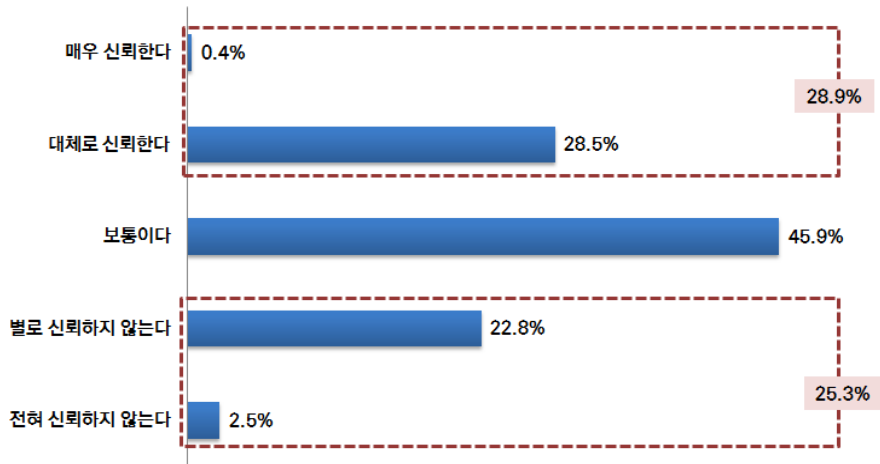
[그림 5-2] 서울 도시 특성 인식

경제발전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나, 삶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개인의 내면은 피폐해지는 불안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불평등 심화로 주요 사회제도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급속한 중산층의 감소 및 계층 양극화는 실제 경제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도 사라지게 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감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 변할 수 있다. 닥쳐올 미래의 고령화나 생태적 변화, 새로운 위험요소들의 등장과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의 노후와 후속세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의 불안, 불신, 불만, 분노는 우리 사회의 위기의 징후다.

2_신뢰 부족의 불신구조

어떤 불확실하지만 두려운 위험신호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위험 관리자인 정부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위험은 사회적으로 확대되거나 정치화되지 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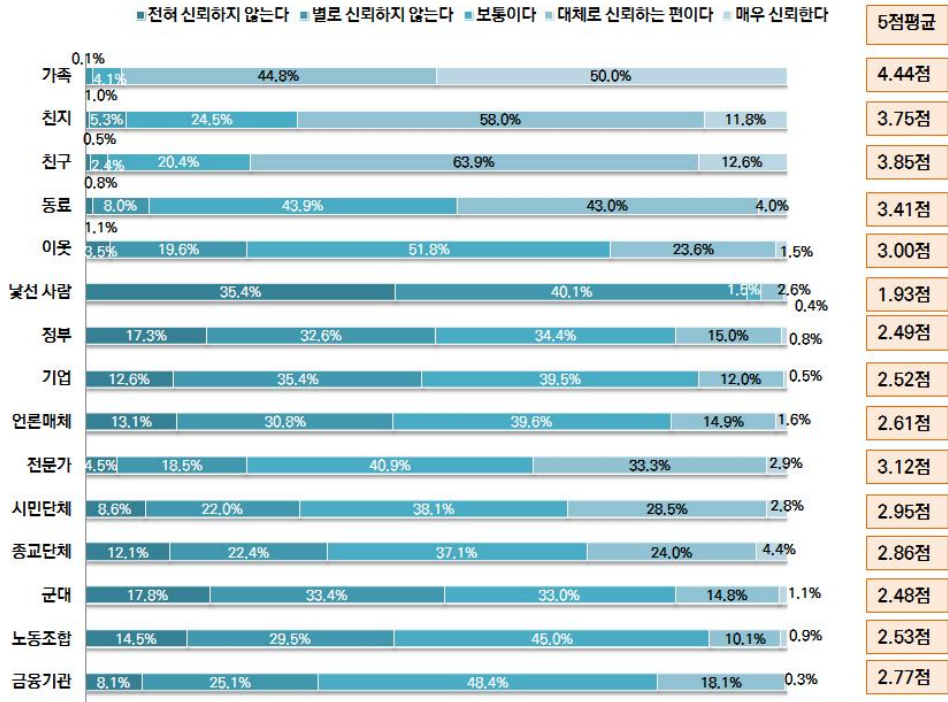
것이다(정지범 외, 2010).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신뢰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28.9%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나타나 불신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

15개 대상별 신뢰 여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가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94.8%)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친구(76.5%)나 친지(69.8%) 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동료(47.0%)나 전문가(36.1%), 시민단체(31.3%) 순으로 신뢰도가 높은 반면, 낯선 사람(3.0%), 노동조합(11.0%), 기업(12.5%), 정부(15.8%), 언론(16.5%) 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 군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나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원이자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5-4] 대상별 신뢰 수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신구조는 불안사회에 있어서 악순환을 가져온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⁵⁴. 위험을 둘러싼 갈등이나 정치화 과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위험의 정치화를 촉발하고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신뢰 결핍의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에서도 위험을 둘러싼 갈등의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진성 외, 2010).

⁵⁴ 한국사회의 절차 공정성 조사 결과 한국사회의 중요 결정 과정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6%,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고 91%, 적용되는 기준이 수시로 바뀐다고 69%, 외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85% 이상이다(성균관대,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논쟁이 촉발한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는 위험이슈에 대한 국민저항이 국가의 사회적 혼란을 잉태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광우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 대중은 당면한 위험에 대해 직관적 판단에 따라 분노라는 형태로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해내거나 정치적 순기능을 활용해 대중적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위험담론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송해룡·김원제, 2014).

고형면(2010)은 이러한 불신의 확산이 이루어진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의 약화에 대해 지적하였다. 사회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돌아가고, 핵심기관인 정부, 기업, 언론 등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활동하며,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직접 경험해야만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다. 상호협력과 안전이 없는 사회에서 신뢰는 쌓이기 어려울 것이다(새사연, 2014). 결국 불안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인 셈이다.

3_불안사회 해소의 과제: 신뢰와 공동체

1) 위험의 인지와 성찰성의 필요

우리 앞에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이 인지하는 중요한 위험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대형사고나 재난을 위험으로 인지했다면, 현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민감한 반면, 미래에는 에너지,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생태적 위험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정진성 외, 2010).

서구의 위험사회론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경고한다. 공간적, 시간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경계가 소멸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계들의 소멸로 국가단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험들(기후변화,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넘어서 세대 간 고통 전가의 문제(방사능 폐기물, 유전자 변형식품 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이재열 외, 2010).

위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벡(Beck, 1992)은 성찰적 근대화(refle-

xive modernization)를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성찰적 접근이란, 전문가 집단과 기업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던 과학의 영역에 비판세력으로서의 사회가 개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주체성을 회복하고 능동적으로 위험에 대응하여야 하며, 위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성찰을 높이면서 위험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통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고 신뢰확보의 수단이며 합의도출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영옥, 2006).

2) 사회적 신뢰와 의사소통이 중요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이기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회차원의 위험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공론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송해룡·김원제(2014)는 위험평가에 관련된 각 사회주체가 함께 관여하고 이에 대한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험인지의 상호간 격차를 줄이고 위험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험사회의 본질 중 하나인 안전과 위험의 충돌이며, 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측치 못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위기를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이 정치화되는 과정은 그 사회의 신뢰도나 계층별 차이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회의 질 분석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 즉 취약성에 대응할 자원(사회경제적 안전성) 등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객관적 위험에 대해서도 느끼는 불안감은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적인 성장에 더해 사회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정진성 외, 2010).

3)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신뢰 회복

불안사회를 치유하는 방안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있다. 그리고 그 극복의 시작은 소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모든 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필요하다. 정책집행의 정확한 평가와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이 행사하는 통제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정진성 외, 2010).

현대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은 시민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고, 시민들의 역량을 묶어내는 힘이 사회적 신뢰이다. 개개인의 역량, 사회적 신뢰, 사회적 역량은 서로서로 순환적이면서 자기 확충적 기제에 의해 움직인다.

4) '치유'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신뢰가 부족한 사회의 배경에는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의 약화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람들의 소속감과 귀속감 속에서 돌봄과 돌봐줌, 그 속의 치유가 필요하다. 개인적 접근에서 '힐링'이 유행했다면, 사회적으로는 치유보다는 '보살핌'의 의미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들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 육아, 노후불안 등 기존제도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경계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상호간의 이해와 함께하는 연대, 이를 위해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형면, 2010, “위험과 한국의 사회적 응집: 2008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구혜란, 2010, “위험 인식의 집단 간 차이”,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난도·전미영·이향은·이준영·김서영·최지혜, 2013, 「트렌드코리아 2014」, 미래의 창.
- 김미숙·이상영·정진옥·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최영준, 2014,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제40집 제2호.
- 김영란, 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역할 강화: 소통과 참여사회 구축을 위한 적극적 복지”, 「사회교육과 학연구」, 제9권 제1호.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위험관리: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 김영욱,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용학, 2005, 「인터넷시대의 사회적 위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태완, 2014,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연금포럼」, vol.56, 국민연금연구원.
- 김태형, 2010, 「불안증폭사회 - 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 위즈덤하우스.
- 노대명, 2013,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93호(201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미리·김묵한, 2012,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분노의 숫자 -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동녘.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안전학회, 2005, 「사회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와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7,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송해룡, 2013, 「위험거버넌스와 위험커뮤니케이션」, 한국학술정보.
- 송해룡·김원제, 2014, 「한국사회 위험특성과 한국인의 위험인식 스펙트럼」, 한국학술정보.
- 신광영, 2012,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대한민국 리스크 - 복지편」, 살림.
- 안정옥, 2010, 「위험 인식의 구성과 위험 경험의 구조: “권리를 가질 권리”」,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이영애, 2005, 「위험지각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7(3).
- 이재열,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재열, 2006,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와 한국사회의 위험」,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 보문당.
- 이재열, 2007, 「한국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조흥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열, 2009, 「“사회적질”과 “삶의질”」,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통계개발원.
- 이재열·정진성, 2010, 「결론: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사회의 질」,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주하,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 임완섭·노대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현진,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현진·이세용·김경섭 편, 1998, 「한국사회의 삶의 질: 신체적·심리적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진희, 2014,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4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기성, 2004, 「한국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7(1).
- 정의철·이창호, 2008, 「건강위기의 확산과 인터넷: 광우병과 청소년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학회 20주년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55~83.
- 정지범·류현숙, 2009,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원.
- 정지범·이재열, 2009,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법문사.
- 정지범·채종현, 2010, 「위험의 정치화 과정과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 정진성, 2010, 「위험사회에서의 인권문제」,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진성·이재열·박경숙·정재기·남은영·장진호, 2009,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혜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권중, 2010, 「활력 도시사회를 위한 시민역량제고(Citizen Empowerment)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권중, 2010, 「서울시 증장기 사회적 자본 증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권중·김경혜, 2012,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서울의 공공 사회서비스 구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권중·변미리, 2009, 「서울 도시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병희, 2010, 「광우병 인식의 사회적 구성」,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선일보, 2008.4.1., “첫 내한한 위험사회의 저자 올리히 백 교수 인터뷰-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콘텐츠사업부, 2013, 「불안 권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다」, (주)지식노마드.
- 차용진, 2006, “위험 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 한국행정연구원, 2008, 「사회위험 요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 2014,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
- 홍성태,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 홍성태, 2006,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 보문당.
- 홍성태, 2010, 「개발과 파괴의 사회학」, 중원문화.
- 홍성태, 2015, 「위험사회를 진단한다 - 사고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아로파.
- 홍주희, 2014,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 고령친화 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Beck, U., 홍성태(역), 1997,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 431~450.
- Bonoli, G., 2006, “New Social Risks and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ies”, in K. Armingeon, and G. Bonoli,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London: Routledge.
- Bonoli, G.,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2007, "Annual Report 2006: Strategies to Develop a Social Quality Approach in Europe and South-East Asia", Amsterdam, December.

Giddens, A., 2013,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Laurent J. 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Volume 5, Issues 1&2.

Laurent J. G. van der Maesen, Alan C. Walker, Margo Keizer, 2005, "The Final Report: Social Quality",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Pierson, P., 2001, "Post-industrial Pressures on the Mature Welfare States", in P. Pierson, 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Gooby, P. ed.,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01 | 조사 설계 내용

구분	내용
조사 표본	서울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8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pm 3.5\%$ point
조사 방법	- 400명: 개별 방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400명: 온라인 패널조사(On-line Panel Survey)
표본 추출	25개 구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시기	2014년 8월 30일(土) ~ 2014년 9월 22일(月)
조사 기관	(주)프롬리서치

02 | 설문지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롬리서치는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위험과 불안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 응답에 협조해 주시면, 향후 서울시민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응답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연구 수행 기관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조권중 박사 연구원 : 최지원	조사 수행 기관	프롬리서치 실사담당 : 오미영 부장 (02-6324-3003)
----------------	---	----------------	--

면 접 원 기 재	SO1) 성	1. 남자	2. 여자			
	SO2) 연령	만()세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01. 19세~20대	02. 30대	03. 40대		
	SO3) 지역	04. 50대	05. 60대 이상			
		A	01. 종로구	02. 중구	03. 용산구	
		B	04. 성동구	05. 광진구	06. 동대문구	07. 중랑구
		C	08. 성북구	0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D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E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영등포구	
F		18. 구로구	19. 금천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G		22. 서초구	23. 강남구			
H	24. 송파구	25. 강동구				

☞ **면접원: 조사완료 후 기재할 것**

응 답 자	이름		연락처	
	주소			

☞ **확인란**

면접원 이름		검증원		에디터	
--------	--	-----	--	-----	--

Part 1.

먼저 <위험사회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④ ⑤

문2) 귀하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④ ⑤

문3)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10
④ ⑤

문4) 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이후에는 서울의 위험정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④ ⑤

문5) 앞으로 서울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1) 자연재해 관련 위험(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관련 위험(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3) 생애주기 관련 위험(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 관련 위험(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7) 환경 관련 위험(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문6) 현재 서울 도시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 ① (, , 가 ,)
- ② (, , ,)
- ③ (, 가 , ,)
- ④ (, , ,)
- ⑤ (, 가 , ,)
- ⑥ (, 가 , ,)
- ⑦ (, , ,)

문7) 다음 각각의 위험들이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	보통 이다	약간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능성이 크다
1) 자연재해 관련 위험(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관련 위험(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애주기 관련 위험(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 관련 위험(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7) 환경 관련 위험(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다음의 위험을 얼마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피할 수 없다	별로 피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매우 피할 수 있다	모르 겠다
1) 자연재해 관련 위험(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관련 위험(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애주기 관련 위험(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 관련 위험(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7) 환경 관련 위험(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위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TV
- ②
- ③
- ④ (SNS)
- ⑤ (가 / / / /)
- ⑥ (,)
- ⑦
- ⑧
- ⑨ (_____)

Part 2. <불안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0)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문1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1) 우리 사회의 경쟁이 심해 언제 낙오될지 몰라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위기로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접하면 불만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는 것이 외롭고 삭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귀하는 향후 본인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문1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1)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	①	②	③	④	⑤
2) 신종전염병이나 성인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3) 먹거리 위험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4) 혼자되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6) 노후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7)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8) 폭력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9) 개인 신용정보 노출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0) 사고로 다치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1) 취업이나 실직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2) 주택 및 전세가격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3)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4)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5) 정치상황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6)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17)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하께서는 신문이나 TV에서 다음의 각각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얻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두렵다	매우 두렵다
1) 자연재해 관련 위험(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관련 위험(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협요 소, 성인병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애주기 관련 위험(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두렵지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두렵다	매우 두렵다
4) 사회생활 관련 위험(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7) 환경 관련 위험(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취하시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
- ②
- ③
- ④ ()
- ⑤ TV
- ⑥ PC (,)
- ⑦ , ,
- ⑧
- ⑨ ()
- ⑩ ()
- ⑪
- ⑫
- ⑬ ()
- ⑭ , (,)
- ⑮
- ⑯
- ⑰ (_____)

문16)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

문27) 귀하는 서울 도시의 새로운 위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노후불안(노인빈곤, 노인우울증 및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거문제(집값상승, 전세대란, 하우스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실업(고용불안, 소득불안정, 이태백, 니트족 등)	①	②	③	④	⑤
4) 출산보육 문제(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저출산, 사교육비 증가 등)	①	②	③	④	⑤
5) 근로빈곤(비정규직 증가 및 차별, 워킹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문28) 각각의 사회 문제들이 귀하의 생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1) 노후불안(노인빈곤, 노인우울증 및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거문제(집값상승, 전세대란, 하우스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실업(고용불안, 소득불안정, 이태백, 니트족 등)	①	②	③	④	⑤
4) 출산보육 문제(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저출산, 사교육비 증가 등)	①	②	③	④	⑤
5) 근로빈곤(비정규직 증가 및 차별, 워킹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문29) 각각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1) 노후불안(노인빈곤, 노인우울증 및 자살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거문제(집값상승, 전세대란, 하우스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3) 청년실업(고용불안, 소득불안정, 이태백, 니트족 등)	①	②	③	④	⑤
4) 출산보육 문제(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저출산, 사교육비 증가 등)	①	②	③	④	⑤
5) 근로빈곤(비정규직 증가 및 차별, 워킹푸어 등)	①	②	③	④	⑤

문30)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
 ③ (, , ,)
 ④ (, , , , 가)
 ⑤ (가 ,)

Part 5.

〈사회적 신뢰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④ ⑤

문3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친지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동료	①	②	③	④	⑤
5) 이웃	①	②	③	④	⑤
6) 낯선 사람	①	②	③	④	⑤
7) 정부	①	②	③	④	⑤
8) 기업	①	②	③	④	⑤
9) 언론매체	①	②	③	④	⑤
10)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11)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12)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3) 군대	①	②	③	④	⑤
1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15)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⑤

03 | 설문 결과

응답자 특성

구분				% (명)	
전체				100.0(800)	
성별	남자	48.5(388)	학력별	고졸 이하	29.1(233)
	여자	51.5(412)		전문대 재학/중퇴/졸업	14.8(118)
연령별	19세~20대	18.5(148)	4년제 재학/중퇴/졸업	4년제 재학/중퇴/졸업	48.9(391)
	30대	21.5(172)		대학원 이상	7.3 (58)
	40대	20.5(164)	혼인 상태별	미혼	28.3(226)
	50대	18.8(150)		기혼	70.3(562)
	60대 이상	20.8(166)		별거/이혼/사별	1.5 (12)
권역 별 ⁵⁵	강북동 권역	29.8(238)	자녀 수 별	미혼	28.7(226)
	강북서 권역	18.0(144)		기혼 & 무자녀	5.2 (41)
	강남동 권역	21.3(170)		자녀 1명	14.2(112)
	강남서 권역	31.0(248)		자녀 2명	43.7(344)
직업별	자영업	15.3(122)	자녀 3명 이상	8.2 (65)	
	블루칼라	12.6(101)	가구	200만 원 미만	8.6 (69)
	화이트칼라	39.4(315)	소득별	200만 ~ 400만 원 미만	36.8(294)
	가정주부	21.6(173)		400만 ~ 600만 원 미만	37.4(299)
	학생	7.9 (63)		600만 원 이상	17.3(138)
	무직/기타	3.3 (26)	주택	아파트	46.6(373)
	고용 상태별	상용근로자	42.1(337)	형태별	단독주택
임시근로자		9.3 (74)	기타(연립/다가구등)		39.5(316)
일용근로자		1.3 (10)	주택 소유 형태별	자가	62.0(496)
자영업자		15.3(122)		전세	30.4(243)
해당없음/기타		32.1(257)		월세/반전세/기타	7.6 (61)

⁵⁵ 강북동 권역: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강북서 권역: 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강남동 권역: 서초/강남/송파/강동구
 강남서 권역: 양천/강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

1_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불안전 %	약간 불안전 %	보통 %	비교적 안전함 %	매우 안전함 %	%	%		
▣ 전체 ▣	(800)	13.3	45.5	22.9	17.6	.8	58.8	18.4	2.47	
성별	남자	(388)	12.9	43.6	23.5	19.8	.3	56.4	20.1	2.51
	여자	(412)	13.6	47.3	22.3	15.5	1.2	60.9	16.7	2.43
연령	19세~20대	(148)	16.2	45.9	18.9	17.6	1.4	62.2	18.9	2.42
	30대	(172)	15.7	39.5	25.0	19.2	.6	55.2	19.8	2.49
	40대	(164)	11.6	47.0	26.2	15.2	.0	58.5	15.2	2.45
	50대	(150)	12.0	45.3	26.0	16.0	.7	57.3	16.7	2.48
	60대 이상	(166)	10.8	50.0	18.1	19.9	1.2	60.8	21.1	2.5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2.2	50.0	21.4	15.5	.8	62.2	16.4	2.43
	강북서 권역	(144)	13.9	43.1	17.4	25.0	.7	56.9	25.7	2.56
	강남동 권역	(170)	10.6	39.4	31.8	17.1	1.2	50.0	18.2	2.59
	강남서 권역	(248)	15.7	46.8	21.4	15.7	.4	62.5	16.1	2.38
직업	자영업	(122)	13.9	42.6	21.3	21.3	.8	56.6	22.1	2.52
	블루칼라	(101)	5.9	51.5	25.7	16.8	.0	57.4	16.8	2.53
	화이트칼라	(315)	17.1	46.0	21.0	14.9	1.0	63.2	15.9	2.37
	가정주부	(173)	8.1	50.3	23.1	17.3	1.2	58.4	18.5	2.53
	학생	(63)	17.5	33.3	25.4	23.8	.0	50.8	23.8	2.56
	무직/기타	(26)	15.4	26.9	34.6	23.1	.0	42.3	23.1	2.6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13.9	47.5	21.1	16.6	.9	61.4	17.5	2.43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20.3	45.9	20.3	13.5	.0	66.2	13.5	2.27
	일용근로자	(10)	30.0	50.0	.0	20.0	.0	80.0	20.0	2.10
	자영업자	(122)	13.9	42.6	21.3	21.3	.8	56.6	22.1	2.52
	해당없음/기타	(257)	9.3	44.0	27.6	18.3	.8	53.3	19.1	2.57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18.1	42.0	21.7	17.3	.9	60.2	18.1	2.41
	기혼 & 무자녀	(41)	14.6	43.9	24.4	17.1	.0	58.5	17.1	2.44
	자녀 1명	(112)	17.0	47.3	22.3	11.6	1.8	64.3	13.4	2.34
	자녀 2명	(344)	9.3	45.9	24.1	20.3	.3	55.2	20.6	2.56
	자녀 3명 이상	(65)	6.2	53.8	21.5	16.9	1.5	60.0	18.5	2.54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4.5	47.8	26.1	11.6	.0	62.3	11.6	2.35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11.9	45.6	25.9	15.6	1.0	57.5	16.7	2.48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12.4	46.5	21.4	19.4	.3	58.9	19.7	2.49
	600만 원 이상	(138)	17.4	42.0	18.1	21.0	1.4	59.4	22.5	2.47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2.3	48.0	20.8	18.1	.8	60.3	19.0	2.47
	전세	(243)	13.2	41.6	29.6	15.2	.4	54.7	15.6	2.48
	월세/반전세/기타	(61)	21.3	41.0	13.1	23.0	1.6	62.3	24.6	2.43

2. 귀하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불안전	약간 불안전	보통	비교적 안전함	매우 안전함	%	%	
■ 전체 ■		(800)	8.9	42.9	24.9	22.1	1.3	51.8	23.4	2.64
성별	남자	(388)	7.2	41.2	25.5	24.5	1.5	48.5	26.0	2.72
	여자	(412)	10.4	44.4	24.3	19.9	1.0	54.9	20.9	2.57
연령	19세~20대	(148)	12.8	37.8	25.0	20.3	4.1	50.7	24.3	2.65
	30대	(172)	12.2	43.6	25.6	18.0	.6	55.8	18.6	2.51
	40대	(164)	6.7	42.7	25.6	25.0	.0	49.4	25.0	2.69
	50대	(150)	4.7	46.7	23.3	24.7	.7	51.3	25.3	2.70
	60대 이상	(166)	7.8	43.4	24.7	22.9	1.2	51.2	24.1	2.66
권역	강북동 권역	(238)	8.0	44.5	24.8	21.0	1.7	52.5	22.7	2.64
	강북서 권역	(144)	7.6	40.3	20.8	29.9	1.4	47.9	31.3	2.77
	강남동 권역	(170)	8.2	44.1	24.1	21.2	2.4	52.4	23.5	2.65
	강남서 권역	(248)	10.9	41.9	27.8	19.4	.0	52.8	19.4	2.56
직업	자영업	(122)	7.4	33.6	25.4	32.8	.8	41.0	33.6	2.86
	블루칼라	(101)	4.0	50.5	21.8	23.8	.0	54.5	23.8	2.65
	화이트칼라	(315)	12.1	43.8	26.0	17.5	.6	55.9	18.1	2.51
	가정주부	(173)	5.8	50.9	22.0	20.2	1.2	56.6	21.4	2.60
	학생	(63)	11.1	27.0	30.2	23.8	7.9	38.1	31.7	2.90
	무직/기타	(26)	11.5	30.8	26.9	30.8	.0	42.3	30.8	2.77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9.8	44.2	25.8	19.6	.6	54.0	20.2	2.57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14.9	47.3	23.0	13.5	1.4	62.2	14.9	2.39
	일용근로자	(10)	20.0	60.0	.0	20.0	.0	80.0	20.0	2.20
	자영업자	(122)	7.4	33.6	25.4	32.8	.8	41.0	33.6	2.86
	해당없음/기타	(257)	6.2	43.6	24.9	23.0	2.3	49.8	25.3	2.72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13.7	38.9	23.9	20.8	2.7	52.7	23.5	2.60
	기혼 & 무자녀	(41)	9.8	51.2	19.5	19.5	.0	61.0	19.5	2.49
	자녀 1명	(112)	10.7	47.3	25.9	14.3	1.8	58.0	16.1	2.49
	자녀 2명	(344)	5.8	41.6	26.7	25.6	.3	47.4	25.9	2.73
	자녀 3명 이상	(65)	4.6	49.2	21.5	23.1	1.5	53.8	24.6	2.6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3.0	40.6	24.6	21.7	.0	53.6	21.7	2.55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7.8	44.9	24.5	21.8	1.0	52.7	22.8	2.63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7.0	45.2	23.4	22.4	2.0	52.2	24.4	2.67
	600만 원 이상	(138)	13.0	34.8	29.0	22.5	.7	47.8	23.2	2.6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7.9	42.3	24.8	23.6	1.4	50.2	25.0	2.68
	전세	(243)	9.5	44.4	27.2	18.5	.4	53.9	18.9	2.56
	월세/반전세/기타	(61)	14.8	41.0	16.4	24.6	3.3	55.7	27.9	2.61

3.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위험이 매우 줄었다	위험이 약간 줄었다	10년 전과 비슷	위험이 약간 커졌다	위험이 매우 커졌다			
☐ 전체 ☐	(800)	1.4	15.0	20.3	51.8	11.6	16.4	63.4	3.57
성별	남자 (388)	1.8	17.0	22.7	47.7	10.8	18.8	58.5	3.49
	여자 (412)	1.0	13.1	18.0	55.6	12.4	14.1	68.0	3.65
연령	19세~20대 (148)	1.4	12.8	21.6	47.3	16.9	14.2	64.2	3.66
	30대 (172)	.0	14.5	18.6	51.7	15.1	14.5	66.9	3.67
	40대 (164)	.6	11.6	18.3	57.9	11.6	12.2	69.5	3.68
	50대 (150)	4.7	16.7	22.0	48.0	8.7	21.3	56.7	3.39
	60대 이상 (166)	.6	19.3	21.1	53.0	6.0	19.9	59.0	3.45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3	13.0	22.7	50.0	13.0	14.3	63.0	3.61
	강북서 권역 (144)	2.1	20.8	19.4	45.8	11.8	22.9	57.6	3.44
	강남동 권역 (170)	.6	15.9	19.4	52.9	11.2	16.5	64.1	3.58
	강남서 권역 (248)	1.6	12.9	19.0	56.0	10.5	14.5	66.5	3.61
직업	자영업 (122)	3.3	18.0	20.5	51.6	6.6	21.3	58.2	3.40
	블루칼라 (101)	.0	11.9	19.8	61.4	6.9	11.9	68.3	3.63
	화이트칼라 (315)	1.3	14.0	20.0	48.9	15.9	15.2	64.8	3.64
	가정주부 (173)	1.2	13.9	19.1	57.8	8.1	15.0	65.9	3.58
	학생 (63)	1.6	20.6	25.4	34.9	17.5	22.2	52.4	3.46
	무직/기타 (26)	.0	19.2	19.2	50.0	11.5	19.2	61.5	3.54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9	13.4	21.7	50.1	13.9	14.2	64.1	3.63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0	16.2	13.5	54.1	16.2	16.2	70.3	3.70
	일용근로자 (10)	10.0	.0	10.0	60.0	20.0	10.0	80.0	3.80
	자영업자 (122)	3.3	18.0	20.5	51.6	6.6	21.3	58.2	3.40
	해당없음/기타 (257)	1.2	16.0	20.6	52.9	9.3	17.1	62.3	3.53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1.3	11.9	22.1	46.9	17.7	13.3	64.6	3.68
	기혼 & 무자녀 (41)	.0	14.6	14.6	56.1	14.6	14.6	70.7	3.71
	자녀 1명 (112)	.0	16.1	19.6	50.0	14.3	16.1	64.3	3.63
	자녀 2명 (344)	1.5	17.7	18.3	54.1	8.4	19.2	62.5	3.50
	자녀 3명 이상 (65)	1.5	12.3	26.2	56.9	3.1	13.8	60.0	3.4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0	13.0	21.7	52.2	13.0	13.0	65.2	3.65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2.0	15.6	22.4	51.7	8.2	17.7	59.9	3.48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1.7	13.7	17.4	54.5	12.7	15.4	67.2	3.63
	600만 원 이상 (138)	.0	17.4	21.0	45.7	15.9	17.4	61.6	3.6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2	15.9	20.0	51.2	11.7	17.1	62.9	3.56
	전세 (243)	.8	14.8	18.5	53.9	11.9	15.6	65.8	3.61
	월세/반전세/기타 (61)	4.9	8.2	29.5	47.5	9.8	13.1	57.4	3.49

4_현재와 비교할 때 10년 이후에는 서울의 위험정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줄어들 것이다	다소 줄어들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약간 커질 것이다	매우 커질 것이다				%
■ 전체 ■	(800)	1.0	18.9	40.0	31.1	9.0	19.9	40.1	3.28	
성별	남자	(388)	1.5	21.9	36.6	31.4	8.5	23.5	39.9	3.23
	여자	(412)	.5	16.0	43.2	30.8	9.5	16.5	40.3	3.33
연령	19세~20대	(148)	1.4	12.2	40.5	32.4	13.5	13.5	45.9	3.45
	30대	(172)	.0	12.8	40.7	34.9	11.6	12.8	46.5	3.45
	40대	(164)	.6	22.0	39.6	30.5	7.3	22.6	37.8	3.22
	50대	(150)	2.7	19.3	38.0	33.3	6.7	22.0	40.0	3.22
	60대 이상	(166)	.6	27.7	41.0	24.7	6.0	28.3	30.7	3.08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	13.4	42.0	34.5	9.7	13.9	44.1	3.39
	강북서 권역	(144)	2.1	13.2	37.5	35.4	11.8	15.3	47.2	3.42
	강남동 권역	(170)	.0	22.4	40.0	29.4	8.2	22.4	37.6	3.24
	강남서 권역	(248)	1.6	25.0	39.5	26.6	7.3	26.6	33.9	3.13
직업	자영업	(122)	3.3	28.7	36.1	25.4	6.6	32.0	32.0	3.03
	블루칼라	(101)	.0	15.8	46.5	32.7	5.0	15.8	37.6	3.27
	화이트칼라	(315)	.3	16.8	37.5	31.1	14.3	17.1	45.4	3.42
	가정주부	(173)	.6	17.3	45.7	33.5	2.9	17.9	36.4	3.21
	학생	(63)	3.2	20.6	36.5	28.6	11.1	23.8	39.7	3.24
	무직/기타	(26)	.0	15.4	34.6	42.3	7.7	15.4	50.0	3.42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3	16.6	40.4	30.6	12.2	16.9	42.7	3.38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0	14.9	41.9	28.4	14.9	14.9	43.2	3.43
	일용근로자	(10)	.0	20.0	50.0	20.0	10.0	20.0	30.0	3.20
	자영업자	(122)	3.3	28.7	36.1	25.4	6.6	32.0	32.0	3.03
	해당없음/기타	(257)	1.2	18.3	40.5	35.8	4.3	19.5	40.1	3.24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9	14.2	38.5	31.0	15.5	15.0	46.5	3.46
	기혼 & 무자녀	(41)	2.4	12.2	34.1	36.6	14.6	14.6	51.2	3.49
	자녀 1명	(112)	.0	17.0	41.1	33.9	8.0	17.0	42.0	3.33
	자녀 2명	(344)	1.2	22.1	41.0	30.2	5.5	23.3	35.8	3.17
	자녀 3명 이상	(65)	.0	27.7	40.0	27.7	4.6	27.7	32.3	3.09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4	10.1	49.3	27.5	11.6	11.6	39.1	3.38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1.4	20.4	39.8	31.6	6.8	21.8	38.4	3.22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1.0	19.1	37.8	35.1	7.0	20.1	42.1	3.28
	600만 원 이상	(138)	.0	19.6	40.6	23.2	16.7	19.6	39.9	3.37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0	20.0	41.5	29.4	8.1	21.0	37.5	3.24
	전세	(243)	.8	16.9	35.8	36.6	9.9	17.7	46.5	3.38
	월세/반전세/기타	(61)	1.6	18.0	44.3	23.0	13.1	19.7	36.1	3.28

5_앞으로 서울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증가할 것' 응답률)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위험	환경 관련 위험
			%	%	%	%	%	%	%
▣ 전체 ▣		(800)	64.4	66.9	81.4	70.5	70.1	48.1	65.3
성별	남자	(388)	61.1	61.9	80.2	68.3	68.3	49.5	63.9
	여자	(412)	67.5	71.6	82.5	72.6	71.8	46.8	66.5
연령	19세~20대	(148)	60.8	64.2	83.8	74.3	75.0	51.4	64.2
	30대	(172)	68.0	68.0	80.8	68.6	70.3	43.0	66.3
	40대	(164)	67.7	70.1	81.7	72.6	73.8	50.6	68.9
	50대	(150)	65.3	66.7	80.7	75.3	65.3	44.7	61.3
	60대 이상	(166)	59.6	65.1	80.1	62.7	66.3	51.2	65.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63.0	68.5	81.1	72.3	71.8	47.1	68.1
	강북서 권역	(144)	68.8	65.3	82.6	71.5	70.1	50.0	68.1
	강남동 권역	(170)	62.9	68.2	78.2	65.9	71.8	54.7	68.8
	강남서 권역	(248)	64.1	65.3	83.1	71.4	67.3	43.5	58.5
직업	자영업	(122)	59.8	64.8	81.1	68.0	68.0	51.6	59.0
	블루칼라	(101)	66.3	69.3	83.2	76.2	74.3	48.5	69.3
	화이트칼라	(315)	66.3	64.8	81.0	70.2	70.2	50.5	66.7
	가정주부	(173)	68.8	74.6	81.5	70.5	71.1	42.8	66.5
	학생	(63)	55.6	55.6	77.8	68.3	65.1	42.9	58.7
	무직/기타	(26)	46.2	69.2	88.5	69.2	69.2	50.0	69.2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67.7	65.9	81.0	70.9	70.0	48.7	65.3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58.1	62.2	83.8	73.0	78.4	54.1	75.7
	일용근로자	(10)	60.0	80.0	80.0	80.0	90.0	60.0	70.0
	자영업자	(122)	59.8	64.8	81.1	68.0	68.0	51.6	59.0
	해당없음/기타	(257)	64.2	70.0	81.3	70.0	68.1	43.6	65.0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61.1	64.2	82.7	73.9	75.2	52.2	65.5
	기혼 & 무자녀	(41)	61.0	70.7	92.7	85.4	70.7	58.5	78.0
	자녀 1명	(112)	74.1	65.2	77.7	68.8	70.5	54.5	69.6
	자녀 2명	(344)	64.5	69.2	82.0	69.2	66.9	43.3	64.2
가구 소득	자녀 3명 이상	(65)	64.6	69.2	75.4	61.5	70.8	44.6	58.5
	200만 원 미만	(69)	58.0	62.3	82.6	73.9	78.3	55.1	73.9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64.3	68.0	83.3	70.1	71.8	48.3	65.6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68.9	69.9	78.9	74.2	69.2	43.1	64.2
	600만 원 이상	(138)	58.0	60.1	81.9	61.6	64.5	55.1	62.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62.5	65.1	79.6	69.4	67.5	46.6	60.3
	전세	(243)	69.5	72.0	86.0	71.2	74.5	50.6	73.7
	월세/반전세/기타	(61)	59.0	60.7	77.0	77.0	73.8	50.8	72.1

6_현재 서울 도시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위험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사례 수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관련 위험	환경 관련 위험	계	
		%	%	%	%	%	%	%		
■ 전체 ■		(800)	12.1	8.4	19.3	21.8	28.8	5.8	4.0	100.0
성별	남자	(388)	11.1	9.3	18.6	21.4	30.4	5.9	3.4	100.0
	여자	(412)	13.1	7.5	19.9	22.1	27.2	5.6	4.6	100.0
연령	19세~20대	(148)	15.5	5.4	15.5	27.7	30.4	2.7	2.7	100.0
	30대	(172)	14.5	11.0	11.0	23.3	35.5	3.5	1.2	100.0
	40대	(164)	7.3	8.5	21.3	25.6	29.9	3.7	3.7	100.0
	50대	(150)	12.7	4.7	22.7	22.0	24.0	6.7	7.3	100.0
	60대 이상	(166)	10.8	11.4	25.9	10.8	23.5	12.0	5.4	100.0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4.7	10.5	23.5	21.4	23.5	2.5	3.8	100.0
	강북서 권역	(144)	19.4	9.0	20.8	20.8	19.4	6.9	3.5	100.0
	강남동 권역	(170)	8.2	6.5	16.5	20.6	32.9	9.4	5.9	100.0
	강남서 권역	(248)	8.1	7.3	16.1	23.4	36.3	5.6	3.2	100.0
직업	자영업	(122)	9.8	10.7	24.6	13.1	23.8	13.1	4.9	100.0
	블루칼라	(101)	10.9	6.9	21.8	20.8	33.7	3.0	3.0	100.0
	화이트칼라	(315)	11.4	7.9	14.6	27.6	32.1	2.9	3.5	100.0
	가정주부	(173)	13.9	10.4	22.0	17.3	25.4	6.4	4.6	100.0
	학생	(63)	15.9	6.3	19.0	25.4	23.8	6.3	3.2	100.0
	무직/기타	(26)	15.4	0.0	23.1	15.4	26.9	11.5	7.7	100.0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11.6	8.6	16.6	25.5	31.5	3.6	2.7	100.0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9.5	6.8	14.9	27.0	33.8	2.7	5.4	100.0
	일용근로자	(10)	20.0	0.0	10.0	30.0	20.0	0.0	20.0	100.0
	자영업자	(122)	9.8	10.7	24.6	13.1	23.8	13.1	4.9	100.0
	해당없음/기타	(257)	14.4	7.8	21.8	19.1	26.5	6.2	4.3	100.0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13.7	4.4	14.6	28.3	31.9	4.9	2.2	100.0
	기혼 & 무자녀	(41)	11.6	10.1	21.2	19.2	27.4	6.0	4.4	100.0
	자녀 1명	(112)	8.3	0.0	16.7	16.7	33.3	8.3	16.7	100.0
	자녀 2명	(344)	13.7	4.4	14.6	28.3	31.9	4.9	2.2	100.0
	자녀 3명 이상	(65)	9.8	17.1	24.4	24.4	19.5	2.4	2.4	10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8.9	8.9	15.2	26.8	31.3	4.5	4.5	100.0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12.8	9.0	23.3	17.2	27.9	5.8	4.1	100.0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10.8	13.8	18.5	13.8	23.1	12.3	7.7	100.0
	600만 원 이상	(138)	11.6	5.8	33.3	24.6	18.8	2.9	2.9	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3.6	5.8	18.4	20.7	29.3	7.1	5.1	100.0
	전세	(243)	12.0	10.7	17.4	21.7	31.8	3.3	3.0	100.0
	월세/반전세/기타	(61)	9.4	10.1	18.1	22.5	26.1	9.4	4.3	100.0

7_다음 각각의 위험들이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가능성 있다' 응답률)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위험	환경 관련 위험
			%	%	%	%	%	%	%
▣ 전체 ▣		(800)	49.6	58.5	62.5	57.5	65.9	39.0	48.1
성별	남자	(388)	49.5	57.7	64.7	57.5	68.3	41.2	49.7
	여자	(412)	49.8	59.2	60.4	57.5	63.6	36.9	46.6
연령	19세~20대	(148)	47.3	58.8	60.1	67.6	77.0	42.6	49.3
	30대	(172)	50.0	56.4	55.2	54.7	69.2	34.3	46.5
	40대	(164)	54.9	62.8	64.6	59.8	62.8	39.0	48.8
	50대	(150)	44.7	51.3	60.0	54.7	64.0	35.3	44.0
	60대 이상	(166)	50.6	62.7	72.3	51.8	57.2	44.0	51.8
권역	강북동 권역	(238)	55.9	64.7	66.0	61.8	65.5	37.0	50.8
	강북서 권역	(144)	50.0	59.7	72.9	58.3	67.4	49.3	57.6
	강남동 권역	(170)	38.8	49.4	52.4	45.9	61.8	46.5	41.8
	강남서 권역	(248)	50.8	58.1	60.1	60.9	68.1	29.8	44.4
직업	자영업	(122)	47.5	55.7	68.0	53.3	63.1	36.9	44.3
	블루칼라	(101)	51.5	54.5	61.4	56.4	68.3	38.6	48.5
	화이트칼라	(315)	54.0	64.4	65.4	65.4	70.8	42.2	51.7
	가정주부	(173)	48.0	56.1	56.6	48.6	55.5	32.4	41.6
	학생	(63)	33.3	47.6	55.6	54.0	68.3	41.3	50.8
	무직/기타	(26)	50.0	57.7	61.5	53.8	73.1	50.0	57.7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53.1	62.0	64.7	63.2	70.9	39.2	49.0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58.1	64.9	67.6	64.9	74.3	48.6	60.8
	일용근로자	(10)	50.0	60.0	70.0	70.0	70.0	70.0	70.0
	자영업자	(122)	47.5	55.7	68.0	53.3	63.1	36.9	44.3
	해당없음/기타	(257)	43.6	53.3	55.3	49.4	58.0	35.8	44.4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49.1	59.7	64.6	64.2	75.7	40.3	50.4
	기혼 & 무자녀	(41)	65.9	75.6	82.9	65.9	68.3	48.8	63.4
	자녀 1명	(112)	45.5	55.4	67.9	63.4	69.6	36.6	54.5
	자녀 2명	(344)	48.8	57.6	57.0	50.3	59.9	37.2	43.6
	자녀 3명 이상	(65)	53.8	52.3	61.5	53.8	55.4	43.1	44.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46.4	59.4	82.6	60.9	78.3	47.8	66.7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45.2	57.8	63.3	55.1	65.6	36.1	43.5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55.2	57.2	57.2	57.5	63.9	36.8	47.2
	600만 원 이상	(138)	48.6	62.3	62.3	60.9	64.5	45.7	50.7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9.4	58.9	62.3	55.6	60.7	37.3	46.4
	전세	(243)	51.0	57.2	61.3	57.6	72.8	41.6	49.4
	월세/반전세/기타	(61)	45.9	60.7	68.9	72.1	80.3	42.6	57.4

8_귀하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다음의 위험을 얼마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응답률)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위험	환경 관련 위험
			%	%	%	%	%	%	
▣ 전체 ▣		(800)	41.9	81.1	69.9	57.4	57.1	34.8	35.1
성별	남자	(388)	45.4	83.5	71.4	58.5	59.0	38.4	37.9
	여자	(412)	38.6	78.9	68.4	56.3	55.3	31.3	32.5
연령	19세~20대	(148)	32.4	81.1	67.6	49.3	50.0	31.8	31.1
	30대	(172)	43.6	78.5	71.5	59.9	61.0	33.7	34.9
	40대	(164)	45.1	81.7	69.5	61.0	59.1	36.0	36.6
	50대	(150)	49.3	79.3	75.3	62.0	60.0	40.0	36.7
	60대 이상	(166)	38.6	84.9	65.7	54.2	54.8	32.5	36.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3.3	80.3	68.9	55.0	59.7	39.1	37.0
	강북서 권역	(144)	44.4	72.9	63.9	46.5	42.4	34.7	41.0
	강남동 권역	(170)	42.9	89.4	74.7	66.5	62.9	31.2	31.8
	강남서 권역	(248)	38.3	81.0	71.0	59.7	59.3	33.1	32.3
직업	자영업	(122)	45.9	86.9	77.0	68.9	65.6	41.0	39.3
	블루칼라	(101)	38.6	76.2	58.4	53.5	58.4	28.7	35.6
	화이트칼라	(315)	44.8	78.4	65.4	51.1	54.6	34.6	34.9
	가정주부	(173)	40.5	83.2	75.7	63.0	56.6	34.1	33.5
	학생	(63)	31.7	85.7	76.2	55.6	50.8	39.7	33.3
	무직/기타	(26)	34.6	80.8	80.8	61.5	61.5	23.1	30.8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43.3	79.2	67.1	51.9	57.9	33.5	35.3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43.2	77.0	56.8	47.3	41.9	29.7	27.0
	일용근로자	(10)	50.0	80.0	40.0	80.0	60.0	40.0	50.0
	자영업자	(122)	45.9	86.9	77.0	68.9	65.6	41.0	39.3
	해당없음/기타	(257)	37.4	82.1	75.1	61.1	56.4	34.6	34.6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32.7	78.8	65.0	54.0	54.4	31.0	30.1
	기혼 & 무자녀	(41)	51.2	68.3	70.7	46.3	61.0	29.3	41.5
	자녀 1명	(112)	42.0	84.8	69.6	59.8	50.9	38.4	37.5
	자녀 2명	(344)	45.6	82.6	73.8	60.8	59.6	35.8	36.9
	자녀 3명 이상	(65)	50.8	84.6	63.1	55.4	64.6	41.5	35.4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31.9	72.5	62.3	53.6	53.6	27.5	24.6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43.9	83.3	70.1	59.5	52.4	32.7	34.4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41.5	82.3	70.6	58.2	62.9	39.1	38.1
	600만 원 이상	(138)	43.5	78.3	71.7	52.9	56.5	33.3	35.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0.9	80.6	68.1	58.1	58.5	36.5	36.9
	전세	(243)	44.4	81.9	72.8	56.4	56.0	33.7	33.7
	월세/반전세/기타	(61)	39.3	82.0	72.1	55.7	50.8	24.6	26.2

9_귀하는 위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례 수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SNS)	주변 사람 (가족/친구 등)	공공 기관 (정부, 지자체)	시민 단체	교육/연구 기관	책 (각종 저널 등)	
		%	%	%	%	%	%	%	%	%	
▣ 전체 ▣	(800)	88.8	40.9	15.5	65.9	54.6	11.3	6.6	4.8	0.4	
성별	남자	(388)	89.2	49.5	17.0	68.3	48.2	13.7	7.5	5.4	0.3
	여자	(412)	88.3	32.8	14.1	63.6	60.7	9.0	5.8	4.1	0.5
연령	19세~20대	(148)	85.1	31.8	10.1	76.4	51.4	10.8	4.1	5.4	0.0
	30대	(172)	89.5	33.7	14.5	75.0	60.5	9.3	7.0	4.7	0.6
	40대	(164)	90.2	48.2	17.7	70.7	56.7	14.0	8.5	4.9	0.0
	50대	(150)	84.7	46.7	11.3	61.3	52.7	8.7	5.3	4.0	0.7
	60대 이상	(166)	93.4	44.0	22.9	46.4	51.2	13.3	7.8	4.8	0.6
권역	강북동 권역	(238)	84.0	33.6	12.6	63.0	46.6	10.5	5.0	5.0	0.4
	강북서 권역	(144)	91.7	47.2	16.7	69.4	66.0	10.4	9.7	2.8	0.7
	강남동 권역	(170)	91.2	46.5	15.9	61.8	61.8	12.4	7.1	6.5	0.6
	강남서 권역	(248)	89.9	40.3	17.3	69.4	50.8	11.7	6.0	4.4	0.0
직업	자영업	(122)	86.1	48.4	21.3	59.8	48.4	15.6	5.7	3.3	0.8
	블루칼라	(101)	92.1	39.6	8.9	58.4	52.5	6.9	2.0	1.0	0.0
	화이트칼라	(315)	88.6	49.2	19.0	78.7	53.7	14.9	11.1	7.3	0.3
	가정주부	(173)	89.6	26.6	13.9	47.4	64.7	5.2	4.0	1.7	0.0
	학생	(63)	84.1	23.8	6.3	76.2	46.0	9.5	0.0	6.3	0.0
	무직/기타	(26)	96.2	46.2	3.8	65.4	57.7	7.7	7.7	11.5	3.8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90.5	48.1	17.5	75.1	55.8	13.1	8.6	5.0	0.3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86.5	39.2	12.2	75.7	45.9	14.9	8.1	9.5	0.0
	일용근로자	(10)	90.0	90.0	30.0	60.0	60.0	10.0	0.0	0.0	0.0
	자영업자	(122)	86.1	48.4	21.3	59.8	48.4	15.6	5.7	3.3	0.8
	해당없음/기타	(257)	88.3	26.5	10.5	54.1	58.4	5.8	4.3	3.9	0.4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85.8	36.3	12.8	81.4	52.7	10.6	5.8	6.2	0.4
	기혼 & 무자녀	(41)	78.0	41.5	14.6	61.0	51.2	12.2	7.3	4.9	0.0
	자녀 1명	(112)	86.6	45.5	20.5	69.6	49.1	13.4	9.8	6.3	0.0
	자녀 2명	(344)	92.7	44.5	15.1	58.7	59.3	11.6	6.7	4.1	0.3
	자녀 3명 이상	(65)	90.8	29.2	20.0	43.1	49.2	7.7	3.1	1.5	1.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91.3	37.7	8.7	58.0	55.1	7.2	4.3	4.3	1.4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89.5	36.7	14.6	66.7	53.7	10.9	4.1	3.4	0.0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89.3	41.1	16.1	62.9	50.8	9.4	6.4	4.3	0.7
	600만 원 이상	(138)	84.8	50.7	19.6	74.6	64.5	18.1	13.8	8.7	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88.5	40.3	15.7	60.5	55.8	12.1	7.1	5.0	0.4
	전세	(243)	90.5	39.5	14.4	71.6	55.6	9.1	5.3	3.7	0.4
	월세/반전세/기타	(61)	83.6	50.8	18.0	86.9	41.0	13.1	8.2	6.6	0.0

10_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전혀 경험 하지 않는다	별로 경험 하지 않는 편	보통 이다	약간 경험 하는 편이다	자주 경험한다				
□ 전체 □		(800)	1.5	22.0	35.9	36.6	4.0	23.5	40.6	3.20
성별	남자	(388)	2.1	23.5	38.9	32.0	3.6	25.5	35.6	3.12
	여자	(412)	1.0	20.6	33.0	41.0	4.4	21.6	45.4	3.27
연령	19세~20대	(148)	2.7	24.3	33.1	33.8	6.1	27.0	39.9	3.16
	30대	(172)	1.2	25.0	34.9	34.9	4.1	26.2	39.0	3.16
	40대	(164)	0.0	22.0	36.6	39.6	1.8	22.0	41.5	3.21
	50대	(150)	2.7	15.3	39.3	38.0	4.7	18.0	42.7	3.27
	60대 이상	(166)	1.2	22.9	35.5	36.7	3.6	24.1	40.4	3.19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7	18.5	34.5	40.8	4.6	20.2	45.4	3.28
	강북서 권역	(144)	0.7	22.2	29.2	43.1	4.9	22.9	47.9	3.29
	강남동 권역	(170)	2.9	22.9	41.2	30.6	2.4	25.9	32.9	3.06
	강남서 권역	(248)	0.8	24.6	37.5	33.1	4.0	25.4	37.1	3.15
직업	자영업	(122)	2.5	26.2	37.7	32.8	0.8	28.7	33.6	3.03
	블루칼라	(101)	2.0	10.9	41.6	40.6	5.0	12.9	45.5	3.36
	화이트칼라	(315)	0.6	21.3	32.7	39.4	6.0	21.9	45.4	3.29
	가정주부	(173)	0.6	23.1	39.9	34.7	1.7	23.7	36.4	3.14
	학생	(63)	4.8	33.3	30.2	28.6	3.2	38.1	31.7	2.92
	무직/기타	(26)	3.8	19.2	30.8	38.5	7.7	23.1	46.2	3.27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0.9	20.8	35.0	39.2	4.2	21.7	43.3	3.25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1.4	6.8	35.1	45.9	10.8	8.1	56.8	3.58
	일용근로자	(10)	0.0	10.0	10.0	50.0	30.0	10.0	80.0	4.00
	자영업자	(122)	2.5	26.2	37.7	32.8	0.8	28.7	33.6	3.03
	해당없음/기타	(257)	1.9	26.5	37.4	31.9	2.3	28.4	34.2	3.06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2.7	24.8	32.3	34.5	5.8	27.4	40.3	3.16
	기혼 & 무자녀	(41)	0.0	9.8	46.3	34.1	9.8	9.8	43.9	3.44
	자녀 1명	(112)	1.8	24.1	28.6	40.2	5.4	25.9	45.5	3.23
	자녀 2명	(344)	1.2	20.9	40.1	36.3	1.5	22.1	37.8	3.16
	자녀 3명 이상	(65)	0.0	24.6	32.3	38.5	4.6	24.6	43.1	3.23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0.0	20.3	33.3	37.7	8.7	20.3	46.4	3.35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1.7	21.4	35.4	36.7	4.8	23.1	41.5	3.21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1.7	20.7	38.8	36.8	2.0	22.4	38.8	3.17
	600만 원 이상	(138)	1.4	26.8	31.9	35.5	4.3	28.3	39.9	3.1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6	22.0	36.5	36.3	3.6	23.6	39.9	3.18
	전세	(243)	1.2	21.0	37.4	37.4	2.9	22.2	40.3	3.20
	월세/반전세/기타	(61)	1.6	26.2	24.6	36.1	11.5	27.9	47.5	3.30

11_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강하게 느낀다' 응답률)				
			경쟁으로 인한 낙오	가족의 질병, 사고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살이	정치 문제 사회 이슈	외로움
			%	%	%	%	%
▣ 전체 ▣		(800)	49.1	57.6	59.9	59.0	24.4
성별	남자	(388)	56.4	53.4	59.3	59.0	23.2
	여자	(412)	42.2	61.7	60.4	59.0	25.5
연령	19세~20대	(148)	63.5	52.0	56.8	51.4	25.0
	30대	(172)	55.8	57.6	64.0	53.5	21.5
	40대	(164)	52.4	65.2	63.4	64.0	22.6
	50대	(150)	40.7	56.0	60.7	62.7	26.7
	60대 이상	(166)	33.7	56.6	54.2	63.3	26.5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8.3	54.6	60.5	59.7	30.3
	강북서 권역	(144)	56.9	65.3	63.9	64.6	28.5
	강남동 권역	(170)	37.6	58.8	56.5	61.8	17.6
	강남서 권역	(248)	53.2	55.2	59.3	53.2	21.0
직업	자영업	(122)	44.3	55.7	57.4	55.7	26.2
	블루칼라	(101)	53.5	63.4	77.2	59.4	27.7
	화이트칼라	(315)	57.1	58.4	59.0	64.8	28.3
	가정주부	(173)	30.6	59.5	60.7	58.4	20.2
	학생	(63)	60.3	44.4	46.0	41.3	11.1
	무직/기타	(26)	53.8	53.8	42.3	50.0	15.4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56.7	57.9	61.7	61.1	27.0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52.7	68.9	70.3	67.6	33.8
	일용근로자	(10)	90.0	70.0	90.0	60.0	30.0
	자영업자	(122)	44.3	55.7	57.4	55.7	26.2
	해당없음/기타	(257)	38.9	54.5	54.5	55.3	17.1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61.1	59.3	59.7	55.3	23.0
	기혼 & 무자녀	(41)	58.5	61.0	58.5	61.0	29.3
	자녀 1명	(112)	50.0	58.9	59.8	58.0	25.9
	자녀 2명	(344)	41.9	56.4	61.0	60.8	23.3
	자녀 3명 이상	(65)	36.9	50.8	52.3	60.0	23.1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49.3	62.3	66.7	65.2	31.9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48.0	59.9	67.7	59.5	27.2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51.8	56.9	54.5	56.5	24.7
	600만 원 이상	(138)	45.7	52.2	51.4	60.1	13.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6.0	55.0	52.6	56.3	22.4
	전세	(243)	53.1	63.0	70.4	62.1	27.2
	월세/반전세/기타	(61)	59.0	57.4	77.0	68.9	29.5

12_귀하는 향후 본인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사례 수	① 전혀 기대않음	② 별로 기대않음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기대	⑤ 매우 기대	①+②	④+⑤	평균 (5점)
			%	%	%	%	%	%	%	
■ 전체 ■		(800)	3.1	17.0	26.4	45.4	8.1	20.1	53.5	3.38
성별	남자	(388)	3.6	18.6	26.8	43.3	7.7	22.2	51.0	3.33
	여자	(412)	2.7	15.5	26.0	47.3	8.5	18.2	55.8	3.43
연령	19세~20대	(148)	4.7	10.1	20.3	51.4	13.5	14.9	64.9	3.59
	30대	(172)	4.7	10.5	23.8	47.7	13.4	15.1	61.0	3.55
	40대	(164)	1.2	14.6	26.2	50.6	7.3	15.9	57.9	3.48
	50대	(150)	0.7	23.3	26.0	46.0	4.0	24.0	50.0	3.29
	60대 이상	(166)	4.2	26.5	34.9	31.9	2.4	30.7	34.3	3.02
권역	강북동 권역	(238)	2.5	18.5	26.1	46.6	6.3	21.0	52.9	3.36
	강북서 권역	(144)	4.9	24.3	25.0	40.3	5.6	29.2	45.8	3.17
	강남동 권역	(170)	2.4	14.1	23.5	50.6	9.4	16.5	60.0	3.51
	강남서 권역	(248)	3.2	13.3	29.4	43.5	10.5	16.5	54.0	3.45
직업	자영업	(122)	2.5	15.6	20.5	54.9	6.6	18.0	61.5	3.48
	블루칼라	(101)	2.0	16.8	29.7	43.6	7.9	18.8	51.5	3.39
	화이트칼라	(315)	5.4	18.4	25.4	41.6	9.2	23.8	50.8	3.31
	가정주부	(173)	0.6	16.2	31.8	46.8	4.6	16.8	51.4	3.39
	학생	(63)	1.6	12.7	19.0	50.8	15.9	14.3	66.7	3.67
	무직/기타	(26)	3.8	23.1	34.6	30.8	7.7	26.9	38.5	3.1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3.9	17.8	24.3	44.2	9.8	21.7	54.0	3.38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6.8	27.0	28.4	35.1	2.7	33.8	37.8	3.00
	일용근로자	(10)	20.0	0.0	20.0	60.0	0.0	20.0	60.0	3.20
	자영업자	(122)	2.5	15.6	20.5	54.9	6.6	18.0	61.5	3.48
	해당없음/기타	(257)	0.8	14.4	31.5	44.7	8.6	15.2	53.3	3.46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5.3	13.7	23.9	45.6	11.5	19.0	57.1	3.44
	기혼 & 무자녀	(41)	4.9	19.5	19.5	41.5	14.6	24.4	56.1	3.41
	자녀 1명	(112)	3.6	16.1	23.2	42.9	14.3	19.6	57.1	3.48
	자녀 2명	(344)	1.5	16.9	29.9	47.1	4.7	18.3	51.7	3.37
	자녀 3명 이상	(65)	3.1	26.2	29.2	40.0	1.5	29.2	41.5	3.11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5.8	24.6	29.0	34.8	5.8	30.4	40.6	3.1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3.1	20.4	25.9	44.2	6.5	23.5	50.7	3.31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1.3	13.0	25.8	50.8	9.0	14.4	59.9	3.53
	600만 원 이상	(138)	5.8	14.5	27.5	41.3	10.9	20.3	52.2	3.37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6	17.5	27.4	45.0	7.5	20.2	52.4	3.37
	전세	(243)	2.5	16.9	27.2	45.3	8.2	19.3	53.5	3.40
	월세/반전세/기타	(61)	9.8	13.1	14.8	49.2	13.1	23.0	62.3	3.43

13_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사례 수	자연 재해 피해	신종 전염병/성인병	먹거리 위협	혼자 되는 것	주변 사람 불신	노후 불안	사생 활 침해	폭력 범죄 피해	사이버 범죄	사고로 인한 부상	취업 실적 불안	주택 전세 불안	가계 부채	경제 상황 악화	정치 상황	개인 인권 자유 침해	환경 오염 피해
		%	%	%	%	%	%	%	%	%	%	%	%	%	%	%	%	%
■ 전체 ■	(800)	40.4	45.9	52.4	32.3	28.8	60.6	39.9	44.0	59.5	47.0	49.8	52.9	48.0	66.0	44.6	37.5	42.6
성별	남자 (388)	39.4	41.5	46.9	29.6	28.9	60.3	38.9	38.4	54.9	44.6	53.1	54.9	46.6	69.6	46.6	37.9	40.5
	여자 (412)	41.3	50.0	57.5	34.7	28.6	60.9	40.8	49.3	63.8	49.3	46.6	51.0	49.3	62.6	42.7	37.1	44.7
연령	19세~20대 (148)	40.5	39.2	44.6	37.8	33.1	43.9	46.6	50.0	64.2	41.9	76.4	60.1	48.6	62.8	39.9	41.9	34.5
	30대 (172)	40.7	45.9	56.4	26.2	27.3	62.8	47.7	49.4	62.8	48.8	48.3	64.5	52.9	72.7	41.9	39.0	41.3
	40대 (164)	42.1	47.6	57.3	29.9	26.8	67.7	45.7	47.0	65.9	48.2	48.8	53.7	53.0	70.1	44.5	40.9	49.4
	50대 (150)	36.0	47.3	51.3	31.3	30.0	63.3	34.0	36.0	56.0	48.7	42.0	48.0	47.3	68.0	48.7	33.3	40.0
	60대 이상 (166)	42.2	48.8	51.2	36.7	27.1	63.9	25.3	37.3	48.8	47.0	35.5	38.0	38.0	56.0	48.2	32.5	47.0
직업	자영업 (122)	42.6	41.8	49.2	32.0	30.3	68.0	36.1	36.1	50.0	46.7	44.3	49.2	44.3	73.0	51.6	32.8	39.3
	블루칼라 (101)	39.6	50.5	49.5	33.7	25.7	65.3	37.6	42.6	61.4	49.5	60.4	61.4	48.5	78.2	39.6	35.6	38.6
	화이트 칼라 (315)	41.0	44.4	54.3	31.7	30.5	61.9	46.7	50.5	65.7	47.0	53.0	60.0	50.8	66.3	48.3	42.9	44.4
	가정주부 (173)	42.8	54.3	61.8	32.4	26.0	61.3	34.1	42.8	57.2	49.7	31.2	41.6	49.1	57.8	41.6	31.8	46.2
	학생 (63)	30.2	30.2	28.6	27.0	25.4	31.7	36.5	36.5	55.6	38.1	77.8	47.6	41.3	57.1	31.7	38.1	33.3
	무직/기타 (26)	34.6	46.2	50.0	46.2	38.5	57.7	30.8	34.6	46.2	42.3	50.0	38.5	38.5	57.7	38.5	38.5	50.0
고용 상태	상용 근로자 (337)	40.1	46.0	52.2	31.5	28.5	62.9	46.0	49.6	63.5	47.8	54.9	58.5	49.0	66.8	43.3	38.9	41.2
	임시 근로자 (비정규직) (74)	47.3	47.3	47.3	37.8	33.8	64.9	39.2	50.0	73.0	58.1	60.8	70.3	62.2	81.1	63.5	54.1	51.4
	일용 근로자 (10)	60.0	70.0	70.0	50.0	60.0	70.0	40.0	40.0	90.0	60.0	50.0	70.0	60.0	80.0	40.0	40.0	70.0
	자영업자 (122)	42.6	41.8	49.2	32.0	30.3	68.0	36.1	36.1	50.0	46.7	44.3	49.2	44.3	73.0	51.6	32.8	39.3
	해당없음/기타 (257)	37.0	46.3	54.9	31.1	25.7	52.5	33.9	38.9	53.7	42.4	42.4	41.6	44.0	56.8	37.7	33.1	42.4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38.1	40.7	49.1	36.3	33.2	52.2	47.8	50.4	65.9	45.1	70.4	59.7	48.7	67.3	45.1	42.9	39.4
	기혼 & 무자녀 (41)	53.7	53.7	48.8	31.7	34.1	85.4	51.2	63.4	58.5	51.2	48.8	58.5	43.9	70.7	36.6	48.8	53.7
	자녀 1명 (112)	35.7	45.5	46.4	27.7	27.7	71.4	42.9	40.2	65.2	49.1	45.5	63.4	59.8	67.0	42.0	42.0	42.9
	자녀 2명 (344)	42.2	49.4	55.8	31.1	27.6	60.5	35.2	40.1	55.5	45.1	41.9	47.7	45.3	65.4	44.5	31.4	43.6
	자녀 3명 이상 (65)	40.0	38.5	55.4	29.2	10.8	52.3	26.2	36.9	52.3	56.9	27.7	32.3	36.9	56.9	50.8	32.3	41.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34.8	50.7	52.2	49.3	34.8	68.1	31.9	43.5	52.2	42.0	53.6	55.1	46.4	69.6	42.0	43.5	44.9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37.1	47.6	52.0	27.9	29.6	65.0	39.1	44.2	62.2	48.3	53.1	58.2	56.8	69.4	46.6	36.1	44.2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45.5	43.1	51.5	33.4	28.1	58.2	42.8	45.5	57.9	45.8	49.5	48.5	44.5	65.6	41.5	37.1	39.5
	600만 원 이상 (138)	39.1	45.7	55.1	30.4	25.4	52.9	39.1	40.6	60.9	49.3	41.3	50.0	37.7	58.0	48.6	38.4	44.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0.9	44.6	51.8	31.9	27.4	56.9	37.5	41.3	56.0	44.8	45.4	41.1	39.9	60.3	41.5	33.5	37.9
	전세 (243)	40.7	51.9	54.7	30.9	29.6	66.3	43.2	46.9	64.6	52.3	56.0	71.6	58.4	75.7	46.5	42.0	51.4
	월세/반전세/기타 (61)	34.4	32.8	47.5	41.0	36.1	68.9	45.9	54.1	67.2	44.3	60.7	73.8	72.1	73.8	62.3	52.5	45.9

14_귀하께서는 신문이나 TV에서 다음의 각각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얻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두렵다' 응답률)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위험	환경 관련 위험
			%	%	%	%	%	%	%
☐ 전체 ☐		(800)	68.8	70.0	59.6	60.0	67.3	48.3	59.6
성별	남자	(388)	64.9	66.0	55.7	55.7	65.7	46.1	58.0
	여자	(412)	72.3	73.8	63.3	64.1	68.7	50.2	61.2
연령	19세~20대	(148)	69.6	65.5	50.0	60.8	65.5	40.5	52.7
	30대	(172)	67.4	72.1	58.7	58.7	75.0	48.3	60.5
	40대	(164)	72.0	73.2	63.4	64.0	70.7	50.0	61.0
	50대	(150)	66.0	68.7	64.0	58.7	65.3	49.3	62.7
	60대 이상	(166)	68.7	69.9	61.4	57.8	59.0	52.4	60.8
직업	자영업	(122)	67.2	70.5	65.6	52.5	65.6	56.6	59.0
	블루칼라	(101)	82.2	81.2	67.3	63.4	73.3	45.5	61.4
	화이트칼라	(315)	65.7	68.3	58.1	63.2	69.5	49.5	60.3
	가정주부	(173)	73.4	75.7	65.3	64.2	66.5	50.9	65.3
	학생	(63)	52.4	49.2	36.5	49.2	57.1	20.6	38.1
	무직/기타	(26)	69.2	57.7	38.5	42.3	53.8	53.8	61.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68.2	70.0	57.9	62.0	68.8	46.9	57.6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70.3	73.0	68.9	68.9	77.0	51.4	71.6
	일용근로자	(10)	80.0	100.0	60.0	80.0	80.0	60.0	80.0
	자영업자	(122)	67.2	70.5	65.6	52.5	65.6	56.6	59.0
	해당없음/ 기타	(257)	69.3	67.7	56.4	57.6	62.6	44.7	58.4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68.1	63.7	51.3	59.3	65.9	45.1	54.4
	기혼 & 무자녀	(41)	80.5	80.5	75.6	68.3	78.0	43.9	63.4
	자녀 1명	(112)	58.9	67.9	63.4	62.5	69.6	51.8	61.6
	자녀 2명	(344)	71.5	73.0	61.0	59.0	66.9	50.0	62.5
	자녀 3명 이상	(65)	67.7	75.4	63.1	58.5	60.0	46.2	58.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71.0	68.1	66.7	68.1	78.3	46.4	65.2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67.7	69.0	63.3	60.9	69.0	50.7	61.6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71.9	72.9	57.9	60.2	66.6	45.2	58.2
	600만 원 이상	(138)	63.0	66.7	52.2	53.6	59.4	50.7	55.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69.2	70.4	54.6	56.3	61.7	46.6	55.8
	전세	(243)	71.2	71.2	69.5	66.3	77.4	51.9	67.9
	월세/반전세/ 기타	(61)	55.7	62.3	60.7	65.6	72.1	47.5	57.4

15_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취하시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례 수	TV 시청 음악 감상	그냥 참는다	타인과의 교류	운동을 한다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다	PC나 스마트폰 이용	문화생활 (영화 감상 등)	여행을 간다	취미, 특기 활동	유용을 즐긴다 (음주 등)	쇼핑을 한다	종교 활동을 한다	
		%	%	%	%	%	%	%	%	%	%	%	%	
☐ 전체 ☐	(800)	49.1	36.4	36.4	35.8	30.8	29.6	22.8	22.1	18.4	17.6	16.6	16.0	
성별	남자	(388)	42.3	38.7	33.2	36.9	26.8	33.2	19.3	20.9	17.8	25.5	7.0	9.5
	여자	(412)	55.6	34.2	39.3	34.7	34.5	26.2	26.0	23.3	18.9	10.2	25.7	22.1
연령	19세~20대	(148)	48.6	30.4	39.2	33.8	34.5	48.6	35.1	20.9	28.4	18.2	19.6	9.5
	30대	(172)	50.0	36.0	41.9	28.5	31.4	34.9	22.1	25.6	20.3	19.2	16.3	14.5
	40대	(164)	49.4	39.6	34.1	33.5	31.1	24.4	15.2	20.1	12.2	21.3	17.7	11.0
	50대	(150)	49.3	38.7	34.7	42.7	24.0	21.3	25.3	20.7	17.3	14.0	12.7	17.3
	60대 이상	(166)	48.2	36.7	31.9	41.0	32.5	19.9	17.5	22.9	14.5	15.1	16.9	27.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8.7	32.4	39.5	35.3	41.2	34.9	23.5	22.7	22.7	13.4	17.2	20.2
	강북서 권역	(144)	50.0	41.7	27.8	33.3	26.4	29.9	21.5	22.2	18.8	18.1	14.6	20.1
	강남동 권역	(170)	48.8	44.1	35.3	41.8	21.8	21.8	21.2	18.2	18.8	17.6	17.6	15.3
	강남서 권역	(248)	49.2	31.9	39.1	33.5	29.4	29.8	23.8	24.2	13.7	21.4	16.5	10.1
직업	자영업	(122)	50.0	33.6	31.1	40.2	25.4	29.5	21.3	23.0	16.4	24.6	9.8	14.8
	블루칼라	(101)	53.5	26.7	37.6	30.7	19.8	28.7	14.9	17.8	17.8	12.9	7.9	7.9
	화이트칼라	(315)	45.7	39.4	38.1	39.4	35.9	31.7	26.3	25.1	21.9	21.9	17.8	17.1
	가정주부	(173)	53.8	38.7	36.4	31.8	31.2	18.5	19.1	19.7	9.2	6.9	25.4	22.5
	학생	(63)	41.3	30.2	34.9	30.2	31.7	54.0	27.0	17.5	23.8	19.0	17.5	4.8
	무직/기타	(26)	57.7	50.0	38.5	30.8	30.8	23.1	30.8	26.9	34.6	19.2	7.7	23.1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45.7	35.6	36.8	38.6	32.9	32.0	24.6	24.6	20.8	21.4	14.8	14.2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54.1	32.4	41.9	37.8	31.1	35.1	28.4	24.3	27.0	13.5	17.6	23.0
	일용근로자	(10)	80.0	50.0	40.0	80.0	40.0	40.0	20.0	20.0	30.0	20.0	20.0	40.0
	자영업자	(122)	50.0	33.6	31.1	40.2	25.4	29.5	21.3	23.0	16.4	24.6	9.8	14.8
	해당없음/기타	(257)	50.6	39.3	36.6	27.6	30.0	24.5	19.5	17.9	13.2	10.5	21.8	16.0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50.9	35.0	36.3	34.1	36.7	47.8	33.2	23.9	29.6	21.2	19.0	13.3
	기혼 & 무자녀	(41)	46.3	36.6	36.6	36.6	39.0	31.7	14.6	26.8	24.4	12.2	14.6	17.1
	자녀 1명	(112)	44.6	42.0	37.5	27.7	30.4	26.8	21.4	26.8	14.3	15.2	17.9	17.0
	자녀 2명	(344)	50.0	36.0	36.9	39.5	27.0	21.2	18.3	22.1	13.4	18.0	15.4	15.4
	자녀 3명 이상	(65)	49.2	27.7	33.8	33.8	23.1	10.8	15.4	6.2	10.8	12.3	13.8	26.2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53.6	40.6	36.2	31.9	21.7	26.1	18.8	17.4	18.8	13.0	13.0	15.9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49.0	37.8	35.7	32.3	34.4	27.9	19.0	15.6	16.0	16.3	15.0	18.7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50.8	34.1	40.5	37.5	28.1	29.8	24.4	27.1	19.1	19.7	18.4	14.0
	600만 원 이상	(138)	43.5	36.2	29.0	41.3	33.3	34.8	29.0	27.5	21.7	18.1	18.1	14.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8.6	33.3	33.1	35.9	30.0	27.4	21.6	23.2	15.7	18.5	16.9	16.5
	전세	(243)	50.2	40.7	42.4	35.4	30.5	30.9	22.2	19.3	19.3	15.6	16.5	14.4
	월세/반전세 /기타	(61)	49.2	44.3	39.3	36.1	37.7	42.6	34.4	24.6	36.1	18.0	14.8	18.0

16_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사례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 (명)
			%	%	%	%	%	%		
▣ 전체 ▣		(800)	3.3	8.1	21.4	30.3	10.1	19.3	7.6	3.5
성별	남자	(388)	2.8	8.0	19.1	31.2	10.3	18.3	10.3	3.7
	여자	(412)	3.6	8.3	23.5	29.4	10.0	20.1	5.1	3.3
연령	19세~20대	(148)	2.0	7.4	14.2	28.4	13.5	20.9	13.5	4.0
	30대	(172)	2.9	4.7	23.8	32.6	15.1	16.3	4.7	3.3
	40대	(164)	3.0	9.8	23.2	26.2	7.9	21.3	8.5	3.4
	50대	(150)	4.0	10.0	20.0	32.7	8.7	19.3	5.3	3.4
	60대 이상	(166)	4.2	9.0	24.7	31.3	5.4	18.7	6.6	3.3
권역	강북동 권역	(238)	3.4	7.6	21.8	26.5	10.9	23.5	6.3	3.5
	강북서 권역	(144)	2.8	6.3	16.7	36.1	11.8	16.0	10.4	3.7
	강남동 권역	(170)	4.7	5.9	22.9	31.8	8.8	20.0	5.9	3.3
	강남서 권역	(248)	2.4	11.3	22.6	29.4	9.3	16.5	8.5	3.5
직업	자영업	(122)	2.5	8.2	16.4	36.9	8.2	19.7	8.2	3.7
	블루칼라	(101)	5.0	10.9	20.8	30.7	11.9	14.9	5.9	3.1
	화이트칼라	(315)	3.5	7.0	22.5	27.9	10.5	20.3	8.3	3.6
	가정주부	(173)	2.3	8.7	24.9	34.1	7.5	18.5	4.0	3.2
	학생	(63)	3.2	4.8	14.3	14.3	19.0	25.4	19.0	4.3
	무직/기타	(26)	3.8	15.4	26.9	38.5	3.8	11.5	0.0	2.6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2.4	6.8	20.5	30.3	11.3	20.2	8.6	3.7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8.1	10.8	29.7	23.0	5.4	16.2	6.8	2.9
	일용근로자	(10)	10.0	20.0	10.0	10.0	20.0	30.0	0.0	3.0
	자영업자	(122)	2.5	8.2	16.4	36.9	8.2	19.7	8.2	3.7
	해당없음/기타	(257)	3.1	8.6	23.0	30.0	10.5	18.3	6.6	3.3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4.9	8.4	17.3	26.1	13.7	18.6	11.1	3.7
	기혼 & 무자녀	(41)	4.9	7.3	31.7	29.3	4.9	14.6	7.3	3.1
	자녀 1명	(112)	2.7	12.5	25.0	32.1	5.4	17.0	5.4	3.2
	자녀 2명	(344)	1.7	7.3	21.2	31.7	10.5	21.2	6.4	3.5
	자녀 3명 이상	(65)	1.5	6.2	20.0	36.9	7.7	20.0	7.7	3.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7.2	10.1	23.2	29.0	8.7	15.9	5.8	3.1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3.7	8.5	24.5	31.3	9.5	17.3	5.1	3.2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2.0	8.0	21.7	32.8	8.7	19.4	7.4	3.4
	600만 원 이상	(138)	2.9	6.5	13.0	23.2	15.2	24.6	14.5	4.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4	8.9	20.8	29.2	10.7	21.0	7.1	3.5
	전세	(243)	3.7	4.9	22.2	34.6	9.5	16.9	8.2	3.5
	월세/반전세/기타	(61)	8.2	14.8	23.0	21.3	8.2	14.8	9.8	3.2

17_귀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례 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시민 단체	공공 기관
			%	%	%	%	%	%	%
■ 전체 ■		(800)	89.8	18.8	55.6	6.4	10.4	3.4	7.5
성별	남자	(388)	90.2	18.8	63.9	4.4	13.7	3.1	7.5
	여자	(412)	89.3	18.7	47.8	8.3	7.3	3.6	7.5
연령	19세~20대	(148)	87.8	9.5	70.3	1.4	3.4	2.0	6.1
	30대	(172)	92.4	19.2	59.3	3.5	15.7	4.7	5.2
	40대	(164)	89.0	20.7	55.5	8.5	14.0	4.9	7.3
	50대	(150)	87.3	20.0	48.0	8.7	6.7	2.0	6.7
	60대 이상	(166)	91.6	23.5	45.8	9.6	10.8	3.0	12.0
권역	강북동 권역	(238)	88.7	25.2	56.7	6.3	12.2	1.3	5.5
	강북서 권역	(144)	91.0	22.2	60.4	6.3	13.2	6.3	9.0
	강남동 권역	(170)	91.8	15.3	63.5	10.6	10.6	3.5	5.3
	강남서 권역	(248)	88.7	12.9	46.4	3.6	6.9	3.6	10.1
직업	자영업	(122)	95.1	18.9	55.7	7.4	8.2	2.5	9.8
	블루칼라	(101)	85.1	17.8	63.4	5.0	8.9	2.0	5.0
	화이트칼라	(315)	88.9	17.5	61.3	3.2	18.1	5.4	8.9
	가정주부	(173)	90.2	26.6	36.4	12.1	2.9	1.2	3.5
	학생	(63)	90.5	3.2	69.8	1.6	1.6	1.6	9.5
	무직/기타	(26)	88.5	23.1	50.0	19.2	3.8	7.7	11.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89.0	17.8	62.3	3.0	17.5	3.9	6.5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83.8	20.3	59.5	1.4	9.5	9.5	12.2
	일용근로자	(10)	100.0	30.0	60.0	30.0	20.0	20.0	40.0
	자영업자	(122)	95.1	18.9	55.7	7.4	8.2	2.5	9.8
	해당없음/기타	(257)	89.5	19.1	45.5	10.9	1.9	0.8	5.1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87.6	8.4	68.6	1.3	8.8	3.1	6.6
	기혼 & 무자녀	(41)	92.7	34.1	43.9	4.9	19.5	4.9	2.4
	자녀 1명	(112)	88.4	20.5	56.3	2.7	14.3	6.3	7.1
	자녀 2명	(344)	92.2	23.3	52.6	9.3	9.9	2.6	8.4
	자녀 3명 이상	(65)	86.2	21.5	35.4	16.9	6.2	1.5	7.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87.0	8.7	39.1	7.2	7.2	5.8	15.9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88.8	21.4	58.2	6.5	8.5	2.7	6.8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90.6	18.7	55.2	5.4	10.0	2.7	7.0
	600만 원 이상	(138)	91.3	18.1	59.4	8.0	16.7	5.1	5.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89.7	17.5	52.0	7.3	8.1	2.6	7.1
	전세	(243)	90.9	23.0	62.6	4.5	11.5	3.7	7.4
	월세/반전세/기타	(61)	85.2	11.5	57.4	6.6	24.6	8.2	11.5

18_지금까지 위험과 관련된 사회이슈에 대하여 다음의 활동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례 수	서명운동 (온라인 포함)	상품불매 운동 (쇠고기등)	인터넷 토론 참여 댓글, 리트윗	촛불집회, 가두집회나 시위 참가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	참여한 적 없음
			%	%	%	%	%	
▣ 전체 ▣		(800)	36.0	10.0	25.4	5.6	24.1	47.9
성별	남자	(388)	35.8	8.8	29.1	6.4	22.7	47.7
	여자	(412)	36.2	11.2	21.8	4.9	25.5	48.1
연령	19세~20대	(148)	38.5	10.8	30.4	4.7	20.3	45.3
	30대	(172)	45.3	10.5	30.8	4.7	23.8	38.4
	40대	(164)	32.3	12.8	26.8	7.3	25.0	47.0
	50대	(150)	30.7	8.7	22.0	7.3	24.7	51.3
	60대 이상	(166)	32.5	7.2	16.9	4.2	26.5	57.8
권역	강북동 권역	(238)	35.7	6.3	21.4	5.5	24.4	49.6
	강북서 권역	(144)	47.2	18.1	35.4	10.4	26.4	37.5
	강남동 권역	(170)	31.8	7.1	21.8	3.5	21.2	54.7
	강남서 권역	(248)	32.7	10.9	25.8	4.4	24.6	47.6
직업	자영업	(122)	31.1	10.7	22.1	3.3	26.2	54.1
	블루칼라	(101)	25.7	4.0	11.9	5.9	17.8	60.4
	화이트칼라	(315)	46.7	15.2	38.1	8.9	33.0	31.7
	가정주부	(173)	24.9	6.4	14.5	1.7	17.3	61.8
	학생	(63)	41.3	4.8	27.0	4.8	9.5	52.4
	무직/기타	(26)	30.8	3.8	7.7	3.8	11.5	61.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42.1	11.9	34.1	7.4	28.2	38.3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45.9	14.9	32.4	8.1	33.8	32.4
	일용근로자	(10)	60.0	20.0	10.0	10.0	50.0	40.0
	자영업자	(122)	31.1	10.7	22.1	3.3	26.2	54.1
	해당없음/기타	(257)	26.5	5.4	14.0	3.5	14.0	62.3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43.8	11.9	31.4	5.3	24.8	39.4
	기혼 & 무자녀	(41)	41.5	14.6	26.8	0.0	31.7	39.0
	자녀 1명	(112)	39.3	11.6	34.8	9.8	25.0	43.8
	자녀 2명	(344)	29.7	8.7	20.9	5.5	23.0	52.9
	자녀 3명 이상	(65)	27.7	4.6	12.3	3.1	18.5	67.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33.3	7.2	14.5	8.7	26.1	53.6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31.6	7.8	22.8	1.7	21.1	51.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36.5	9.0	27.1	6.7	22.4	47.5
	600만 원 이상	(138)	45.7	18.1	32.6	10.1	33.3	38.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32.5	9.1	23.0	4.6	22.6	51.4
	전세	(243)	37.9	11.1	28.8	6.6	25.5	44.4
	월세/반전세/기타	(61)	57.4	13.1	31.1	9.8	31.1	32.8

19_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	%	%	%	%	%	%	
■ 전체 ■		(800)	2.5	28.0	44.4	22.1	3.0	30.5	25.1	2.95
성별	남자	(388)	3.4	29.9	40.7	22.4	3.6	33.2	26.0	2.93
	여자	(412)	1.7	26.2	47.8	21.8	2.4	27.9	24.3	2.97
연령	19세~20대	(148)	2.7	27.0	46.6	19.6	4.1	29.7	23.6	2.95
	30대	(172)	1.7	32.0	41.9	21.5	2.9	33.7	24.4	2.92
	40대	(164)	1.8	25.6	42.1	26.2	4.3	27.4	30.5	3.05
	50대	(150)	3.3	30.7	46.7	17.3	2.0	34.0	19.3	2.84
	60대 이상	(166)	3.0	24.7	45.2	25.3	1.8	27.7	27.1	2.98
권역	강북동 권역	(238)	2.5	27.3	46.6	21.0	2.5	29.8	23.5	2.94
	강북서 권역	(144)	2.1	29.9	50.0	17.4	0.7	31.9	18.1	2.85
	강남동 권역	(170)	2.9	29.4	34.1	27.1	6.5	32.4	33.5	3.05
	강남서 권역	(248)	2.4	26.6	46.0	22.6	2.4	29.0	25.0	2.96
직업	자영업	(122)	2.5	27.9	41.0	24.6	4.1	30.3	28.7	3.00
	블루칼라	(101)	3.0	26.7	39.6	27.7	3.0	29.7	30.7	3.01
	화이트칼라	(315)	3.5	31.7	41.6	21.3	1.9	35.2	23.2	2.86
	가정주부	(173)	1.2	22.0	54.3	19.1	3.5	23.1	22.5	3.02
	학생	(63)	1.6	23.8	46.0	23.8	4.8	25.4	28.6	3.06
	무직/기타	(26)	0.0	38.5	42.3	15.4	3.8	38.5	19.2	2.8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3.0	30.0	41.5	23.7	1.8	32.9	25.5	2.91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5.4	29.7	41.9	20.3	2.7	35.1	23.0	2.85
	일용근로자	(10)	0.0	30.0	50.0	20.0	0.0	30.0	20.0	2.90
	자영업자	(122)	2.5	27.9	41.0	24.6	4.1	30.3	28.7	3.00
	해당없음/기타	(257)	1.2	24.9	50.2	19.5	4.3	26.1	23.7	3.01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2.7	30.5	42.9	20.8	3.1	33.2	23.9	2.91
	기혼 & 무자녀	(41)	9.8	22.0	43.9	24.4	0.0	31.7	24.4	2.83
	자녀 1명	(112)	1.8	25.9	50.9	19.6	1.8	27.7	21.4	2.94
	자녀 2명	(344)	2.3	28.2	43.0	23.5	2.9	30.5	26.5	2.97
	자녀 3명 이상	(65)	0.0	23.1	47.7	23.1	6.2	23.1	29.2	3.12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2.9	31.9	42.0	23.2	0.0	34.8	23.2	2.86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2.7	27.2	44.2	20.7	5.1	29.9	25.9	2.98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1.3	28.4	44.8	23.4	2.0	29.8	25.4	2.96
	600만 원 이상	(138)	4.3	26.8	44.9	21.7	2.2	31.2	23.9	2.91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4	26.6	46.4	22.6	2.0	29.0	24.6	2.95
	전세	(243)	1.2	30.9	42.8	20.6	4.5	32.1	25.1	2.96
	월세/반전세/기타	(61)	8.2	27.9	34.4	24.6	4.9	36.1	29.5	2.90

20_귀하께서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 서울시가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많다" 응답률)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치/ 대외관계 위험	환경 관련 위험
			%	%	%	%	%	%	%
▣ 전체 ▣		(800)	54.0	57.6	56.8	69.3	70.4	43.5	51.1
성별	남자	(388)	52.3	57.2	51.8	67.5	66.8	41.0	46.1
	여자	(412)	55.6	58.0	61.4	70.9	73.8	45.9	55.8
연령	19세~20대	(148)	53.4	54.7	59.5	64.2	75.7	43.2	48.6
	30대	(172)	45.9	57.0	55.8	68.6	67.4	43.0	48.3
	40대	(164)	59.8	61.0	55.5	70.1	72.6	43.9	51.8
	50대	(150)	56.7	58.0	61.3	70.7	70.7	44.0	54.0
	60대 이상	(166)	54.8	57.2	52.4	72.3	66.3	43.4	53.0
권역	강북동 권역	(238)	58.4	52.9	61.3	72.3	73.1	44.1	53.4
	강북서 권역	(144)	60.4	59.7	64.6	69.4	68.8	33.3	55.6
	강남동 권역	(170)	48.8	61.8	54.7	71.2	79.4	57.1	60.6
	강남서 권역	(248)	49.6	58.1	49.2	64.9	62.5	39.5	39.9
직업	자영업	(122)	58.2	59.0	57.4	73.0	68.0	49.2	52.5
	블루칼라	(101)	50.5	64.4	66.3	75.2	77.2	38.6	43.6
	화이트칼라	(315)	53.3	55.2	55.6	69.8	67.6	41.3	52.4
	가정주부	(173)	54.9	57.8	54.9	67.6	73.4	48.6	54.9
	학생	(63)	49.2	47.6	54.0	55.6	69.8	33.3	39.7
	무직/기타	(26)	61.5	76.9	50.0	65.4	69.2	53.8	61.5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50.0	56.6	59.3	66.8	73.0	44.2	50.9
	기혼 & 무자녀	(41)	70.7	56.1	53.7	78.0	75.6	51.2	70.7
	자녀 1명	(112)	53.6	50.9	48.2	70.5	66.1	44.6	49.1
	자녀 2명	(344)	54.7	59.6	58.7	68.6	69.5	40.4	49.1
	자녀 3명 이상	(65)	52.3	60.0	52.3	73.8	69.2	52.3	52.3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49.3	58.0	68.1	71.0	82.6	47.8	56.5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53.4	60.9	57.8	74.1	72.1	45.2	51.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52.8	54.2	55.2	64.9	66.6	41.1	47.8
	600만 원 이상	(138)	60.1	58.0	52.2	67.4	68.8	42.8	55.1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52.6	55.8	55.0	67.7	66.7	41.7	49.2
	전세	(243)	58.0	63.4	58.4	72.0	75.3	46.5	55.1
	월세/반전세/기타	(61)	49.2	49.2	63.9	70.5	80.3	45.9	50.8

21_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위험, 재난, 안전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	%	%	%	%	%	%	
■ 전체 ■		(800)	7.3	35.0	41.6	14.9	1.3	42.3	16.1	2.68
성별	남자	(388)	7.5	35.3	37.9	17.3	2.1	42.8	19.3	2.71
	여자	(412)	7.0	34.7	45.1	12.6	0.5	41.7	13.1	2.65
연령	19세~20대	(148)	7.4	34.5	44.6	10.8	2.7	41.9	13.5	2.67
	30대	(172)	5.8	34.9	45.3	11.6	2.3	40.7	14.0	2.70
	40대	(164)	4.9	35.4	39.6	19.5	0.6	40.2	20.1	2.76
	50대	(150)	10.7	33.3	40.7	14.7	0.7	44.0	15.3	2.61
	60대 이상	(166)	7.8	36.7	38.0	17.5	0.0	44.6	17.5	2.65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0.5	38.2	37.0	13.4	0.8	48.7	14.3	2.56
	강북서 권역	(144)	4.9	29.2	34.0	28.5	3.5	34.0	31.9	2.97
	강남동 권역	(170)	7.1	31.8	52.4	8.8	0.0	38.8	8.8	2.63
	강남서 권역	(248)	5.6	37.5	43.1	12.5	1.2	43.1	13.7	2.66
직업	자영업	(122)	3.3	40.2	40.2	14.8	1.6	43.4	16.4	2.71
	블루칼라	(101)	3.0	42.6	40.6	12.9	1.0	45.5	13.9	2.66
	화이트칼라	(315)	10.5	31.7	40.6	15.6	1.6	42.2	17.1	2.66
	가정주부	(173)	6.9	35.8	44.5	12.7	0.0	42.8	12.7	2.63
	학생	(63)	7.9	27.0	46.0	15.9	3.2	34.9	19.0	2.79
	무직/기타	(26)	3.8	34.6	34.6	26.9	0.0	38.5	26.9	2.85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8.6	32.9	41.2	15.7	1.5	41.5	17.2	2.69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5.4	45.9	35.1	12.2	1.4	51.4	13.5	2.58
	일용근로자	(10)	10.0	60.0	20.0	10.0	0.0	70.0	10.0	2.30
	자영업자	(122)	3.3	40.2	40.2	14.8	1.6	43.4	16.4	2.71
	해당없음/기타	(257)	7.8	31.1	45.5	14.8	0.8	38.9	15.6	2.70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6.2	35.8	43.4	12.8	1.8	42.0	14.6	2.68
	기혼 & 무자녀	(41)	7.3	46.3	24.4	19.5	2.4	53.7	22.0	2.63
	자녀 1명	(112)	6.3	25.0	53.6	13.4	1.8	31.3	15.2	2.79
	자녀 2명	(344)	9.0	34.3	40.4	15.7	0.6	43.3	16.3	2.65
	자녀 3명 이상	(65)	4.6	47.7	30.8	16.9	0.0	52.3	16.9	2.6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0.1	29.0	39.1	20.3	1.4	39.1	21.7	2.74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5.1	35.7	41.8	16.0	1.4	40.8	17.3	2.73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7.4	32.1	44.1	15.1	1.3	39.5	16.4	2.71
	600만 원 이상	(138)	10.1	42.8	37.0	9.4	0.7	52.9	10.1	2.4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7.5	36.9	39.7	15.3	0.6	44.4	15.9	2.65
	전세	(243)	6.6	32.9	44.9	14.0	1.6	39.5	15.6	2.71
	월세/반전세/기타	(61)	8.2	27.9	44.3	14.8	4.9	36.1	19.7	2.80

22.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정보 각각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대체로 '신뢰한다' 응답률)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언론	주변인
			%	%	%	%	%
■ 전체 ■		(800)	45.1	36.0	17.1	19.8	32.0
성별	남자	(388)	43.6	34.0	17.5	21.6	30.7
	여자	(412)	46.6	37.9	16.7	18.0	33.3
연령	19세~20대	(148)	50.0	33.1	15.5	16.9	31.8
	30대	(172)	44.2	39.5	13.4	16.9	32.6
	40대	(164)	41.5	39.6	14.6	18.9	32.3
	50대	(150)	44.0	38.0	16.0	20.0	29.3
	60대 이상	(166)	46.4	29.5	25.9	25.9	33.7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2.4	21.4	20.2	21.0	31.5
	강북서 권역	(144)	47.9	42.4	14.6	16.0	29.2
	강남동 권역	(170)	38.8	32.4	13.5	15.9	27.6
	강남서 권역	(248)	50.4	48.8	18.1	23.4	37.1
직업	자영업	(122)	46.7	32.0	23.0	26.2	31.1
	블루칼라	(101)	43.6	37.6	12.9	19.8	30.7
	화이트칼라	(315)	41.6	42.2	14.0	16.5	31.1
	가정주부	(173)	46.8	31.8	19.1	20.8	37.0
	학생	(63)	60.3	23.8	23.8	22.2	33.3
	무직/기타	(26)	38.5	30.8	15.4	15.4	15.4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46.3	42.4	15.1	17.5	32.3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24.3	32.4	9.5	14.9	25.7
	일용근로자	(10)	60.0	50.0	20.0	40.0	20.0
	자영업자	(122)	46.7	32.0	23.0	26.2	31.1
	해당없음/기타	(257)	48.2	30.0	19.1	20.2	34.2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46.0	34.1	12.8	17.7	29.2
	기혼 & 무자녀	(41)	36.6	39.0	14.6	19.5	26.8
	자녀 1명	(112)	50.9	46.4	19.6	20.5	29.5
	자녀 2명	(344)	45.9	35.2	19.2	19.5	32.8
	자녀 3명 이상	(65)	38.5	24.6	21.5	30.8	44.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36.2	36.2	15.9	11.6	24.6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46.6	35.4	16.3	19.4	32.0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45.8	34.8	19.4	21.1	33.8
	600만 원 이상	(138)	44.9	39.9	14.5	21.7	31.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48.0	36.7	18.8	21.6	33.3
	전세	(243)	42.8	37.4	15.6	16.9	30.5
	월세/반전세/기타	(61)	31.1	24.6	9.8	16.4	27.9

23_귀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다음 대처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안전규제 를 더 강화해야	안전관리 정부기관 활동이 강화되어야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안전기기 관리시스 템 등을 활용해야	지자체 단위의 안전감시 시스템을 만든다	계
			%	%	%	%	%	%	%
■ 전체 ■		(800)	10.8	35.6	26.0	4.5	17.8	5.4	100.0
성별	남자	(388)	13.1	35.6	25.0	6.7	13.7	5.9	100.0
	여자	(412)	8.5	35.7	26.9	2.4	21.6	4.9	100.0
연령	19세~20대	(148)	10.8	37.8	23.6	3.4	18.2	6.1	100.0
	30대	(172)	9.3	39.5	23.8	5.8	16.9	4.7	100.0
	40대	(164)	11.0	34.8	25.0	6.1	19.5	3.7	100.0
	50대	(150)	9.3	34.0	26.7	4.7	20.0	5.3	100.0
	60대 이상	(166)	13.3	31.9	30.7	2.4	14.5	7.2	100.0
권역	강북동 권역	(238)	9.7	34.9	25.6	3.4	19.7	6.7	100.0
	강북서 권역	(144)	9.7	39.6	27.1	7.6	12.5	3.5	100.0
	강남동 권역	(170)	10.0	32.4	27.6	1.2	25.3	3.5	100.0
	강남서 권역	(248)	12.9	36.3	24.6	6.0	13.7	6.5	100.0
직업	자영업	(122)	15.6	36.9	29.5	3.3	11.5	3.3	100.0
	블루칼라	(101)	10.9	34.7	24.8	3.0	20.8	5.9	100.0
	화이트칼라	(315)	7.3	36.8	26.0	7.6	16.8	5.4	100.0
	가정주부	(173)	13.3	34.1	26.6	0.6	20.2	5.2	100.0
	학생	(63)	11.1	36.5	17.5	4.8	23.8	6.3	100.0
	무직/기타	(26)	11.5	26.9	30.8	3.8	15.4	11.5	100.0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8.9	36.5	25.8	6.8	17.2	4.7	100.0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6.8	40.5	24.3	2.7	20.3	5.4	100.0
	일용근로자	(10)	0.0	50.0	20.0	10.0	20.0	0.0	100.0
	자영업자	(122)	15.6	36.9	29.5	3.3	11.5	3.3	100.0
	해당없음/기타	(257)	12.5	31.9	25.3	2.3	20.6	7.4	100.0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10.6	37.6	21.7	4.0	20.4	5.8	100.0
	기혼 & 무자녀	(41)	2.4	46.3	24.4	4.9	9.8	12.2	100.0
	자녀 1명	(112)	13.4	32.1	22.3	6.3	21.4	4.5	100.0
	자녀 2명	(344)	10.2	34.9	29.9	3.8	16.0	5.2	100.0
	자녀 3명 이상	(65)	16.9	36.9	29.2	1.5	13.8	1.5	10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1.6	27.5	24.6	7.2	21.7	7.2	100.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8.8	37.4	25.5	3.1	20.1	5.1	100.0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12.7	38.1	24.7	4.3	14.0	6.0	100.0
	600만 원 이상	(138)	10.1	30.4	30.4	6.5	18.8	3.6	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11.7	35.3	26.6	3.8	17.3	5.2	100.0
	전세	(243)	9.5	35.8	26.3	5.3	18.1	4.9	100.0
	월세/반전세/기타	(61)	8.2	37.7	19.7	6.6	19.7	8.2	100.0

24_귀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 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	%	%	%	%	%	%	
▣ 전체 ▣		(800)	7.5	43.4	37.5	11.4	.3	50.9	11.6	2.54
성별	남자	(388)	8.2	41.5	38.1	11.9	.3	49.7	12.1	2.54
	여자	(412)	6.8	45.1	36.9	10.9	.2	51.9	11.2	2.53
연령	19세~20대	(148)	9.5	39.2	40.5	9.5	1.4	48.6	10.8	2.54
	30대	(172)	9.9	34.9	38.4	16.9	.0	44.8	16.9	2.62
	40대	(164)	4.9	45.1	39.0	11.0	.0	50.0	11.0	2.56
	50대	(150)	6.7	52.7	31.3	9.3	.0	59.3	9.3	2.43
	60대 이상	(166)	6.6	45.8	38.0	9.6	.0	52.4	9.6	2.5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7.6	42.9	36.6	13.0	.0	50.4	13.0	2.55
	강북서 권역	(144)	9.7	38.2	40.3	11.8	.0	47.9	11.8	2.54
	강남동 권역	(170)	6.5	42.9	38.2	11.8	.6	49.4	12.4	2.57
	강남서 권역	(248)	6.9	47.2	36.3	9.3	.4	54.0	9.7	2.49
직업	자영업	(122)	2.5	52.5	34.4	10.7	.0	54.9	10.7	2.53
	블루칼라	(101)	4.0	45.5	40.6	9.9	.0	49.5	9.9	2.56
	화이트칼라	(315)	11.1	42.2	36.5	10.2	.0	53.3	10.2	2.46
	가정주부	(173)	4.0	44.5	37.6	13.9	.0	48.6	13.9	2.61
	학생	(63)	17.5	27.0	39.7	12.7	3.2	44.4	15.9	2.57
	무직/기타	(26)	.0	38.5	46.2	15.4	.0	38.5	15.4	2.77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10.1	41.8	35.9	12.2	.0	51.9	12.2	2.50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13.5	48.6	33.8	2.7	1.4	62.2	4.1	2.30
	일용근로자	(10)	.0	30.0	70.0	.0	.0	30.0	.0	2.70
	자영업자	(122)	2.5	52.5	34.4	10.7	.0	54.9	10.7	2.53
	해당없음/기타	(257)	5.1	40.1	40.9	13.6	.4	45.1	14.0	2.64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12.4	43.4	34.5	8.8	.9	55.8	9.7	2.42
	기혼 & 무자녀	(41)	9.8	31.7	39.0	19.5	.0	41.5	19.5	2.68
	자녀 1명	(112)	6.3	40.2	39.3	14.3	.0	46.4	14.3	2.62
	자녀 2명	(344)	5.5	47.1	36.6	10.8	.0	52.6	10.8	2.53
	자녀 3명 이상	(65)	3.1	35.4	47.7	13.8	.0	38.5	13.8	2.72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5.8	37.7	42.0	13.0	1.4	43.5	14.5	2.67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7.8	39.5	39.1	13.6	.0	47.3	13.6	2.59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6.7	45.8	37.5	9.7	.3	52.5	10.0	2.51
	600만 원 이상	(138)	9.4	49.3	31.9	9.4	.0	58.7	9.4	2.41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7.7	45.8	36.1	10.3	.2	53.4	10.5	2.50
	전세	(243)	6.2	38.3	40.3	15.2	.0	44.4	15.2	2.65
	월세/반전세/기타	(61)	11.5	44.3	37.7	4.9	1.6	55.7	6.6	2.41

25_귀하는 귀하의 안전의식 수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평균 (5점)
			매우 낮다 %	다소 낮다 %	보통 이다 %	다소 높다 %	매우 높다 %	%	%	
▣ 전체 ▣		(800)	.9	17.5	53.6	25.1	2.9	18.4	28.0	3.12
성별	남자	(388)	.5	15.5	54.6	25.8	3.6	16.0	29.4	3.16
	여자	(412)	1.2	19.4	52.7	24.5	2.2	20.6	26.7	3.07
연령	19세~20대	(148)	2.0	20.3	48.6	23.6	5.4	22.3	29.1	3.10
	30대	(172)	.6	18.6	51.2	27.9	1.7	19.2	29.7	3.12
	40대	(164)	.6	14.0	61.0	23.2	1.2	14.6	24.4	3.10
	50대	(150)	.7	18.0	57.3	21.3	2.7	18.7	24.0	3.07
	60대 이상	(166)	.6	16.9	50.0	28.9	3.6	17.5	32.5	3.18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3	21.4	54.6	20.6	2.1	22.7	22.7	3.01
	강북서 권역	(144)	.0	13.9	56.9	28.5	.7	13.9	29.2	3.16
	강남동 권역	(170)	1.8	14.7	47.1	33.5	2.9	16.5	36.5	3.21
	강남서 권역	(248)	.4	17.7	55.2	21.8	4.8	18.1	26.6	3.13
직업	자영업	(122)	.8	13.1	57.4	27.9	.8	13.9	28.7	3.15
	블루칼라	(101)	.0	12.9	69.3	15.8	2.0	12.9	17.8	3.07
	화이트칼라	(315)	1.3	17.8	50.8	26.0	4.1	19.0	30.2	3.14
	가정주부	(173)	.0	22.5	52.0	24.3	1.2	22.5	25.4	3.04
	학생	(63)	1.6	19.0	41.3	31.7	6.3	20.6	38.1	3.22
	무직/기타	(26)	3.8	15.4	50.0	26.9	3.8	19.2	30.8	3.12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9	16.9	54.0	24.3	3.9	17.8	28.2	3.13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1.4	13.5	60.8	21.6	2.7	14.9	24.3	3.11
	일용근로자	(10)	.0	10.0	50.0	30.0	10.0	10.0	40.0	3.40
	자영업자	(122)	.8	13.1	57.4	27.9	.8	13.9	28.7	3.15
	해당없음/기타	(257)	.8	21.8	49.4	25.7	2.3	22.6	28.0	3.07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2.2	19.5	49.1	24.3	4.9	21.7	29.2	3.10
	기혼 & 무자녀	(41)	2.4	12.2	53.7	26.8	4.9	14.6	31.7	3.20
	자녀 1명	(112)	.0	16.1	50.9	31.3	1.8	16.1	33.0	3.19
	자녀 2명	(344)	.0	18.9	56.7	23.3	1.2	18.9	24.4	3.07
	자녀 3명 이상	(65)	1.5	9.2	58.5	26.2	4.6	10.8	30.8	3.23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1.4	14.5	58.0	24.6	1.4	15.9	26.1	3.1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1.0	16.3	53.1	26.5	3.1	17.3	29.6	3.1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7	17.4	58.9	20.4	2.7	18.1	23.1	3.07
	600만 원 이상	(138)	.7	21.7	41.3	32.6	3.6	22.5	36.2	3.17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8	19.2	53.4	23.8	2.8	20.0	26.6	3.09
	전세	(243)	.4	14.0	54.7	29.6	1.2	14.4	30.9	3.17
	월세/반전세/기타	(61)	3.3	18.0	50.8	18.0	9.8	21.3	27.9	3.13

26_귀하께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사회가 다음 각각의 설명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평균(5점 기준)			
			위험←중간→안전 1.....3.....5	불신←중간→신뢰 1.....3.....5	차별 소외←중간→포용 1.....3.....5	배려 정체←중간→역동 1.....3.....5
■ 전체 ■		(800)	2.80	2.47	2.33	3.22
성별	남자	(388)	2.85	2.51	2.38	3.20
	여자	(412)	2.74	2.43	2.29	3.24
연령	19세~20대	(148)	2.76	2.31	2.26	3.22
	30대	(172)	2.78	2.52	2.29	3.20
	40대	(164)	2.80	2.45	2.26	3.27
	50대	(150)	2.81	2.49	2.39	3.21
	60대 이상	(166)	2.83	2.56	2.46	3.2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2.68	2.42	2.31	3.11
	강북서 권역	(144)	2.90	2.60	2.40	3.33
	강남동 권역	(170)	2.91	2.59	2.37	3.22
	강남서 권역	(248)	2.76	2.36	2.29	3.28
직업	자영업	(122)	2.87	2.53	2.32	3.20
	블루칼라	(101)	2.73	2.48	2.41	3.38
	화이트칼라	(315)	2.75	2.40	2.28	3.16
	가정주부	(173)	2.79	2.53	2.37	3.25
	학생	(63)	3.00	2.49	2.38	3.27
	무직/기타	(26)	2.85	2.50	2.42	3.23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2.77	2.42	2.30	3.25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2.64	2.27	2.27	3.00
	일용근로자	(10)	2.40	2.50	2.30	3.40
	자영업자	(122)	2.87	2.53	2.32	3.20
	해당없음/기타	(257)	2.85	2.56	2.40	3.25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2.75	2.37	2.22	3.15
	기혼 & 무자녀	(41)	2.76	2.54	2.17	3.12
	자녀 1명	(112)	2.76	2.38	2.32	3.25
	자녀 2명	(344)	2.83	2.51	2.40	3.24
	자녀 3명 이상	(65)	2.82	2.63	2.42	3.31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2.77	2.51	2.38	3.33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2.81	2.46	2.28	3.19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2.80	2.47	2.37	3.23
	600만 원 이상	(138)	2.77	2.46	2.34	3.22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83	2.53	2.41	3.26
	전세	(243)	2.74	2.38	2.19	3.14
	월세/반전세/기타	(61)	2.77	2.34	2.26	3.28

27_귀하는 서울 도시의 새로운 위협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중요하다' 응답률)				
			노후불안	주거문제	청년실업	출산보육 문제	근로빈곤
			%	%	%	%	%
▣ 전체 ▣		(800)	85.1	88.1	87.4	79.6	81.6
성별	남자	(388)	82.7	86.3	86.6	79.6	81.4
	여자	(412)	87.4	89.8	88.1	79.6	81.8
연령	19세~20대	(148)	79.1	87.8	92.6	79.7	85.8
	30대	(172)	81.4	89.5	86.0	82.0	80.2
	40대	(164)	87.2	88.4	84.8	78.7	84.1
	50대	(150)	86.0	86.7	86.7	74.7	78.0
	60대 이상	(166)	91.6	88.0	87.3	82.5	80.1
권역	강북동 권역	(238)	84.9	86.1	86.1	73.9	79.4
	강북서 권역	(144)	83.3	86.8	86.1	81.3	87.5
	강남동 권역	(170)	88.2	90.0	89.4	78.8	87.1
	강남서 권역	(248)	84.3	89.5	87.9	84.7	76.6
직업	자영업	(122)	87.7	89.3	91.8	82.8	82.8
	블루칼라	(101)	89.1	94.1	88.1	83.2	83.2
	화이트칼라	(315)	83.2	85.4	85.4	79.0	81.0
	가정주부	(173)	89.6	90.2	85.5	78.0	80.3
	학생	(63)	69.8	82.5	92.1	77.8	84.1
	무직/기타	(26)	88.5	92.3	88.5	73.1	80.8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85.2	85.5	84.6	78.6	79.8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83.8	93.2	90.5	87.8	87.8
	일용근로자	(10)	70.0	80.0	100.0	70.0	80.0
	자영업자	(122)	87.7	89.3	91.8	82.8	82.8
	해당없음/기타	(257)	84.8	89.9	87.5	77.4	81.7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81.9	89.4	90.7	77.4	84.5
	기혼 & 무자녀	(41)	87.8	90.2	85.4	90.2	87.8
	자녀 1명	(112)	83.9	86.6	84.8	80.4	78.6
	자녀 2명	(344)	87.8	88.4	86.6	81.1	80.8
	자녀 3명 이상	(65)	80.0	83.1	84.6	70.8	75.4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85.5	87.0	88.4	81.2	87.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82.7	89.8	87.4	81.3	82.7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88.0	88.3	85.6	76.9	79.9
	600만 원 이상	(138)	84.1	84.8	90.6	81.2	80.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84.9	86.3	87.9	78.8	80.2
	전세	(243)	86.8	91.8	84.8	81.1	83.5
	월세/반전세/기타	(61)	80.3	88.5	93.4	80.3	85.2

28_ 각각의 사회 문제들이 귀하의 생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있다' 응답률)				
			노후불안	주거문제	청년실업	출산보육 문제	근로빈곤
			%	%	%	%	%
▣ 전체 ▣		(800)	60.3	64.6	54.1	46.3	52.0
성별	남자	(388)	58.5	65.5	54.4	47.7	52.3
	여자	(412)	61.9	63.8	53.9	44.9	51.7
연령	19세~20대	(148)	48.6	72.3	78.4	58.8	65.5
	30대	(172)	56.4	76.2	57.6	58.7	51.2
	40대	(164)	67.1	67.7	45.7	40.2	51.2
	50대	(150)	62.0	56.7	46.7	37.3	46.7
	60대 이상	(166)	66.3	50.0	44.0	36.1	46.4
권역	강북동 권역	(238)	66.0	68.5	54.6	51.3	58.0
	강북서 권역	(144)	66.0	65.3	52.1	53.5	61.1
	강남동 권역	(170)	55.9	60.0	57.1	37.6	45.9
	강남서 권역	(248)	54.4	63.7	52.8	43.1	45.2
직업	자영업	(122)	59.0	61.5	48.4	36.9	49.2
	블루칼라	(101)	58.4	67.3	49.5	38.6	49.5
	화이트칼라	(315)	64.8	72.1	58.1	57.8	59.7
	가정주부	(173)	63.6	56.1	43.4	35.3	38.2
	학생	(63)	34.9	58.7	79.4	50.8	58.7
	무직/기타	(26)	57.7	50.0	61.5	42.3	57.7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52.2	72.1	74.3	53.5	63.3
	기혼 & 무자녀	(41)	75.6	68.3	43.9	48.8	56.1
	자녀 1명	(112)	62.5	67.9	44.6	42.9	51.8
	자녀 2명	(344)	62.5	60.8	49.1	44.5	46.2
	자녀 3명 이상	(65)	61.5	50.8	35.4	38.5	38.5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71.0	68.1	50.7	42.0	63.8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60.5	67.0	53.4	48.3	52.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58.2	63.2	54.2	43.5	50.2
	600만 원 이상	(138)	58.7	60.9	57.2	50.0	49.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56.9	55.0	51.8	41.7	47.4
	전세	(243)	65.8	79.4	56.4	56.4	57.6
	월세/반전세/기타	(61)	65.6	83.6	63.9	42.6	67.2

29_ 각각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있다' 응답률)				
			노후불안	주거문제	청년실업	출산보육 문제	근로빈곤
			%	%	%	%	%
▣ 전체 ▣		(800)	70.0	83.4	70.5	67.9	65.8
성별	남자	(388)	66.2	80.9	62.1	65.2	59.5
	여자	(412)	73.5	85.7	78.4	70.4	71.6
연령	19세~20대	(148)	72.3	85.1	76.4	68.2	73.0
	30대	(172)	65.1	86.0	75.0	72.7	65.1
	40대	(164)	70.7	82.9	67.7	67.1	64.0
	50대	(150)	65.3	81.3	62.7	64.0	60.0
	60대 이상	(166)	76.5	81.3	70.5	66.9	66.9
권역	강북동 권역	(238)	73.5	85.3	75.2	71.0	72.7
	강북서 권역	(144)	73.6	83.3	59.7	68.1	61.1
	강남동 권역	(170)	73.5	83.5	73.5	68.2	68.2
	강남서 권역	(248)	62.1	81.5	70.2	64.5	60.1
직업	자영업	(122)	63.1	82.8	70.5	63.1	59.0
	블루칼라	(101)	74.3	83.2	75.2	69.3	64.4
	화이트칼라	(315)	70.2	82.9	66.7	69.5	64.8
	가정주부	(173)	72.8	84.4	76.3	69.9	71.1
	학생	(63)	63.5	85.7	69.8	65.1	68.3
	무직/기타	(26)	80.8	80.8	61.5	57.7	73.1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70.6	84.9	68.8	70.0	63.8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73.0	78.4	71.6	71.6	73.0
	일용근로자	(10)	70.0	60.0	70.0	60.0	80.0
	자영업자	(122)	63.1	82.8	70.5	63.1	59.0
	해당없음/기타	(257)	71.6	84.0	72.4	66.5	68.9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72.1	83.6	75.7	65.5	70.8
	기혼 & 무자녀	(41)	78.0	85.4	63.4	75.6	68.3
	자녀 1명	(112)	63.4	83.9	60.7	68.8	66.1
	자녀 2명	(344)	69.5	83.7	72.4	68.9	62.5
	자녀 3명 이상	(65)	69.2	76.9	66.2	66.2	63.1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75.4	82.6	66.7	71.0	71.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69.4	86.1	73.1	73.8	66.7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67.9	83.3	69.2	63.2	64.9
	600만 원 이상	(138)	73.2	78.3	69.6	63.8	63.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70.2	81.5	69.6	65.5	63.3
	전세	(243)	70.8	87.7	70.8	72.4	68.7
	월세/반전세/기타	(61)	65.6	82.0	77.0	68.9	73.8

30_귀하께서는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노후불안 (노인빈곤, 노인우울증, 자살 등)	주거문제 (집값상승, 전세대란 등)	청년실업 (고용불안, 이태백 등)	출산보육 문제 (출산기피, 저출산)	근로빈곤 (비정규직 증가/차별, 워킹푸어 등)	계 %
			%	%	%	%	%	
▣ 전체 ▣		(800)	16.9	32.0	28.9	11.6	10.6	100.0
성별	남자	(388)	17.5	30.7	29.4	11.9	10.6	100.0
	여자	(412)	16.3	33.3	28.4	11.4	10.7	100.0
연령	19세~20대	(148)	6.1	25.7	49.3	6.8	12.2	100.0
	30대	(172)	6.4	45.9	23.3	19.2	5.2	100.0
	40대	(164)	13.4	36.6	23.8	10.4	15.9	100.0
	50대	(150)	24.7	34.0	21.3	8.0	12.0	100.0
	60대 이상	(166)	33.7	16.9	28.3	12.7	8.4	100.0
권역	강북동 권역	(238)	19.3	31.9	31.5	9.2	8.0	100.0
	강북서 권역	(144)	18.8	29.9	31.9	8.3	11.1	100.0
	강남동 권역	(170)	14.7	36.5	25.3	11.8	11.8	100.0
	강남서 권역	(248)	14.9	30.2	27.0	15.7	12.1	100.0
직업	자영업	(122)	20.5	25.4	31.1	10.7	12.3	100.0
	블루칼라	(101)	22.8	33.7	27.7	9.9	5.9	100.0
	화이트칼라	(315)	11.7	38.4	24.8	14.6	10.5	100.0
	가정주부	(173)	24.3	28.9	26.6	10.4	9.8	100.0
	학생	(63)	4.8	25.4	49.2	4.8	15.9	100.0
	무직/기타	(26)	19.2	15.4	38.5	11.5	15.4	100.0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12.5	38.6	25.5	14.8	8.6	100.0
	임시근로자(비정규직)	(74)	18.9	32.4	24.3	8.1	16.2	100.0
	일용근로자	(10)	20.0	20.0	40.0	10.0	10.0	100.0
	자영업자	(122)	20.5	25.4	31.1	10.7	12.3	100.0
	해당없음/기타	(257)	20.2	26.8	33.1	8.9	10.9	100.0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6.6	30.5	38.9	10.2	13.7	100.0
	기혼 & 무자녀	(41)	24.4	46.3	17.1	7.3	4.9	100.0
	자녀 1명	(112)	23.2	35.7	19.6	17.9	3.6	100.0
	자녀 2명	(344)	18.3	33.4	26.2	10.8	11.3	100.0
	자녀 3명 이상	(65)	27.7	16.9	30.8	15.4	9.2	100.0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26.1	26.1	26.1	8.7	13.0	100.0
	200만 원~400만 원 미만	(294)	19.7	31.6	26.2	11.6	10.9	100.0
	400만 원~600만 원 미만	(299)	13.0	34.1	32.1	12.0	8.7	100.0
	600만 원 이상	(138)	14.5	31.2	29.0	12.3	13.0	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0.8	22.6	33.5	12.1	11.1	100.0
	전세	(243)	11.1	48.6	20.6	11.1	8.6	100.0
	월세/반전세/기타	(61)	8.2	42.6	24.6	9.8	14.8	100.0

31_귀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⑤ 매우 신뢰한다	①+②	④+⑤	평균 (5점)	
		%	%	%	%	%	%	%		
■ 전체 ■		(800)	2.5	22.8	45.9	28.5	0.4	25.3	28.9	3.02
성별	남자	(388)	1.8	25.5	46.6	25.5	0.5	27.3	26.0	2.97
	여자	(412)	3.2	20.1	45.1	31.3	0.2	23.3	31.6	3.05
연령	19세~20대	(148)	4.1	20.9	45.3	27.7	2.0	25.0	29.7	3.03
	30대	(172)	2.3	22.1	51.7	23.8	0.0	24.4	23.8	2.97
	40대	(164)	1.2	26.8	47.0	25.0	0.0	28.0	25.0	2.96
	50대	(150)	3.3	26.7	36.7	33.3	0.0	30.0	33.3	3.00
	60대 이상	(166)	1.8	17.5	47.6	33.1	0.0	19.3	33.1	3.12
권역	강북동 권역	(238)	4.2	19.7	42.4	33.2	0.4	23.9	33.6	3.06
	강북서 권역	(144)	0.7	22.2	41.0	35.4	0.7	22.9	36.1	3.13
	강남동 권역	(170)	2.9	25.3	53.5	18.2	0.0	28.2	18.2	2.87
	강남서 권역	(248)	1.6	24.2	46.8	27.0	0.4	25.8	27.4	3.00
직업	자영업	(122)	0.0	28.7	43.4	27.9	0.0	28.7	27.9	2.99
	블루칼라	(101)	1.0	26.7	45.5	26.7	0.0	27.7	26.7	2.98
	화이트칼라	(315)	4.1	23.2	48.3	23.5	1.0	27.3	24.4	2.94
	가정주부	(173)	2.3	17.9	45.7	34.1	0.0	20.2	34.1	3.12
	학생	(63)	1.6	22.2	38.1	38.1	0.0	23.8	38.1	3.13
	무직/기타	(26)	3.8	7.7	50.0	38.5	0.0	11.5	38.5	3.23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3.6	23.7	47.8	24.0	0.9	27.3	24.9	2.95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2.7	28.4	43.2	25.7	0.0	31.1	25.7	2.92
	일용근로자	(10)	0.0	30.0	40.0	30.0	0.0	30.0	30.0	3.00
	자영업자	(122)	0.0	28.7	43.4	27.9	0.0	28.7	27.9	2.99
	해당없음/기타	(257)	2.3	16.7	45.5	35.4	0.0	19.1	35.4	3.14
혼인 여부 & 자녀수	미혼	(226)	3.5	24.8	44.2	26.1	1.3	28.3	27.4	2.97
	기혼 & 무자녀	(41)	4.9	22.0	39.0	34.1	0.0	26.8	34.1	3.02
	자녀 1명	(112)	2.7	27.7	51.8	17.9	0.0	30.4	17.9	2.85
	자녀 2명	(344)	1.5	21.2	45.3	32.0	0.0	22.7	32.0	3.08
	자녀 3명 이상	(65)	1.5	13.8	49.2	35.4	0.0	15.4	35.4	3.1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7.2	18.8	44.9	27.5	1.4	26.1	29.0	2.97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1.4	27.6	43.9	26.5	0.7	28.9	27.2	2.98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2.7	21.1	48.2	28.1	0.0	23.7	28.1	3.02
	600만 원 이상	(138)	2.2	18.1	45.7	34.1	0.0	20.3	34.1	3.12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2.4	21.4	44.4	31.5	0.4	23.8	31.9	3.06
	전세	(243)	1.6	25.9	49.8	22.2	0.4	27.6	22.6	2.94
	월세/반전세/기타	(61)	6.6	21.3	42.6	29.5	0.0	27.9	29.5	2.95

32_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 수	Top 2 %(매우+약간 '신뢰한다' 응답률)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	낯선 사람	정부	기업	언론 매체	전문가	시민 단체	종교 단체	군대	노동 조합	금융 기관
			%	%	%	%	%	%	%	%	%	%	%	%	%	%	%
▣ 전체 ▣		(800)	94.8	69.8	76.5	47.0	25.1	3.0	15.8	12.5	16.5	36.1	31.3	28.4	15.9	11.0	18.4
성별	남자	(388)	95.6	72.2	79.4	49.5	21.4	3.4	17.0	11.3	18.8	31.7	30.9	25.5	17.3	10.3	17.8
	여자	(412)	93.9	67.5	73.8	44.7	28.6	2.7	14.6	13.6	14.3	40.3	31.6	31.1	14.6	11.7	18.9
연령	19세~20대	(148)	93.2	62.8	83.8	41.9	18.9	2.7	15.5	10.8	13.5	40.5	23.6	18.9	13.5	6.8	10.8
	30대	(172)	94.2	65.1	72.7	45.3	21.5	5.2	12.2	14.5	14.0	30.2	34.3	22.1	9.9	14.0	17.4
	40대	(164)	98.2	72.6	75.0	45.7	20.7	3.0	14.0	11.0	15.9	34.1	32.9	28.0	14.6	9.8	17.1
	50대	(150)	94.0	74.0	74.7	52.7	33.3	2.0	13.3	13.3	18.0	34.7	34.7	33.3	20.0	10.7	16.7
	60대 이상	(166)	94.0	74.1	77.1	49.4	31.3	1.8	23.5	12.7	21.1	41.6	30.1	39.2	21.7	13.3	28.9
권역	강북동 권역	(238)	95.0	71.0	75.2	41.2	23.1	5.0	15.1	10.9	16.0	33.6	28.2	23.9	15.5	9.2	14.3
	강북서 권역	(144)	94.4	68.8	70.8	45.8	18.8	4.2	13.9	20.1	15.3	35.4	36.8	31.3	18.1	18.8	31.3
	강남동 권역	(170)	94.7	71.2	79.4	48.8	25.3	0.6	15.9	12.9	11.2	31.2	21.8	28.8	13.5	10.0	22.9
	강남서 권역	(248)	94.8	68.1	79.0	52.0	30.6	2.0	17.3	9.3	21.4	42.3	37.5	30.6	16.5	8.9	11.7
직업	자영업	(122)	97.5	78.7	81.1	51.6	30.3	1.6	13.9	9.8	18.9	41.8	29.5	30.3	19.7	9.8	23.0
	블루칼라	(101)	96.0	79.2	82.2	51.5	24.8	1.0	12.9	12.9	15.8	36.6	35.6	33.7	17.8	7.9	18.8
	화이트칼라	(315)	93.7	62.5	73.7	45.1	17.8	3.2	14.9	10.8	14.6	29.2	32.7	25.4	12.7	10.5	15.2
	가정주부	(173)	96.0	75.1	73.4	48.0	38.2	4.6	17.9	17.9	18.5	41.0	30.6	33.5	16.2	16.2	21.4
	학생	(63)	90.5	58.7	84.1	42.9	19.0	3.2	22.2	11.1	15.9	39.7	19.0	17.5	19.0	6.3	14.3
	무직/기타	(26)	92.3	69.2	69.2	34.6	19.2	3.8	15.4	11.5	19.2	50.0	38.5	26.9	19.2	11.5	23.1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337)	95.3	67.4	76.3	46.6	19.0	3.0	16.3	12.2	18.1	33.5	34.1	26.7	14.5	11.0	16.9
	임시근로자 (비정규직)	(74)	90.5	54.1	64.9	32.4	13.5	4.1	6.8	6.8	6.8	13.5	23.0	27.0	8.1	2.7	9.5
	일용근로자	(10)	90.0	50.0	80.0	50.0	30.0	10.0	30.0	30.0	20.0	60.0	10.0	30.0	40.0	20.0	30.0
	자영업자	(122)	97.5	78.7	81.1	51.6	30.3	1.6	13.9	9.8	18.9	41.8	29.5	30.3	19.7	9.8	23.0
	해당없음/기타	(257)	94.2	73.9	77.8	49.4	33.9	3.1	17.9	15.2	16.0	42.4	31.5	30.0	17.1	13.6	20.2
혼인 여부 & 자녀 수	미혼	(226)	91.6	56.2	79.2	39.4	17.3	4.0	13.3	10.2	12.8	34.5	26.1	18.6	10.2	8.4	10.6
	기혼 & 무자녀	(41)	95.1	68.3	63.4	41.5	9.8	4.9	9.8	12.2	12.2	34.1	34.1	24.4	9.8	22.0	22.0
	자녀 1명	(112)	91.1	61.6	67.0	40.2	17.9	1.8	16.1	17.0	16.1	34.8	41.1	30.4	17.0	10.7	25.0
	자녀 2명	(344)	98.5	79.9	80.8	54.7	32.3	2.9	16.6	12.8	17.2	38.4	30.8	33.7	20.1	11.6	18.9
	자녀 3명 이상	(65)	95.4	84.6	76.9	53.8	40.0	1.5	24.6	12.3	30.8	35.4	30.8	33.8	18.5	9.2	26.2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69)	85.5	56.5	72.5	47.8	24.6	1.4	14.5	10.1	14.5	36.2	39.1	23.2	8.7	13.0	14.5
	200만 원~ 400만 원 미만	(294)	94.2	69.7	76.2	48.3	21.4	2.0	14.6	13.6	17.3	35.4	30.6	29.6	16.0	12.9	19.7
	400만 원~ 600만 원 미만	(299)	97.0	72.6	74.6	44.1	27.8	5.4	17.1	12.0	16.1	37.5	30.4	28.1	18.1	9.0	18.4
	600만 원 이상	(138)	95.7	70.3	83.3	50.0	27.5	0.7	15.9	12.3	16.7	34.8	30.4	29.0	14.5	10.1	17.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96)	94.8	72.6	78.2	49.0	29.6	3.6	16.7	12.3	18.1	38.7	32.1	29.6	18.3	11.1	20.0
	전세	(243)	96.7	70.0	75.7	43.6	17.7	2.5	14.4	13.6	14.8	33.7	32.9	30.0	12.3	12.3	16.9
	월세/반월세 /기타	(61)	86.9	45.9	65.6	44.3	18.0	0.0	13.1	9.8	9.8	24.6	18.0	11.5	9.8	4.9	11.5

Abstract

A Study on Risks and the Insecure Society in Seoul

Kwonjoong Choh · Ji-Won Choi

Around 2014, anxiety and insecurity prevailed Korean Society. Since young students asked peace and satisfaction to citizen, country faced disaster of Sewol Ferry. Citizens felt unsafe and have perceived risks.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insecure society. Seoul is regarded as the insecure society. Focus of study resided in citizens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risks originated from urban society. The survey showed that 51.8% of citizen sample perceived insecurity in Seoul. Also 40.6% of sample experienced anxiety in everyday life. Citizens expected the increase of risks from lifetime cycle.

Five new social risks have been identified on the social policy agenda; birth and childcare, youth unemployment, working poor, housing problem, and aging insecurity. Citizens emphasized importance of social risks in the survey as follows: housing issue, youth problem, and aging insecurity. Those risks result in anxiety and insecurity of citizens.

Anxiety and insecurity is followed by lack of social trust. The task of social policy should focus on trust building and community. Social policy to respond to social risks should be founded on the social trust which resides in community of solidarity.

Contents

01 Risks and insecurity Phenomena in Seoul

- 1_Risks and Disasters
- 2_Insecurity prevails Society
- 3_Research Methods

02 Citizens Perception and Attitude in the Insecure Society

- 1_Questionnaire Survey Methods
- 2_Risks Perception: Is Seoul Safe?
- 3_Citizens Experience of Instability in Everyday Life
- 4_Citizens Attitude about the Insecure Society in Seoul

03 Analysis of Socio-economic Security in Seoul

- 1_The Social Quality Approach to Socio-economic Security
- 2_The Socio-economic Security in Seoul
- 3_Problems and Prospect

04 New Social Risks: Prospects of the Insecure Society

- 1_Rise of the New Social Risks
- 2_Trends of the New Social Risks
- 3_Citizens Perception about the New Social Risks
- 4_Insecurity and Latent Social Crisis

05 A Policy Task in the Insecure Society

1_Apprehension about the Future

2_Lack of Social Trust

3_Trust Building and Community

References

Appendix

서울연 2014-BR-05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2월 2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057-9 93330 10,000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은 속합니다.